머리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 조국에 대한 도덕적의무를 지켜야 하며 온 사회에 건전한 도덕기풍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꽃이며 앞날의 기둥이다.

력사발전과 사회의 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높은 사상의식과 함께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갈 때 온 사회에는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회주의도덕기풍이 더욱 튼튼히 세워지게 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세우는 문제를 청년교양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보시고 도덕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청년들에 대한 도덕교양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미래의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주인들인 청년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과 지향, 시대의 요구와 강성국가의 체모에 맞는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니는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청년들이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품성을 지녀야 자신을 사상정신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할수 있으며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또한 청년들속에서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제국주의

자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고 선군시대에 맞는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언제나 청년중시정치를 펼치시며 청년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온 사회에 고상한 도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

이 책에는 청년들이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회주의도덕에 관한 문제들이 리론적으로, 규범적으로 서술되여있다.

청년들은 끝없이 전진하며 발전하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하여 고상한 사회주의도덕관을 지니고 사회의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모범적으로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도덕과 의리로 뭉친 일심의 대오로 더욱 굳게 다지고 혁명과 건설을 적극 추진시켜나가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차 례

상 식

일 화

유모아

속 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하신 교시(발취)

《고상한 도덕과 건전한 생활기풍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입니다.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하여야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공고히 할수 있고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습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김정일**동지를 진심으로 받들고 적극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자기의 부모형제들을 사랑하며 학교에서는 선생과 동무들을 사랑하며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동지들과 모든 근로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속에서 집단주의와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입니다.》

《학생들을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육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공중도덕과 공중질서를 잘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옷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다녀야 하며 옷을 늘 깨끗이 입고 다녀야 합니다.》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공자의 유교도덕이 아닙니다. 웃사람을 존경하는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물론하고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에 반말을 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전화는 반드시 자기 직위와 이름을 대고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덕교양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사회교양과 가정교양을 잘하는 동시에 여기에 학교교양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하신 말씀(발취)

《우리의 남녀청년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에서 훌륭히 구현해나갈 때 사회주의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러운 풍모를 더욱더 과시하게 될것이며 온 사회를 더욱 활기에 넘치게 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위력을 한층더 강화하게 될것입니다.》

《혁명적의리는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전사의 량심이고 도덕이며 수령과 전사를 일심동체로, 한가정으로 결합시켜주는 크나큰 인력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도덕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는것을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여기고 그것을 생활화, 인생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기풍을 세우며 사람들속에서 고상한 도덕의리적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공동의 리익과 요구가 모든 활동의 기준으로 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 가장 값높은 삶으로, 아름다운 도덕으로 됩니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도덕적의무입니다.》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초보적인 도덕품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공중도덕과 례의범절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일군들이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수화기를 놓는것은 실례이며 버릇없는 행동입니다.》

《도덕교양은 긍정감화교양방법으로, 사회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청년과 도덕관

도덕이란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
> 김정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옳바른 도덕관을 가지고 생활해나가자면 먼저 도덕에 대한 개념부터 잘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흔히 생활에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도덕품성을 중요하게 론하군 한다. 그것은 도덕이 인간적면모를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도덕의 수준이자 그 사람의 인격의 높이이고 얼굴이라는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것이다.

말이나 행동에서 도덕을 상실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걸치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도 외형상으로만 인간일뿐이지 동물이나 다름이 없고 따라서 인간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도덕은 사람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과 다를바없는 《인간》인가를 론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것은 오랜 력사적과정속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전통적인 관

념이다.

리조시기의 륜리사상가인 리수광(1563－1628)은 도덕을 사람과 만물을 구별케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인정하고 《만물가운데서 사람이 귀중한것은 바로 도덕을 가지고있는데 있다. 만약 이 귀중한것이 갖추어져있지 않으면 만물과 같은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론문 《이묘설》에서 《아, 아, 세상사람들속에는 혹시 례의와 렴치를 돌보지 않고 어떤 물건을 위하여 적은 리속에 맞다들려 독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며 서로 살해하는자까지 있다. 그것은 참으로 용모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이다.》라고 까밝혔다.

리조시기 륜리학의 대표자 송시렬(1607－1689)은 륜리를 사람과 짐승, 문명과 미개를 가르는 기준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사람이 사람구실을 하고 나라가 나라구실을 할수 있는것은 바로 륜리가 있기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없게 되면 사람이 짐승으로 되고말것이며 문명하던 나라가 미개한 세상으로 되고말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끔 부닥치는 현상이지만 말과 행동을 옳게 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편리에는 아랑곳없이 자기 개인의 리익을 위해 몰상식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돼먹지 않은 인간》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말하는 《돼먹지 않은 인간》이란 아직 인간으로서 채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아직 인간으로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이처럼 도덕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은 사람이 사회와 집단을 위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론하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못갖추었는가를 론하는 초보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로 되는것이다.

아무리 잘 생기고 지식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도덕품성이 결여되여있으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한 사람아닌 《사람》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면 도덕이란 무엇이기에 사회적인간의 가치와 금새를 평가하는 기본징표의 하나로 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덕은 외적인 강요나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입니다.》

도덕은 사람들의 량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 행동규범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도덕이란 사람들이 자기스스로의 량심에 기초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집단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규범과 준칙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사회에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들이 있다.

어떤 행동은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되며 또 어떤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항들이 여러 규범들에 밝혀져있다.

만일 사회에 이런 행동규범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의 요구가 꼭같지 않은 조건에서 행동규범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사회가 문란해지고 혼란이 일어나기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 있는것이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두가지 규범에 의하여 제약되는데 하나는 법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도덕규범이다.

법규범이 국가권력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사회적행동규범이라면 도덕은 량심에 기초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지는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도덕이 량심에 의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라는데 국가권력에 의해 사람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범과 다른 특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할 도덕은 어떤 도덕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이 지켜야 할 도덕은 사회

주의도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사회주의도덕은 인민대중을 위한 도덕으로서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주의도덕은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 참다운 인륜도덕이다.

자본주의사회에도 이른바 도덕이라는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철두철미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하여 일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남을 착취하거나 자신만을 위하는 기만과 허위, 위선으로 가득찬 도덕아닌 도덕이다.

몇푼의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사기와 협잡, 강도질을 서슴지 않고 남이 굶어죽거나 얼어죽는데 대해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것이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사상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퇴페적인 풍조가 가득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개인의 리익, 개인탐욕에 기초하고있으며 너를 죽여야 내가 살수 있다는것이 이 사회의 고유한 법칙으로, 《생리》로 되고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인생관, 생활관과 인간증오사상은 인간을 야수화하고 인간사회를 《동물》집단으로 만드는 무서운 사상독소이다.

이처럼 자본주의사회는 고상한 인륜도덕은 황페화되고 패륜패덕이 서식하는 미래가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는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해 자기를 바치며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더없이 아름답고 고상한 륜리도덕이 꽃펴나는 사회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도덕은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집단과 개인의 리익을 다같이 존중시하며 집단의 리익을 실현하는 과정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나가는 참다운 도덕이다.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

로자들모두가 자기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다 바치는 고상한 륜리도덕의 소유자들이다.

물에 빠진 제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먼저 구원한 아름다운 소행도 집단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감동적인 현실이다.

몇해전 많은 피해를 입은 룡천군인민들을 온 나라 인민들이 떨쳐나 물심량면으로 지원한 사실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있다.

주체93(2004)년 4월 룡천군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읍지구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였다.

공장, 기업소건물들과 주택지구들, 학교건물들이 거의 모두가 파괴되여 사람들은 10년이 걸려도 원상복구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룡천군인민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었으며 살림집과 공공건물들도 짧은 기간에 원래보다 더 훌륭히 건설해주었다.

읍지구의 모든 주민들은 잃은것보다 더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받아안고 새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은 새 책가방과 학용품을 가지고 훌륭하게 건설된 새 교사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인간사랑, 동지애의 모습은 고상한 집단주의도덕이 지배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볼수 있는 아름다운 화폭인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주의도덕이 어떤 도덕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사회주의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생활에 대한 도덕의 규제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사회의 기초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서로 적대되는 계급들간의 사회정치적 및 경

제적모순이 존재하게 되며 그로 하여 정신도덕분야에서도 역시 적대적인 성격이 존재하게 된다.

착취계급은 어떻게 하나 인민대중의 피땀을 더 많이 짜내여 자기 개인의 부를 늘이려 하며 이런 목적으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로자들을 악착하게 착취한다.

이러한 리해관계와 목적의 차이로 하여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에는 사랑이나 의리와 같은 도덕적뉴대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수 없으며 약육강식의 동물적인 법칙만이 작용하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회생활전반이 법적 및 행정적인 강제에 의해서만 유지될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주의적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성원들 호상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륜리관계로 이루어져있으며 따라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생활에서는 륜리도덕의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지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사회와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 동지들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사회생활은 매 사람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스스로 유지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속 담○

집 단

- 혼자서 가는 길은 멀다.
- 혼자서는 작은 둔덕도 넘기 힘드나 힘을 합치면 산도 쉽게 넘는다.
- 혼자서는 절망에 빠져도 여럿이면 희망에 넘친다.
- 혼자서는 천국에서도 살기 어렵다.
- 양은 무리에서 떨어져 외토리가 되면 승냥이밥이 될 위험에 빠진다.
- 여럿이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러면 이처럼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도 의연히 여러가지 법들이 존재하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 착취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들이 남아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갈수록 착취사회의 낡은 유물은 점차 청산되여 권력의 통제에 의한 사회생활의 규제범위가 줄어들게 되며 대신에 도덕에 의한 규제범위는 더욱더 확대되여나가게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과 도덕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나타나는 일반적법칙이다.

그러므로 인간개조사업이 전면에 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을 문명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정의로운 인간으로 키우는 문제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나서게 되며 이로부터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도덕교양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고상한 륜리도덕의 체현자로 변모되여 사회관계는 숭고한 륜리도덕관계로 전환되며 사회생활은 고도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화목하게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도덕발전의 이러한 합법칙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수양하기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다면 륜리도덕에 밝았던 사람도 래일에 가서는 도덕적으로 뒤떨어진 시대의 락오자로 될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덕적요구도 높아진다는 시대적요구를 잘 알고 벅찬 혁명실천속에서 자신을 정신도덕적으로 부단히 수양하여 선군시대의 참인간으로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량심, 사랑, 의리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량심이 없고 도덕의리를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갖출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김정일

륜리도덕에 대하여 깊이있게 리해하자면 우선 량심과 사랑, 의리에 대한 표상을 명백히 가져야 한다.

그것은 량심과 사랑, 의리가 도덕이 의지하고있는 기초이기때문이다.

기초가 없는 건물을 생각할수 없듯이 량심과 사랑, 의리를 떠난 도덕에 대하여 론할수 없다.

그러면 량심과 사랑, 의리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가.

량심이란 사회적인간으로서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하려는 높은 자각이며 책임감이다.

다시말하여 량심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에 맞게 자기의 행동을 조절통제하는 사상의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수치와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니게 한다.

이러한 량심은 사람을 고상한 품격을 지닌 사회적존재로 되게 하는가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저속하고 비렬한 인간으로 되게 하는가를 갈라볼수 있게 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들은 흔히 옳지 않게 행동을 한 사람을 볼 때면 《저 사람은 과연 량심이 있는가 량심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뻐젓이

할수 있는가 저 사람은 한쪼각의 량심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군 한다.

사람의 행동을 놓고 그것이 도덕적인가 비도덕적인가를 평가하기 전에 량심이 있는 행동인가 량심이 없는 행동인가를 먼저 론하게 되는것은 량심이 인간의 도덕품성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지 않게 행동하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량심이 있는 사람이며 이러한 요구와 리익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량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다.

량심은 가슴속에 간직한 깨끗한 마음이기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남이 모른다고 하여도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량심이 있어야 사람다운 품격을 지닐수 있고 하루라도 참답게 살수 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이여야 사람이지라는 말은 사람이 순결한 량심을 지니고 참답게 살 때에만 사람다운 대접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기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사회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제 마음 내키는대로 행

○속 담○

량 심

- 마음은 거짓말을 못한다.
- 마음에서 마음에로 통하는 길이 있다.
- 빚이 없으면 마음도 편안하다.
- 좋은 아들은 가난하다 부모를 탓하지 않으며 좋은 개는 곤난할 때 주인을 저버리지 않는다.
- 집은 재물로가 아니라 깨끗한 량심으로 꾸려라.
- 아무리 목이 타도 훔친 물 마시지 말라.
- 이 세상에서 혀없이 말하는것은 오직 량심뿐이다.

동하고 그 어떤 비행과 죄악도 꺼리낌없이 저지르는 인간들은 례외없이 량심이 없거나 량심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진 더러운 추물들이다.

그런자들은 일생 마음의 안정을 잃고 사회적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여 수치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해 애써 노력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은 량심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재부이며 량심을 버린다는것은 곧 인간의 마음을 버린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량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량심가운데서도 가장 고결하고 값높은 량심은 혁명적량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결한 량심은 혁명적량심입니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충실히 지키려는 아름다운 마음이며 높은 책임감입니다.》

혁명적량심은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개인의 리익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충실히 지키려는 마음이며 높은 책임감이다.

혁명적량심은 혁명가의 고결한 인격이다.

혁명가들은 혁명적량심을 지니고있음으로 하여 그 어떤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그것을 더없는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는것이다.

그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청춘의 고귀한 땀과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선군시대 청년전위들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조국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명예도 안락도 바람이 없이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고있는 모든

청년들은 다 깨끗한 량심의 소유자들이고 참다운 혁명가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그와는 대조되게 량심이 어지러운 인간들, 량심에 때가 앉은 인간들이 더러 있다.

남이야 고생하든 아파하든 상관없이 오직 저 하나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리기주의자들과 혁명의 요구나 당의 부름에는 말로만 대답하고 자리지킴으로써 시간만 보내는 패배주의자, 보신주의자들, 어렵고 힘든 곳에 가라면 조건과 구실을 대며 몸을 사리고 먹을알이 있는 곳만 찾아다니며 기생충처럼 살아가려는 인간들이 가는 종착점은 결국 배신과 변절로서 자기 인생을 더럽게 마무리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량심은 또한 사람들을 아름다운 도덕적행동에로 떠밀어주고 추동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정신적요인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깨끗한 량심을 지녀야 사회와 대중을 위하여 헌신할수 있으며 시대앞에 지닌 책임감을 안고 시련많은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있다.

혁명가의 량심속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있고 조국과 인민, 동지들에 대한 헌신성도 있으며 부모처자들에 대한 애정도 있다.

세상에서 귀중한것이 인간의 깨끗한 량심이며 또 버릴수 없는것도 인간의 량심이다.

이처럼 소중하고 귀중한 량심을 지닌 인간으로 사는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선군시대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면모이다.

○속 담○

사랑과 우정

- 사랑하는 사이에는 동지섣달도 봄이다.
- 사랑은 먼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만든다.
- 사랑은 변절하는 마음만 내놓고 모든것을 타승한다.
-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 참된 우정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 얼음은 랭랭하나 따뜻한 품속에서는 빨리 녹는다.
- 옳게 사랑하는 사람은 옳게 처벌한다.

우리 청년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고상한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간으로 준비되자면 량심과 함께 사랑, 의리에 대한 견해와 관점도 옳바로 가져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본성이다.

물론 사랑의 대상에는 사람만이 속하는것이 아니다.

삶의 터전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인 자연과 사람에 의하여 창조되고 리용되는 사회의 모든 정신적 및 물질적재부들도 사랑의 대상으로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속에 태여나 사랑속에 자라며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해나가는 사회적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제일 첫번째 자리에 놓인다.

사랑으로 맺어지는것이 인간의 고유한 관계이며 사랑의 힘으로 세계와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이 인간의 참다운 삶이다.

사랑이 있기에 사람들사이에 아끼고 믿어주며 위해주는 고상한 륜리도덕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사회가 더욱더 참다운 인간의 보금자리로 발전되여가는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회에 그 어떤 단결과 협력, 화목과 인정도 있을수 없으며 불신과 대립, 반목과 질시만이 지배되여 사람들은 고독과 불행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 보기로 하자.

참된 사랑은 크게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있다.

하나는 사람을 믿고 귀중히 여기는 사상감정이며 다른 하나는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사랑은 우선 믿는 마음에서부터 꽃펴나게 된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수 없으며 믿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는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다.

사람을 믿는다는것은 그의 사상을 믿는다는것이고 그의 능력을 믿는다는것이다.

그와 뜻을 같이하는 길에서 영원히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갈수 있다는 믿음,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높은 리상도 목표도 능히 실현할수 있다는 믿음은 인간에 대

한 참다운 믿음일뿐아니라 최고의 믿음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가는 사람은 더없이 귀중히 여기게 된다.

사랑은 또한 서로 위해주고 모든것을 다 바쳐 도와주려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진실로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없다면 참다운 사랑이 이루어질수 없다.

상대방을 동정한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는 진실로 사랑한다고 말할수 없다.

백사람의 동정이 한사람의 실질적인 도움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참다운 사랑의 관계는 단순한 동정심에 의해 맺어지는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고 실질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심없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사랑에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도 있으며 친구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하많은 사랑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은 동지들사이의 사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랑에는 부모의 사랑, 처자의 사랑, 친구의 사랑과 같은 여러가지 사랑이 있지만 동지의 사랑보다 더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은 없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 동지의 사랑이며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것이 동지의 믿음이다.

그러면 동지의 사랑이 여러가지 사랑중에서 왜 제일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으로 되는가.

혁명의 길에서 동지들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은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이고 동지에 대한 끝없는 헌신이다.

다시말하여 자기는 굶더라도 동지는 굶지 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동지는 춥지 않게 하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불속과 얼음구멍에도 뛰여들고 단두대에도 서슴없이 나서는 그런 자기희생

적인 헌신성이다.

무엇이 풍족하면 도와주는척 하고 불리하면 아닌보살하는 사람, 좋을 때에는 죽자살자 하다가도 불리한 때에는 모르는척하며 외면해버리는 사람은 혁명적동지애가 없을뿐아니라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인생의 진리도 모르는 가련한 존재이다.

집단생활을 하면서 자기의것이 하나라도 곯으면 인상을 흐리고 다른 사람이 잘되면 시기하며 뒤다리를 잡아당기는 현상,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남의 일은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도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큰일이나 난것처럼 소동을 피우는 현상, 집단의 사랑을 받기만 좋아하고 그에 보답하려고는 하지 않는 현상 등은 혁명적동지애와 인연이 먼 현상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편향들이다.

혁명적동지애는 받는것이 아니라 주는것이며 그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극진히 위해주는 인간사랑의 결정체이고 최고봉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동지들을 굳게 믿으시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혁명적동지애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혁명적동지애의 빛나는 전통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을 거쳐 오늘 선군시대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혁명동지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을 바치고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여 고락을 함께 하고있는 감동적인 소행들은 진심으로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고상한 동지애의 집중적표현이다.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막아 수많은 동지들을 구원한 인민군군인들의 소행은 선군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동지적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산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은 무한히 뜨거울뿐아니라 원칙적이여야 한다.

동지애는 단순한 우정이나 눈먼사랑이 아니라 원칙적인 사랑이다.
동무의 결함에 대해서는 제때에 고쳐주기 위해 애쓰며 또 비판을 받은 사람은 동지적충고를 고맙게 생각하고 결함을 대담하게 고쳐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동지호상간의 믿음이고 리해이며 혁명동지들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이다.
다음으로 인륜도덕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량심과 사랑뿐아니라 의리에 대해서도 론하게 된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애착을 가지고 자주 쓰고있는 의리란 말은 무엇이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리란 은혜와 사랑을 준데 대하여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을 이르는 말입니다.》
의리란 말그대로 은혜와 사랑을 준데 대하여 잊지 않고 그에 보답하는 인간의 미덕을 이르는 말이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와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 어려울 때 극진히 도와주었거나 생명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준 은인에게 보답하는것은 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의리를 지킬 때 사람들사이에는 참다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의리를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간됨됨과 도덕적가치가 평가되게 된다. 의리가 있어 인간이고 인간이기때문에 의리를 지켜야 하는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의리가 깊고 의리를 소중히 여겨왔다.
부모에게 남달리 극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친구들사이에 신의가 깊었던 우리 인민은 오래전부터 의리가 없는 인간은 사람값에도 쳐주지 않았으며 어떤 경우에도 의리만은 목숨으로 지켜왔다.
의리는 결코 단순한 신세갚음이나 등가보상이 아니다.
받는것만큼 주고 준것만큼 받는것이 의리라고 할수 없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것은 자기 부모가 다른 부모들보다 더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

기를 낳아 수만공수를 들여 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때문이다.

의리는 어디까지나 사랑하고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인간의 참된 도리를 말하는것이다.

사회적인간이라면 마땅히 자기가 받은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잊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 보답하기위해 애써야 한다.

의리의 기초가 사랑이라면 의리를 다할수 있게 하는것은 량심이다.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 말대답질을 하거나 스승을 존경할줄 모르며 조직과 집단의 사랑과 믿음을 받고도 그에 보답할줄 모르는 사람은 의리가 없고 량심이 없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받아안은 은혜나 사랑보다도 돈이나 개인의 향락을 먼저 생각하며 의리를 헌신짝처럼 줴버리는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비렬하고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초보적인 의리도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어데 가서도 사람답게 행동하고 처신할수 없으며 종당에는 자기를 키워준 당과 조국의 은덕도 모르는 민족의 배반자로 될수 있다.

의리가운데서 가장 진실하고 숭고한 의리는 혁명적의리, 동지적의리이다.

혁명적의리는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사이에 이루어지는 참다운 인간도리이다.

그것은 동지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고 뜨거운 헌신이며 성실한 보답의 감정이다.

혁명적의리에서 중요한 문제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것이다.

만일 자기 조국이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조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 한몸의 안일만 생각하며 조국을 배반한다면 그러한 인간은 자기를 키워준 조국에 대한 의리도 없는 사람일것이다.

그러나 혁명적의리를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

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혁명적의리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동지들사이에 의리를 잘 지키는것이다.

동지들사이에 혁명적의리를 잘 지키는가 못지키는가 하는것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된다.

동지를 진심으로 믿고 귀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당과 혁명에도 충실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적의리의 새 세계를 개척하고 꽃피워온 참다운 혁명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의 창조자들이다.

그들은 혁명적의리를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으며 단두대와 철창속에서도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켜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실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혁명적의리와 깨끗한 량심은 우리 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고귀한 정신도덕적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위력한 원천이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적량심과 의리를 본받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언제나 다진 맹세 변치 말고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실해야 하며 혁명동지를 위해 헌신하는 도덕품성을 지녀야 한다.

도덕적수양

《사람들의 도덕적완성은 끊임없는 자체수양과 교양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정일

우리는 앞에서 도덕과 량심, 사랑, 의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보았다.

그러면 청년들이 도덕과 량심, 사랑, 의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저절로 도덕품성을 갖춘 참다운 인간이 되는가, 결코 그런것은 아니다.

청년들이 한생에 다시없는 청춘시절에 자기의 도덕적수양을 쌓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고상한 사회주의도덕을 지닌 량심적인 인간으로 될수 없다.

그러면 수양이란 무엇이기에 청년들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추는데서 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수양이란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것을 말한다.

우리 청년들이 자체수양을 쌓는다고 하는것은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고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며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사상과 도덕품성을 갖춘다는것을 말한다.

수양은 우선 온갖 낡은것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상과 도덕을 비롯한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있는 온갖 낡은것을 뿌리빼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의미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낡고 뒤떨어진 도덕관습이 있게 된다.

그것이 더 많은가 적은가 하는 문제는 있을수 있어도 누구에게는 낡은 도덕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힘들다.

낡은 도덕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태여나 자라난 새 세대 청년들에게도 있게 된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잔재와 도덕관습이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퇴폐적이고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를 계속 악랄하게 퍼뜨리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낡은 사상과 도덕을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인간으로서의 사상도덕적풍모를 원만히 갖출수 없게 된다.

낡은 도덕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저절로 없어지지 않으며 그것은 반드시 낡은 도덕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에 의해서만 뿌리뽑을수 있다.

수양은 또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속 담○

교양과 수양

- 교양없는 사람이 자제력이 없고 높은 뚝 없는 강이 범람한다.
- 교양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넓은 강은 고요하다.
- 교육의 뿌리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 금강석도 닦아야 빛난다.
- 무지를 깨달은것은 지식쪽으로 크게 접근하는것이다.
- 잘못을 고치는것은 수치가 아니다.
- 집재목은 십년 길러내고 사람은 백년 길러낸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웠는가 세우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전사로서의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었는가를 가늠하는 기본척도로 된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혁명을 인식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것과 함께 혁명전사로서의 고상한 사상정신적도덕풍모를 갖추었을 때라야 비로소 완전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도덕품성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추었을 때에라야 비로소 완전히 섰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곧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전사로서의 사상과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기 위한 투쟁 즉 혁명적수양을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자체수양은 말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여 자기자신을 개조하는 특수한 형태의 인간개조활동이다.

수양의 담당자는 수양을 쌓는 본인자신이다.

자체수양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맞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혁명적교양을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면서도 자체수양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자체로 도덕적수양을 쌓는다고 하는것은 자본주의적이며 봉건적인 온갖 낡고 뒤떨어진 도덕관념과 행동관습을 뿌리빼고 사회주의적도덕의식으로 무장하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주의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다는것을 말한다.

도덕적수양을 잘하자면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도덕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옳바른 도덕관을 가지는것이다.

도덕관이란 간단히 말하여 도덕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어떤것을 도덕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하는 관점이며 립장이다.

청년들이 옳바른 도덕관을 세우는 문제는 량심의 인간이 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공정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도덕관은 혁명적도덕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도덕관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입니다.》

혁명적도덕관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다.

어떤 행동규범을 혁명적도덕으로 보는가 하는것은 어떤 량심을 지녔는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량심에 대해서는 착취계급도 곧잘 외운다.

영화나 소설책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지주놈들은 소작인들에게 높은 리자로 쌀이나 돈을 꾸어주고 그것을 제때에 갚지 못할 때에는 《량심》이 없다고 말하며 제놈의 생일날이나 명절날에 닭이나 꿩 같은 뢰물을 바치지 않으면 도덕이 없다고 떠들어댄다.

결국 착취계급이 떠드는 《량심》이란 자기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말하는 《량심》인것이다. 이로부터 자본가놈들은 저들의 개인적리익을 신성한것으로 여기며 자본에 의거하여 로동자들을 착취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것이다. 결국 개인주의자들인 착취계급은 개인주의적량심에 기초하여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남을 착취하고있으며 자기 중심의 견지에서 도덕문제를 대하는것이다.

그러나 혁명적도덕관은 이런 자본주의, 개인주의도덕과는 달리 혁명적량심에 기초하고있다.

그리고 혁명적량심에 기초하여 제정한 사회와 집단을 위한 행동규범을 혁명적도덕, 사회주의도덕으로 본다.

혁명적도덕관은 또한 사회주의도덕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립장과 태도이다.

도덕관은 단순한 견해와 관점이 아니다.

도덕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있다 해도 사회적으로 응당 지켜야 할 례의범절이나 행동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덕이 없는 인간으로 된다.

그러므로 도덕관에는 어떤 행동규범이 도덕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견해와 관점뿐아니라 그것을 꼭 지켜나가는 립장과 태도까지 포함된다.

청년들이 청춘시절에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우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청년들은 생활과정에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대체로 나이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가지 훈시를 자주 받군 한다.

그 훈시라는것은 한창나이때 공부를 많이 해야지 나이를 먹으면 하기 힘들다는것, 젊어서부터 부지런히 일하는 습성을 붙여야지 그렇게 게을러서는 못쓴다는것, 젊은 사람이 도덕이 없으면 사람구실을 못한다는것 등이다.

그들은 50～60년을 살아온 자기 한생을 돌이켜보면서 뼈저리게 후회되는 교훈에 기초하여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성공한 문제에 대하여 총화하면서 참고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럴 때면 반드시 청춘시절에 대한 문제와 련관시키군 한다.

그러면 그들이 한생에서 교훈적인 후회나 긍지높은 추억에 대한 문제들을 왜 청춘시절과 결부시켜 이야기하군 하는가.

그들에게는 소년시절도 있었고 장년시절도 있었는데 왜 잘되였거나 잘못된 모든것을 청춘시절과 결부시켜 이야기하는것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청춘시절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절이며 한생의 방향각을 크게 좌우하는 관건적인 시절이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청춘시절은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며 두려움과 좌절을 모르는 시절이다.

이 시절은 새것을 지향하는 탐구력과 열정이 불타는 시절이며 기억력과 창조력이 비상하게 발휘되는 시절이다.

특히 이 시절은 혁명적세계관이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다시말하여 사람의 한생을 결정짓는 운명적인 시절이다.

세살적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청춘시절에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세계관은 인간의 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요한 시절에 청년들이 혁명관의 한 구성부분인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우지 못하게 되면 비도덕적인 인간, 도덕이 부족한 인간이 되여 대중의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서 고달픈 한생을 살거나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인간으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한생에 다시없는 청춘시절에 혁명적도덕관을

세우는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말고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청년들이 혁명적도덕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도덕을 지키는것을 도덕적의무로 받아들이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무라고 하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라 할수 있다.

도덕적의무는 사람들이 사회와 집단앞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도덕적임무와 책임을 말한다.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는 도덕적의무외에도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와 같은 여러가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 역시 사람들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임무와 책임이라는 점에서는 도덕적의무와 같다.

그러나 도덕적의무는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와는 달리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는데 그 본질적특성이 있다.

도덕적의무는 사회성원이라면 누구나 사회와 집단앞에 꼭같이 지니고있는 의무이다.

혹 어떤 청년들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도덕적의무를 지키는데서 례외라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견해이다.

사람마다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는 서로 다를수 있어도 도덕적의무에 한해서는 차이가 있을수 없다.

물론 도덕적의무를 잘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를 제때에 수행하지 않았을 때처럼 행정적 및 법적처벌까지는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도덕적의무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이거나 법적의무나 행정적의무를 수행하는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도덕적의무는 인간이 량심적으로 지켜야 할 문제이기때문에 그것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누가 추궁하지 않아도 더 큰 괴로움을 느끼고 심한 량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도덕적의무에 대한 옳은 관점은 청년들로 하여금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인륜도덕에 맞게 행동하도록 할뿐아니라 모든 법적, 행정적의무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해나가게 한다. 청년들은 사회주의도덕을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별치않은 문제로 대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 여기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아름답고 고상한 사회주의도덕품성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주의도덕규범과 행동준칙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청년들은 매일, 매 시각 자신들의 도덕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거기에서 잘된 점이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자체검토와 총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신에게서 낡은 도덕관념이 발로된것은 없는가, 동무의 뒤떨어진 행동관습과 생활인습을 보면서도 못본척 눈감아준것은 없는가, 그 동무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어떤 교양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활의 전과정이 끊임없는 도덕적수양과정으로 되게 할 때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날을 따라 높아지게 될것이며 모든 청년들이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청년들로 준비될것이다.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순결한 량심으로, 최고의 도덕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제일생명이며 가장 고결한 정신도덕적품성이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은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그러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왜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며 여기서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집단의 중심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대중을 무장시키며 당을 조직하여 그 주위에 대중을 묶어세운다.

청년들은 당을 통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수령은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는 은인이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청년들은 수령의 손길아래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혁명의 길에 들어서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을 하며 수령의 은덕으로 보람찬 삶을 누려나가는 고상한 도덕관계를 맺

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난 우리 청년들의 정신도덕적 풍모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인간적가치와 정신도덕적풍모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얼마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지켜나가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것은 자기 수령으로부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는것이며 최대의 행복은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고귀한 정치적생명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운동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을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청년들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셨을뿐아니라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여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세워주시였다.

○속 담○

보 답

- 보잘것 없는 샘터라도 침을 뱉지 말라.
- 소금을 가져온 곳에 흙을 던지지 말라.
- 좋은 일을 한 사람 좋은 갚음 받는다.
- 한것만큼 보답이 있다.
- 꽃을 받고 흙덩이를 던지지는 않는다.
- 아홉을 빌렸으면 열을 돌려주라.
- 은혜에 감사하면 더 많은것을 얻는다.
- 이 세상에서 제일 맛좋은 열매는 감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미래의 주인공들로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은 청년들의 정치적생명력의 근본원천이며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인것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례사로운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의리를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나무랐다.

평범한 생활과정에 맺어지는 의리적인 도덕관계를 놓고도 인간관계의 근본을 일러왔거늘 하물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었으며 참된 삶과 행복을 안겨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떼여놓고 어떻게 인간자체를 말할수 있으며 선군시대 청년들의 도덕풍모에 대해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런것으로 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품성으로 되기때문이다.

당과 조국, 인민에게 충실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의무로 된다.

그러나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해야만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다른 모든 도덕품성들을 규제하는 기본품성이기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로동계급,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는 헌신적복무의 립장과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그 높이와 진실성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당도 수령이 창건하고 이끄는 당이며 사회주의조국도 수령이 마련해주고 부강번영에로 이끄는 조국이며 인민도 수령이 그 운명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인민이다.

수령이 있기에 당과 조국과 인민이 있고 민족의 번영이 있으며 인민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있는것이다.

수령은 당과 로동계급과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가장 집중적으로 체현하고있다.

수령을 떠나서 당과 혁명의 리익,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떠나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그 어느것이나 당과 조국, 인민의 리익,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때문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이 곧 당과 조국,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 우리 인민의 리익의 최고체현자이시다. 따라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과 그것을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어느것이나 다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한것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은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모든 도덕품성에서 기본으로 되는 품성이며 사회주의도덕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가장 깨끗한 량심으로 받들어모시는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도덕, 사회주의도덕의 기본핵이다.

원래 도덕은 그자체가 량심에 기초한 행동규범인것만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하여야 그것이 도덕의리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화한다는것은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동지를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깨끗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는것을 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량심화되여야 그것이 진실하고 열렬한것으로 될수 있고 가장 깨끗한것으로 될수 있다.

력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량심과 의리로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수령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지만 깨끗한 량

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준엄한 시각에 배신의 길로 떨어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력사적인 사로청 제8차대회장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충실할것을 맹세다지였고 그후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한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앞에 다진 심장의 맹세를 변치 말고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청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량심을 버리고 배반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

수령결사옹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이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빛내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언제 어디서나 수령만을 굳게 믿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는데서 그리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행동하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두리에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는것 등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표현된다.

○**일 화**○

교육계의 아버지

어느날 도이췰란드 라이프찌히시에 있는 빈민굴의 한 거리모퉁이에서 한무리의 쪼무래기들이 맨발로 뛰여놀고있었는데 그들가운데는 수수한 옷차림을 한 늙은이 한명이 있었다.

그 늙은이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듬뿍 담고 귀여운 아이들의 놀음을 재미있게 바라보고있었다.

아이들의 동심세계에 완전히 매혹되여있는듯 하였다.

그가 손에 들고있는 주머니안에는 무엇인가 불룩이 들어있었는데 아까부터 땅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주어 자꾸만 그안에 넣는것이였다.

멀리서 그 늙은이의 류별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있던 경찰이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서 《령감, 아까부터 무엇을 그렇게 부지런히

이러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여러 내용중에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표현하는것이 바로 수령결사옹위이다.

그것은 태양이 없는 꽃을 바랄수 없는것처럼 수령이 없는 혁명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년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수뇌부의 안녕에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첫째도 둘째도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수령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수령결사옹위의 참된 모범을 창조한 전형들이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나 새 조국건설시기나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전사가 되시여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백방으로 옹위하시였다.

집어넣소? 이자 주은것을 모조리 내놓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늙은이는 《뭐, 별게 아니지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잔말말고 다 내놓소.》

경찰의 요구에 화가 난 늙은이는 어서 보라고 주머니를 통채로 내밀었는데 그안에는 깨진 유리쪼각이 가득차있었다.

너무도 의아한 일이여서 경찰은 《이따윌 주어선 뭘하오?》 하고 물었다.

늙은이는 경찰에게 《글쎄 저 불쌍한 아이들을 보시오. 신을 신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지 않소? 만약 유리쪼각에 발바닥이라도 상하면 어떡하겠소?》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바로 그가 교육계의 아버지로 널리 소문난 스위스의 뻬스따로찌였다. 그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어디까지나 사랑과 존중이 기본바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학생들을 쌍말로 마구 욕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시여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를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투쟁하는데서 표현된다.

수령의 절대적권위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러므로 수령결사옹위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정당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견결성에 있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도 표현된다.

말로 충실성을 외운다고 하여 충실한 사람이 되는것이 아니며 만세를 잘 부른다고 하여 충실성이 높아지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은 적게 하고 만세는 부르지 않아도 수령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애쓰는 진짜배기 수령결사옹위투사가 되여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또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결사적으로 옹호고수하는데서 표현된다.

수령이 이룩해놓은 혁명업적에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이 그대로 체현되여있으며 그것을 결사적으로 지켜내는것은 곧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항일의 혁명전통의 증견물인 구호나무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길속에서 결사전을 벌린 무재봉의 17명 영웅들의 숭고한 모습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들이였다.

17명 영웅들의 값높은 생은 수령의 신변과 권위, 사상과 로선뿐만아니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서슴없이 바칠 때 결사옹위투사로 될수 있으며 바로 그길에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이 있다는것을 피로써 새겨주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 방패, 성새가 되여야 하며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의도,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시대의 자랑스러운 선군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로동은 도덕적의무

《사회공동생활에서 중요한것은 로동생활입니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도덕적의무입니다.》

김정일

로동생활에도 도덕이 구현된다.

그것은 로동을 대하는 성실한 태도는 인간의 아름다운 풍모의 하나이기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로동은 인간생활의 필수적요구이고 인간의 생존방식으로 되지만 특히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고 쉬운 일만 찾는 현상, 일하기 전에 보수부터 타산하며 먹을알이 있는 곳에만 눈길을 돌리는 현상, 집단로동은 외면하고 개인을 위한 일에만 극성을 부리는 현상 등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왔으며 《비량심적으로 일한다.》는 도덕적평가를 받아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은 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사람은 사회의 주인이며 누구나 보람찬 삶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과 권리가 저절로 차례지는것은 아니다.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적부를 창조하는 담당자라는 의미도 중요하게 담고있다.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참된 가치와 삶의 보람은 바로 사회와 인민에게 필요되는 재부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데 있다.

착취계급, 부르죠아지들의 생활을 가리켜 《기생충적인 생활》, 《동물적인 생활》이라고 하는것은 그들이 로동을 천시하고 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인민대중의 성실한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물질문화적재부를 꺼리낌없이 독차지하고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기때문이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고 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의것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로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인민을 위한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일로 되고있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도덕적의무이다.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이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도덕적의무라는것은 로동에 참가해도 되고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별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로동은 모든 재부와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으로 되기때문에 반드시 량심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것이다.

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태도를 가지고 로동에 대한 혁명적도덕을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로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로동은 우리 청년들의 청춘시절을 빛나게 할뿐아니라 사회주

○속 담○

근면성

- 근면한 사람은 하루를 이틀로 만든다.
- 개미는 작아도 산을 허문다.
- 노력이 없으면 아무일도 못하며 애쓰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 물이 그립거든 우물을 파라.
- 부지런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성취한다.
- 꾸준히 적극 달라붙으면 젖은 장작에도 불이 달린다.
- 오늘 할 일을 래일로 미루지 말라.

의조국을 더욱 부강번영케 하는 원천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청년들이 로동에 대한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가자면 또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탄원하여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거창하고 복잡한 사업이며 여기에는 다른 부문보다 더 어렵고 힘든 로동을 필요로 한다.

탄광과 광산, 건설장과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이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전진이 이루어질수 없다.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중요전선을 맡아나설 담당자, 주력부대는 다름아닌 혈기왕성한 청년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영웅적위훈을 떨칠데 대해 가르치시였다.

청춘시절은 힘이 용솟음치고 정열이 넘쳐나는 시절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해도 하루밤만 자고나면 새힘이 솟아나고 몇밤을 지새워도 피곤을 모르는것이 바로 청춘시절이다.

이처럼 고유하고 훌륭한 특질을 가지고있는 우리 청년들이 쉬운 일터를 찾는것은 당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새 세대 청년들로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는 비도덕적현상으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청춘의 영예와 위훈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청년들이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는것은 로동에 대한 도덕적의무에 충실한것으로 된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한 일인 동시에 자기자신을 위한 일로 된다.

로동에 대한 긍지와 보람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며 로동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 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나라와 인민을 위

하여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사회적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며 로력혁신자로, 숨은 공로자로 떠받들리우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일한다는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여야 한다.

로동에 대한 고상한 도덕품성은 로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립장을 가지는가 안가지는가 하는데서도 표현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은 로동을 사랑하며 자기가 한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사회앞에 책임지는 립장에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로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깨끗하고 윤택이 나는 제품에서 사람들은 그 제품을 만든 로동자의 알뜰하고 깐진 일본새를 보고 높이 찬양한다.

반대로 거칠게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그 용도나 미적가치를 론하기에 앞서 만든 사람의 로동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평가하면서 량심이 없다고 비판한다.

알뜰하고 깐진 일본새는 로동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의 발현이며 거친 일본새는 본질에 있어서 로동의 결과를 사회앞에 책임지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이 없는 비량심적인 행동이다.

우리들은 주위에서 거칠게 되는대로 일하는 현상들을 가끔 보게 된다.

건설부문에서는 속도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건설물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날림식으로 일하는 현상, 생산부문에서는 계획수행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차요시하는 현상 등이 모든 일본새는 그 내용과 형태는 어떻든지 다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높은 책임감이 부족한데서 오는 비도덕적이며 비량심적인 행동인것이다.

알뜰하고 깐지게 일하며 로동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되고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때 사회와 집단은 그러한 로동을 량심적인것으로 높이 평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모래 한삽을 뜨고 나사못 하나를 깎아도 거기에 자기의 깨끗한 량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에서 높은 자각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며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회적재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할 도덕으로 된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말도 있듯이 로동으로 아무리 많은 사회적재부를 만들어놓아도 그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못쓰게 만들면 창조한 보람이 없게 된다.

사회적재부에는 물질적인것도 있고 정신적인것도 있다.

공장과 기업소, 공공건물과 살림집, 극장과 도서관, 공원과 유원지 등 모든것이 사회적재부로 되며 그것은 부강조국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그러므로 이 모든것을 아끼고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

혁명적도덕, 사회주의도덕은 청년들이 사회적재부를 아끼고 사랑할뿐아니라 그것을 희생적으로 지킬것을 요구한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귀중한 나라의 재부, 사회적재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것을 목숨바쳐 지키는것은 청년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의무로 된다.

몇해전 갑산군 사평중학교 졸업생들과 사평협동농장 농장원들은 뜻밖에 일어난 산불에 의하여 나라의 귀중한 산림이 불타는것을 보고 자기들의 귀중한 생명을 바쳐 조국의 재부를 지켜냈다.

이들의 영웅적이며 고귀한 정신세계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조국은 바로 이런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청춘들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

우리 청년들은 이들처럼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열렬한 애국자, 선군시대의 참된 청년전위가 되여야 한다.

2) 인사례절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서로 만나면 절을 하는것이 기본인사법으로 되여왔습니다. 이런 인사법은 설명절이나 특별히 례의를 표시할 때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를 하였으며 늙은이나 웃사람에게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습니다.》

김정일

청년들이 지녀야 할 사회주의도덕품성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인사례절이다.

인사례절은 사람들의 도덕품성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사람들의 호상관계에서 도덕적으로 제일먼저 표현되는것이 인사례절이다.

사회적집단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호상관계는 서로의 인사로 시작되고 인사로 끝난다.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반가운 마음, 애정 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실무적인 인사도 있을수 있으나 그것도 상대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인사례절이 밝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양이 있는 사람, 도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며 인사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덜된 사람이라고 욕을 한다.

사람의 고상함과 저렬함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인사성은 그 사람의 정신적바탕에서 우러나온다.

잘 여문 곡식일수록 고개를 깊이 숙인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고 아는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겸손하고 허심하다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늙은이를 존중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며 동무들과 아래사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인사례절이 표현된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사상감정의 표현이다.

정서감과 선량함, 뜨거운 인정을 지닌 사람에게서만 고상한 인사성이 나올수 있다.

인사례절은 계기와 장소, 시간과 환경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표현된다.

우리들은 흔히 사람은 때와 환경에 맞게 처신할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하군 하는데 인사도 환경에 맞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어

○속 담○

례 절

- 례절은 매력도 있고 리득도 있다.
- 례절은 우정의 표현이다.
- 례의범절에는 힘을 넣을만한 가치가 있다.
- 남에게 호의를 보여주는 행동에 참된 례절이 있다.
- 친한 사이에도 례의가 있어야 한다.
- 인사성은 제2의 천품이다.
- 일방적인 례절은 오래가지 못한다.

색하게 된다.

한기관에서 자주 만나는 웃사람에게 머리만을 가볍게 숙이는것도 인사의 표시로 되며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난 사람에게 인사말과 함께 절을 하는것도 인사의 표시로 된다.

영화관이나 극장, 회의장과 같은 장소에서 일정하게 알고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머리를 숙이거나 가벼운 웃음을 보내는것도, 손을 반쯤 들어 흔드는것도 인사로 된다.

일군들이 지나갈 때 잠간 걸음을 멈추는것도, 그 어떤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꽃을 준비하는것도 인사의 표시로 된다.

이러한 모든 인사는 웃는 얼굴로 반가운 기색과 정중한 태도를 안받침해 하여야 한다.

그리고보면 인사례절은 경의와 존경, 동지적사랑과 같은 높은 사상정신상태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례절은 집단과 사회를 건전하고 화목하게 만들며 동지적단결을 더욱 강화하게 한다.

민족최대의 명절날의 인사

4월 15일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이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은 해마다 4월이 오면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적시군 한다.

우리 인민뿐만아니라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4월이 오면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며 다함없는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해도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모하는 인류의 뜨거운 마음은 끝없이 굽이쳐흐를것이다.

뜻깊은 태양절이 오면 우리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가 꽃송이를 정중히 드리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으면 청년들은 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뜨거운 마음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불타는 결의를 심장깊이 새기며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날 학교와 직장들에서는 향기그윽한 꽃송이들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화앞에 드리고 인사를 올린 다음 결의를 다져야 한다.

우리 인민은 해마다 2월 16일이 오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설레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이날이 오면 21세기의 태양, 인류자주위

업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고있다.

이날을 맞이하여 백두산밀영고향집, 어은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을 찾아가는 끝없는 꽃물결은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강성부흥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천만군민의 충실성의 표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광명성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명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아름답게 꽃피워주시였으며 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고립, 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천하제일명장, 정치의 원로이시다.

이 땅의 천만군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이날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장군님의 영생을 축원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뜻깊은 이날을 맞을 때면 거리와 마을, 직장들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바라는 기념축판들을 걸어놓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맞으며 거리의 곳곳을 꽃으로 장식하고 다양한 행사로 이날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경모의 표시이다.

청년들은 해마다 광명성절이 오면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가 꽃송이를 드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영원히 빛내여갈 심장의 맹세를 다져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뜻깊은 이날에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화앞에 꽃송이를 정중히 드리고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날에 친척, 친우, 동무들사이에 서로 만나면 《민족최대의 명절을 축하합니다.》, 《광명성절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절을 쇤 다음에는 《명절을 잘 쇠셨습니까?》 등으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설명절날의 인사

설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즐겁게 맞이하는 명절이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설명절을 맞으며 가족, 친척, 친우, 이웃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여 설인사를 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있었다.

우리 인민이 설날을 참으로 기쁜 명절로 맞이하고 즐겁게 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강도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이 땅에 인민의 참다운 세상을 세워주신 그때부터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설명절의 아침이 오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정성껏 피운 꽃을 들고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담긴 인사를 올리군 한다.

설명절을 맞으며 청년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을 찾아가 삼가 인사를 드리고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셔갈 심장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화앞에 꽃송이를 정중히 드리고 영생을 바라며 인사를 드려야 한다.

새해에 가족,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에게 설인사를 하는것은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풍습의 하나이다.

설날을 맞으면 청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을 비롯하여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

《할아버지, 설인사를 드립니다. 이해에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설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설인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은 자리앞에서는 절과 함께 하여야 한다.

《할아버지,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어린이들의 인사말은 이와 같이 될수록 짧고 간단하게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청년들은 동네의 한인민반안의 나이많은분들에게 새해에 건강하고 행복할것을 축원하여 인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 또는 직장, 협동농장의 선생님, 일군들과 웃사람들에게 설인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설을 맞으며 친우들과 동지들에게도 그들의 건강과 새해에 혁명과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는 인사례절을 지켜야 한다.

설날의 인사말들은 일반적으로 《설명절을 축하합니다.》, 《새

○유모아○

설인사

90살이 넘은 늙은이에게 설날아침 여러 조카들이 와서 세배를 하였다.

먼저 들어온 조카가 그에게 설인사를 올렸다.

《존귀하신 삼촌께서 백년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늙은이는 대뜸 성을 내며 《내 나이 90이 넘었으니 백년을 살라면 이제 몇년만 더 살란 소리인데 어찌 그런 고약한 말을 하느냐. 엉?》 하고는 그 조카를 내쫒았다.

밖에서 이 말을 들은 다른 조카가 들어와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였다.

《존귀하신 삼촌께서 백년을 사시고 또 백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늙은이는 흐뭇해하며 말하였다.

《음, 그게 참말로 장수를 바라는 인사말이로다.》

해에도 건강하십시오.》, 《설인사를 드립니다.》 등으로 할수 있다.

설날의 인사말은 또한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고무와 결의를 담아 할수도 있다.

《향별동무, 설명절을 축하하오. 올해공동사설관철에서도 동무네가 다시한번 본때를 보여주길 바라오.》

《범산동무, 설명절을 축하해요. 올해에도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길 바라요.》

《은경동무, 올해에도 선군천리마를 타고 계속 혁신하기를 바랍니다.》

설인사를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와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할수도 있다.

《은철동무, 올해에도 학과학습에서의 성과와 온 가정의 행복을 바랍니다.》

청년들은 설을 보낸 후 웃사람들이나 동지들, 이웃사람들을 만나서도 인사례절을 지켜야 한다.

《설을 잘 쇠였습니까?》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새해엔 나도 본때있게 일해보겠습니다.》

축하해줄 때의 인사

축하의 인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인사와는 달리 기쁘고 경사로운 계기들에 한다.

축하의 인사는 축하하게 되는 계기와 환경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동지들과 축하의 인사를 나눌수 있다.

입당을 축하하는 인사는 상대편의 입당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과 그가 앞으로 일을 더 잘해나가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기

대를 담아 하여야 한다.

《입당을 축하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실한 당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한 성원이 되였다지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일을 더 잘해나갑시다.》

《모두가 순임동무의 입당소식을 기다렸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와 같은 인사말은 동지들사이에 입당을 축하하여 하는 인사이다.

축하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조선로동당과 동지들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고 한생을 당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과 조직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겠습니다.》 등으로 웃사람과 일군들 그리고 동지들에게 그들의 방조에 의해 당원으로 자라게 되였다는 인사와 함께 위대한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결의를 담은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표창을 받은 동지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강좌장선생님, 축하합니다. 강좌장선생님에 대한 표창은 우리 집단의 자랑입니다.》

《영남동무, 축하해요. 영남동무가 받은 표창은 우리 작업반의 기쁨입니다.》

《아버님, 공훈기자칭호를 받은것을 축하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들은 아버님의 모범을 따라 일을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우리 집단의 경사입니다.》

이러한 축하의 인사를 받았을 때에는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이 은정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어 송구합니다. 이 표창은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를 바라는 집단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표창받은 사실을 방송보도를 통하여 들었거나 인편에 전해들

었을 때에도 축하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표창받은 사람을 찾아가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로 축하의 마음을 전할수 있다.

동지들이 국가계획을 초과수행하였거나 인민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창안을 하여 생산장성에 도움을 주고 조직과 집단의 평가를 받았을 때에도 축하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명철동무, 새 기계창안에서 성공했다지. 정말 수고가 많았소.》

《은철동무, 축하해요. 이번에 동무가 이룩한 성과는 사람이 배심을 가지고 달라붙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보여주었어요.》

《분조장동지, 축하합니다. 가을걷이전투에서도 1등의 영예를 지니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하의 인사에는 자기가 거둔 성과가 조직과 집단의 방조속에 이루어졌다는것과 앞으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더 잘해나가겠다는 답례인사가 따라야 한다.

만날 때와 헤여질 때의 인사

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웃사람과 동무들사이에 그리고 아래사람들을 만나고 헤여질 때 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지켜오는 인사례절은 내용이 다양하고 그 표현에서도 여러가지 형식들이 있다.

만나는 사람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념려하며 사업과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축하나 위로, 량해를 구하는 등의 여러 인사례절에 대해서도 청년들은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말은 흔히 때와 장소, 만나는 대상과 동기에 따라 다르게 할수 있다.

아침 일찌기 만나는 사람에게는 《밤새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아침이 지나면 그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한다.

나이많은 사람,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과장동지,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상대방의 존수나 직위를 붙여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 매일아침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일찍 나오셨습니다.》, 《벌써 나오셨군요.》,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고 인사례절을 차릴수도 있다.

이러한 인사를 받은 사람은 의례히 《나도 방금 나왔습니다.》 혹은 《안녕하십니까?》라고 답례인사를 해야 한다.

먼저 출근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였으면 《미안합니다. 일찍 나온다는것이 그만 늦어졌습니다.》 하고 송구스러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나도 금방 일을 시작하는중입니다.》 하고 뒤에 나온 사람이 송구해하지 않도록 답례인사를 해야 한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지들과는 《참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등의 인사말로 반가움을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이많은분들을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삼촌,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영철이는 잘 있습니까?》 또는 《직장장동지, 그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하는것이 더 다정하면서도 정중성있는 인사말로 될수 있다.

○ **유모아** ○

참 이상해

아버지: 《넌 왜 례절이라는걸 전혀 모르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냐?》
아 들: 《참 이상해요. 우리 선생님도 꼭 그렇게 말하군 해요.
〈집에서 너의 아버지가 례절을 가르쳐주지 않던?〉 하구 말이예요.》

또한 먼길을 다녀온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먼길을 다녀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먼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등으로 인사례절을 차려야 한다.

이러한 인사를 받으면 《념려해준 덕분에 별로 불편이 없이 다녀왔습니다.》 등으로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간혹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의 인사를 받을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 생각이 미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빤히 쳐다보거나 그대로 지나치게 되면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는것은 말할것없고 자신도 례절없는 사람으로 되고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먼저 인사를 나눈 다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여야 한다.

《저 미안하지만, 미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낯은 익으나 누구시던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미안함을 표시해야 한다.

청년들은 사람들과 헤여질 때에도 인사차림을 잘하여야 한다.

사무실이나 직장, 일정한 장소에서 만났다가 특별히 다시 만날 일이 없이 헤여질 때에는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

많은 수고와 신세를 지고 헤여질 때에는 《페를 많이 끼쳐 안됐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의에 대해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말로 인사를 차려야 한다.

길가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서로 만났다 헤여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편히 다녀가십시오.》, 《어두운데 조심히 가십시오.》 등으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사말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먼저 자리를 뜰 때에도 쓰게 된다.

《그럼 전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제기되여 먼저 일어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으로 인사례절을 지켜야 한다.

소개인사

청년들은 일상적인 생활과정에 상대편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안면있는 사람들에게 상대편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할 때와 자주 맞다들리게 된다.

소개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서로가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로부터 본의아니게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지낼수 있다.

때문에 청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개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소개인사는 웃사람에게 아래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함께 일하는 동무와 어떤 기관에 일을 보러 가서 기술과장을 만났을 때의 인사례절을 보기로 하자.

이때에는 기술과장에게 자기의 동무를 먼저 소개하고 그다음 동무에게 기술과장을 소개하여야 한다.

《기술과장동지, 조립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성진동무입니다.》

《성진동무, 기술과장동지요.》

이러한 소개인사를 받은 기술과장과 동무는 《반갑습니다. 제가 기술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배워주십시오.》 등으로 인사를 나눌수 있다.

청년들은 또한 어떤 용무로 찾아온 사람에게 자기와 주위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례절있게 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웃사람에게 아래사람을 먼저 소개하는 원칙에서 례절을 지켜야 한다.

《교수선생님, 나와 함께 일하는 연구사 박진석동무입니다.》

그다음 동무에게 찾아온 웃사람을 소개해야 한다.

《사회과학원 교수, 박사 오영진선생이시요.》

남녀에 대한 소개례절에서도 웃사람에게 아래사람을 먼저 소개하는것은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풍습이다.

유럽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녀자에게 소개하는 례절방식을 취하고있다.

그것은 녀자를 존중시하는 그들의 풍습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남녀소개에서 웃사람과 아래사람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소개례절을 지킨다.

동무들사이에 소개할 때에도 때와 환경에 따라 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로 만난 동무를 먼저 소개하는것이 옳다.

례를 들어 자기 동무와 이야기를 하고있을 때 다른 동무가 찾아왔다면 새로 만난 동무를 먼저 소개하여야 한다.

특별한 용무가 없이 안면을 익히기 위해 소개를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옥심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를 할수 있다.

이러한 인사를 받은 사람은 《알게 되여 기쁩니다. 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등의 말로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자기 가족을 소개할 때에도 역시 웃사람에게 아래사람을 먼저 소개하여야 한다.

○**속 담**○

벗

- 결함없는 친구를 찾는자는 언제나 외토리이다.
- 곤난할 때의 벗이 진실한 벗이다.
- 나쁜 벗을 가지는것보다 혼자 있는것이 낫다.
- 나의 원쑤의 원쑤는 나의 벗.
- 벗은 모든 보물보다 더 귀중하다.
- 벗은 불행속에서 파악된다.
- 벗을 위해서는 불과 물속을 뚫고나가라.
- 벗을 남몰래 책망하고 사람들앞에서는 칭찬하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동무를 만났다면 《아버지, 저와 함께 일하는 은성동무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은성동무, 나의 아버지요.》라고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기 동생과 함께 있을 때 직장장을 만났으면 《직장장동지, 내 동생 영철입니다. 올해 중학교 졸업반입니다.》라고 알려줄수 있다.

청년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와 이러저러한 계기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였을 때에도 자기 소개를 먼저 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양건설건재종합대학에서 교원으로 일하는 정남혁입니다.》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는 박철입니다.》

《서로 알고 지냅시다. 나는 식료공장에서 일하는 오윤석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나는 김순경이라고 합니다.》

…

공식석상에서 군중을 상대로 하여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동무들에게 한가지 소식을 알리자고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전도유망한 리명수동무가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였습니다.》 등으로 허두를 뗀 다음 그의 간단한 경력이나 지난 시기에 거둔 성과 등을 이야기할수 있다.

이런 경우에 소개를 받은 편에서는 군중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표시하거나 《제가 리명수입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라고 간단히 말할수 있다.

청년들은 누구의 소개를 받거나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리고 자신이 남을 소개할 때 억양과 몸가짐, 발언에서 건전하고 고상한 품성이 충분히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첫인상이 대체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며 처음 만날 때 받은 인상이 서로의 교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아니라 그후에도 오래동안 기억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때문이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어떤 사람을 만나 볼 일은 다 보았지만 그와의 첫 상면에서 받은 불쾌한 인상으로 하여 그 사람에 대해 고마움과 불만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된다.

이런 경우 문제의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례의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인간의 됨됨에서 점수를 잃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교제에서 자기의 도덕준수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부모들의 생일날 인사

옛날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에서는 부모들의 생일날에는 아무리 어려운 살림이라 하여도 자식들이 그저 지나지 않았다.

특히 10돐을 단위로 하여 돌아오는 생일날에는 부모의 무병장수를 바라면서 이날을 즐겁게 보내군 하였다.

생일을 맞는 부모들이 이날을 기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식들과 친척, 가까운 사람들이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성의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부모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해드릴수도 있고 옷이나 돋보기 같은 생활필수품을 준비해드릴수도 있다.

자식들은 하루일을 마치고 저녁에 부모들을 찾아가 무병장수의 술잔을 부어드리며 기쁘게 해줄수 있다. 부모의 뜻깊은 생일을 맞으며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앉으면 가족중에서 맏이가 생일을 맞는 부모에게 잔을 드리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건강하여 사회주의조국과 선군혁명위업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할것을 바라는 내용의 인사를 할수 있다.

《아버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앞으로도 건강하시여 우리 자식들을 이끌어주길 바랍

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자기들의 사업성과도 알려주고 앞으로의 결의도 잘 다져 그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이날에 귀여운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귀여운 손자, 손녀들은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생일을 맞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릴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자기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생각하며 생일도 잊고 직장에 나가 투신하는데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높은 정신세계를 따라배워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생일을 쇠지 않겠다고 한다하여 자식들이 아무 말없이 그냥 지나치면 그들을 섭섭하게 할수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뜻깊은 생일을 맞는 부모들에게 《아버님, 아버님이 앓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어머님처럼 당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후에 가족들의 성의가 어린 소박한 상을 차리고 인사

○속 담○

존 경

- 남을 존경해야 자기도 존경받는다.
- 남에게 고개를 숙이는 때에는 깊숙이 숙여라.
- 남에 대한 존경이자 자기 존경이다.
- 남의 부모를 존경하면 남들도 너의 부모를 존경한다.
- 로인을 존경해야 자기도 늙어서 존경을 받게 된다.

를 다시 올릴수 있다.

이때 반드시 류의할것은 생일을 맞게 되는 로인들에게 《생일 ○○돐을 축하합니다.》라고 돐을 밝혀 인사하는것은 큰 실례로 된다는것을 명심하는것이다.

로인들에게 생일 ○○돐을 축하한다고 하는것은 늙는것을 축하한다는 뜻으로 리해되기때문에 진심으로 축하하는 인사말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저 존경을 담아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면 될것이다.

병문안때의 인사

병상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인사를 하는것은 인간생활에서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륜리도덕의 한 고리이다.

병으로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육체적고통과 함께 정신적괴로움을 겪는다.

이러한 환자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 병문안을 하는것은 환자에게 큰 힘으로 되며 병과의 싸움을 더 잘할수 있게 한다.

병치료는 결코 약으로만 하는것이 아니다.

병치료에서는 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람의 정신력 다시말하여 환자가 반드시 병을 고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가족, 친척들이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동무들이 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면 찾아가서 따뜻이 위로해주고 그가 건강회복에 신심을 가지도록 고무적인 말을 해주어야 한다.

병문안을 갈 때에는 환자가 좋아하는 특색있는 음식이나 반드시 필요한 생활필수품, 꽃 등을 가지고갈수 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은 환자의 기분을 청신하게 해주며 병을 이겨낼수 있는 신심을 돋구어준다.

처음으로 병문안을 가는 사람의 인사말은 일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 《좀 낫습니까?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쁘다나니 오늘에야 왔습니다.》 등으로 할수 있다.

여러번 병문안을 가는 경우에는 《먼저 왔을 때보다 퍽 좋아졌습니다. 소식을 들으면 동무들이 기뻐하겠습니다.》 등으로 환자에게 신심을 주어야 한다.

병문안을 가서는 될수록 말을 적게 하며 환자에게 정신적충격을 줄수 있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병문안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쁘신 때에 나까지 페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등의 답례인사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병문안인사는 환자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오래 끌어 피곤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헤여질 때에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몸조리를 잘하여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말과 필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때든지 알려달라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

병원의 입원실에서 병문안을 할 때에는 입원실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병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인사차림을 하여야 하며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을 잘하여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사람에게도 인사를 하여야 한다.

병석에 누워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터로 다시 나온것은 자신은 물론 모두의 기쁨으로 된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한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찾아가 도와드리지 못하여 안됐습니다.》 등의 방법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에게 인사를 할수 있다.

인사를 받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동지들의 성의에 의해 이렇게 빨리 나았습니다.》 등으로 답례인사를 할수 있다.

조선절

인사례절에는 인사말과 함께 절이 있다.

절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헤여질 때 인사말과 함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례절로서 선채로 웃몸을 굽혀 하는 인사이다.

조상전래로 내려오는 좋은 인사법인 조선절은 우리 인민의 기본인사법이다.

조선절에는 큰절과 작은절이 있다.

이런 인사법은 설명절이나 특별히 례의를 표시할 때 많이 써왔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를 하였으며 늙은이나 웃사람에게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였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절에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다정다감한 우리 인민의 마음씨가 담겨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할 때 조선식으로 하지 않고 악수를 하는것은 유럽식이다. 악수를 하는것은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다. 악수를 하면 손을 통하여 여러가지 병이 전염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지만 조선절이 제일 좋다.

조선절을 옳게 살려나가자면 우선 그 례의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조선절은 웃사람과 아래사람, 때와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길가에서나 어떤 곳에서 하루에 여러번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 사람과 같이 걸어오면서 그중 한사람이 례절을 표시하려 할 때에는 눈인사로 례절을 표시할수 있다.

그러나 례의방법을 잘 모르면 본의아니게 실수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할수 있다.

실례로 웃사람에게 고개만 끄덕여 인사를 표시하면 건방져보이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허리를 지나치게 굽혀 인사차림을 하면 어색해질수 있다.

그런가 하면 웃사람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절을 하면 마치도 상대방의 속심을 살피려는 기도가 있는것처럼 보여 인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

이처럼 례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고 하면 오히려 당사자의 인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오해를 살수 있다.

조선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성있게 하는것이다.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성있게 하는 절은 몸을 곧바로 세우고 팔을 자연스럽게 드리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깊이 굽혔다펴는 방법으로 하는것이다.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성있게 올리는 절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만나뵙거나 그이께서 차를 타고가실 때에 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갔을 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한다.

조선절에서 다음으로 알아야 할것은 존경의 뜻을 담아 하는 절이다.

이 절은 웃사람들에게 하는 절이다.

이 절은 허리를 굽혀 하되 보통의 절로서 어느 정도 빨리 할수 있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간부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하여 특별히 존경의 뜻을 담아서 해야 할 대상에게는 머리를 좀더 숙여서 할수 있으며 자주 만나거나 허물없이 지내는 웃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좀 얕게 숙이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러므로 존경의 뜻을 담아서 하는 절은 대상과 때와 장소에 따라 좀더 깊이 혹은 얕게 허리를 굽혀 할수 있다.

조선절에서 다음으로 알아야 할것은 동무들사이에 하는 절이다.

청년들은 자기 직장, 학교를 비롯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는 동무들사이에 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동무들사이에 하는 절은 머리를 숙여 하되 친근감이 있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면서도 가볍게 할수 있다.

청년들은 대중앞에서 하는 절도 바로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정치활동과 대중활동에 널리 참가하므로 대중앞에서 하는 례절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여서는 안된다.

청년들은 극장의 무대나 건설장에서 그리고 휴식의 한때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대중앞에서 선전도 하고 노래도 부를수 있다.

이러한 때 대중앞에 나서는 청년들은 존경의 뜻이 나타나도록 머리를 숙여 절을 잘하여야 한다.

대중앞에서 하는 절은 지내 가볍게 하면 불손해보이거나 경망스러워보이며 또 지내 깊숙이 하면 어색한감을 자아낼수 있다.

군중은 선생이다. 그러므로 대중앞에서 하는 절은 자기 선생에게 절을 하는 마음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머리를 숙일 때에는 어느 정도 천천히 숙이는 방향에서 하고 머리를 들 때에는 빨리 드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청년들은 회의장이나 모임장소, 사람들의 래왕이 복잡한 길이나 뻐스, 전차안 등 말과 절로 인사례절을 표시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환경에 맞게 인사차림을 하여야 한다.

인사를 차려야 할 사람이 멀리 있거나 사람들속에 있다고 하여 못본척 하면서 인사례절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이 없는 청년으로 인식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는 환경에 맞게 웃음을 띤 얼굴로 머리만 가볍게 숙이며 눈인사를 보내야 한다.

이러한 눈인사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할수 없기때문에 손을 얼굴높이로 들어 더 친근한감을 표시할수 있으며 가까운 사이이거나 나이가 아래인 대상에게는 눈인사는 하지 않고 웃음을 담은 얼굴에 손만 얼굴높이로 들어 인사표시를 할수 있다.

그런데 손만 들어 하는 인사는 어디까지나 인사의 표시이지 절

은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은 이밖에도 여러 경우에 지켜야 할 례절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례를 들어 방안에서 나이많은 부모들에게 하는 례의표시는 앉아있을 때에는 앉아서 례의를 표시하는것이 더 깍듯한 인사차림으로 될수 있다.

이때 젊은 남자인 경우에는 앉은 자세에서 인사말과 함께 머리를 가볍게 숙이는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처녀들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할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절은 옛날 조선절에는 없었으나 오늘 양복을 입으면서 대체로 큰절을 하지 않기때문에 앉아서 하는 절로서는 어울린다고 할수 있다.

녀자들이 조선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오른쪽무릎을 세우고 두손을 량옆으로 벌려 바닥을 짚으며 머리를 가볍게 숙이는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청년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 인민의 우수한 례법인 조선절이 제일이라는것을 잘 알고 조선절을 시대적미감에 맞게 살려나가야 한다.

○속 담○

고향, 조국

- 고향땅은 연기도 달다.
- 고향에선 토스레옷도 포근하고 낯선 고장에선 비단옷도 차다.
- 조국없는 사람은 정원없는 꾀꼴새.
- 타향산천에서는 봄도 서리차다.
- 꾀꼴새는 꽃밭을 좋아하고 사람은 조국을 사랑한다.
- 아무곳에서 살건 조국위해 일하라.
- 아름다운 남의 고을 제 고향마을보다 못하다.

3) 언어례절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높여야 합니다.
문화성있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사람의 인품도 높아지고 사회에 고상한 도덕적기풍을 세워나갈수 있습니다.》

김정일

언어례절은 사람들이 말하는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다.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취미와 기호, 생활방식과 문화수준은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며 또 교제도 이루어진다.

언어가 없으면 사회생활 그자체가 이루어질수 없으며 사회적관계도 형성될수 없다.

언어는 사람들의 준비정도와 감정상태에 의하여 그 문화적수준이 좌우되게 되며 사회성원들호상간에 이루어지는 뉴대의 성격도 특징지어준다. 다시말하여 말하는 사람의 언어표현방식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나타나게 되며 이로부터 사람들사이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특히 말에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는것만큼 언어문제는 종당에 가서 인간에 대한 관점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만일 청년들이 사업상 혹은 생활상필요에 따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비문화적인 언어를 망탕 쓰거나 몸가짐을 바로하지 못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불만을 자아내고 배척을 받게 된다면 자기의 인격을 떨어뜨리는것은 물론이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에도,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사업에도 커다란 부정적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 언어례절은 단순히 례의도덕규범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혁명의 성쇠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알수 있다.

언어례절은 하나하나의 단어로부터 시작하여 이야기의 전체속에서 표현될뿐만아니라 높고 낮으며 느리고 빠른 어조와 말씨에서도 나타난다.

언어례절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행동에서도 표현되며 말하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표현된다.

청년들은 이와 같은 언어례절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

언어례절과 인격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은 곧 사람이고 사람의 사상감정과 취미는 모두 말을 통하여 표현되며 그의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도 말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시였다.

말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말을 통하여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 취미, 직업과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 등 그 사람에 대한 전체를 알수 있기때문이다.

사람의 사상감정과 기호, 취미,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 등은 눈으로 볼수도, 손으로 만져볼수도 없는것이다.

그것은 오직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물론 행동이나 옷차림, 생활환경 등을 통해서도 사람을 일정하게 파악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가장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나

타낼수 있는것은 말이라고 할수 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자기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기도 잃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지와 환희, 열정을 북돋아주기도 하고 괴로움과 분노,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

고대그리스의 유명한 우화작가였던 이소프는 원래 노예출신이였다고 한다.

하루는 노예주가 그의 총명함을 시험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것을 가져오라고 하자 그는 짐승의 혀를 가져다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것이 이 혀,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그 말이 그럴사하게 여겨진 주인이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번에는 제일 더럽고 악한것을 가져오라고 하자 이소프는 다시 그 혀를 내놓았다고 한다.

자기를 놀리는것으로 여기고 노발대발 성을 내는 노예주에게 이소프는 이 세상 모든 악과 불행은 이 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에서뿐아니라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하게 인정하였으며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들도 많이 전해지고있다.

말을 잘한다고 할 때에는 두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하나는 말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하고 리론적으로 째였는가 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공감을 주고 좋은 인상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것이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여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한것으로 하여 인생에서 쓰라린 좌절과 곡절을 겪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입은 행복과 불행의 대문이라고도 하였다.

말하는 방식과 태도 즉 언어례절에서 말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소박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고 성의있게 하는것과 건방지고 틀스럽게, 허세와 위엄을 돋구며 하는것은 듣는 사람에게 상반되는 느낌을 준다.

소박하고 례절있는 말은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누구나 다 높은 인격을 가지고 떳떳하게, 긍지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은 인격에 따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하고 업수임과 천시를 당하기도 하기때문이다.

인격은 사람이 갖추고있는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풍모와 자질과 능력이다.

인격은 계급적성격을 띤다. 착취사회에서 인격은 주로 권력이나 재부, 명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권력가나 재산가, 명예를 지닌 사람들보다 훌륭한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을 더 공경하고 숭배하고 사랑하여왔다.

그것은 권력이나 재산, 명예로 인격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압감, 굴복감, 자격지심 등을 느끼게 하지만 훌륭한 도덕품성을 지닌 사람들은 평등감, 친근감, 사랑과 존경심을

○일 화○

절반짜리인사

어느날 연회에 초대된 프랑스의 작가 모빠쌍은 좀 늦어서야 수수한 옷차림새로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는 모인 사람들에게 늦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한 다음 자기자리에 앉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한 신사에게도 각별히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모빠쌍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 신사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머리를 약간 끄덕인 후로는 더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불러일으키기때문이다.

언어례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자기의 인격을 평가받게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자기 인격도 떨어지고 존경도 얻을수 없다.

지성이 높고 도덕품성이 바른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가 난처해하거나 불쾌해하는 말은 될수록 피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례절로써 자기의 인격도 고상하게 돋군다.

그러나 지성이 낮고 도덕적으로 수양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말을 꺼리낌없이 함으로써 그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줄뿐아니라 자기의 인격이 그만큼 낮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인다.

결국 언어례절은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귀중히 여기고 인간과 생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지니였을 때 잘 지킬수 있는것이다.

언어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높은 인격의 발현이다.

진실한 언어례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기쁨과 즐거움, 정신적앙양을 일으킨다.

그런데 한참후에 살펴보니 주인이 그를 여간만 공대하지 않는것이였다. 그래서 신사는 옆에 앉은 손님에게 슬며시 물었다.

《늦게 들어온 저 사람이 누구요?》

《이름난 작가 모빠쌍입니다.》

옆의 손님이 자못 의아해하며 알려주었다.

신사는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모빠쌍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며 각근한 친절을 보였다.

모빠쌍은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아까 당신한테서 이미 절반짜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젠 나머지 절반인사만 받으면 되는데 당신은 공연히 이렇게 많은 인사를 하시는군요.》 하고 야유조로 말하였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버릇없이 말한다고 하여 같이 야비하고 불손한 투로 말한다면 그 사람 역시 언어례절이 있다고 말할수 없다.

흔히 옥신각신 다툼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갈고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군 한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의견이 맞지 않고 기분이 상한다고 하여 말싸움하는것은 결국 두사람의 수준이 꼭같다는것이며 또 두사람의 체면도 깎이는 일이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는 평온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언어례절을 지키기가 헐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손하게 말할 때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겸손하고 친절하게 말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정황과 조건에서도 언어례절을 지켜 겸손하고 소박하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한다는것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지성도와 도덕적수양에 의해 다듬어지고 세련되고 완성되여가는 높은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다.

언어례절은 결코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인격만을 위한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다.

이때 화제에 오른 대상이 곁에 없다고 하여 마음놓고 야비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례를 들어 한직장에서 일하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령감》이라고 한다든가 《그 로친네》라고 함부로 말하면 말을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사람됨됨을 《덜돼먹은 청년》이라고 나쁘게 평가를 내릴수 있다. 그러므로 화제에 오른 대상을 존중해서 말하는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사이에 지켜야 할 언어례절의 하나로 된다.

만약 화제에 오른 대상을 상스럽게 제멋대로 평가한다면 자기 인격은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되며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상대방이 한심하고 수준없는 존재로 보인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것은 또한 서로 돕

고 이끌면서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강성국가의 문어구에 다달은 오늘에 와서까지 초보적인 언어례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동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언어례절은 집단의 단결과 화목을 이룩하기 위한 언어례절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례의도덕이다.

청년들은 언어례절을 지키는것이 자기 한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풍모를 더욱 활짝 꽃피우고 강성국가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는것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언어례절을 잘 지키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말은 유순하고 조리있게

사람이 말을 하는것은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생활에서는 간혹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 경우와 맞다들리게 된다.

이런 경우 듣는 사람은 괜히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다는 짜증과 말을 조리있게 할줄 모르는 대방에 대한 언짢은 감정, 불쾌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 청년들이 말을 조리있게 할줄 몰라 자기의 의사표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만 주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실례가 어디 있겠는가.

말은 요점을 잡아서 쉬운 말로 알기 쉽게 설명을 섞어가며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말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돌리면서 존경어를 써가며 해야 한다. 상대방을 멸시하고 반말과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것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경계해야 할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말은 언제나 유순하고 조용하게 하여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것도 상대방을 깔보는 도덕없는 행동으로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깊이가 있으면서 조리있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자기의 말소리가 낮기때문에 남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것이다.

말소리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만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뻐스칸, 회의장, 길거리 등에서 큰소리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두고 도덕적수양이 낮은 사람이라고 비평할것이다.

말할 때에는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웃음을 도간도간 담으며 친절한 말씨로 하여야 한다.

벽에 기대거나 걸상에 비스듬히 앉아 걸상에 발을 올려놓는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말하는것은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대중앞에서 말할 때에는 말을 지내 빨리하여 무슨 소리인지 가려듣지 못하게 하거나 지내 느리게 하여 답답한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된다. 또한 말을 할 때 쓸데없는 군소리들은 피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 저》, 《그래서》 등의 군소리는 사람들에게 인차 싫증과 권태감을 느끼게 한다. 《씨》, 《엉?》, 《제기랄》같은 군소리들은 듣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므로 삼가해야 한다.

대중앞에서 말을 하면서 《에ㅡ》 하는 군소리를 섞거나 코그루를 막으면서 헛기침을 하는 《에헴》같은 소리들은 극히 례의가 없는 표현이다.

또한 말할 때 상대방을 보지 않고 여기저기 눈길을 돌리면서 말하거나 남의 말을 중도에서 막고 끼여들면서 제 말만 하는것도 례의가 없는 표현이다.

남이 말할 때에는 그의 말을 인내성있게 끝까지 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것이 례의가 있는 행동이다.

녀성들은 녀성답게 언제나 푸근하고 유순한 태도로 말하여야 하며 부드럽고도 세심한 말씨를 써야 한다.

비록 얼굴이 곱고 옷차림이 멋이 있는 녀성이라 할지라도 말씨가 곱지 못하고 문화성이 없는 저속한 말을 기분이 내키는대로 망탕 쓴다면 그런 녀자는 대중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없다.

겉은 비록 수수하여도 얼굴에 시종일관 미소를 띄우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씨로 이야기를 하는 녀성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며 녀성들속에서도 《본받을만한 녀성》으로, 거울로 될수 있다.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녀성이라면 마땅히 녀성고유의 특성에 맞게 말 한마디를 해도 고상하고 부드럽게, 문화적이면서도 례절바르게, 말하자면 녀성특유의 향기가 나게 하여야 한다. 대화를 나누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말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에 대한 자랑을 섞어놓지 않는것이다. 그리고 녀성들에게는 나이나 결혼여부에 대해 묻지 말아야 하며 월생활비나 리용하는 소지품의 값같은것도 알아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이 아파하는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것은 고약한 처신으로 되며

○속 담○

말

• 길을 잘못들면 되돌아올수 있어도 말을 잘못하면 일을 망칠수 있다.
• 남에 대한 말 제가 하면 저도 남에게서 말 듣는다.
• 너에게 남의 말 하는자 남에게 네 말도 한다.
• 독기있는 말만큼 독성이 강한것은 없다.
• 롱담도 진담된다.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
• 좋은 말 한마디는 가물에 비와 같다.

상대방이 내놓고 말하기 싫어하는 병에 대해서 캐묻는것도 례의에 어긋나는것으로 된다.

특히 상대방의 건강을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배가 나왔다든가 몸이 몹시 축갔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건강을 함부로 평가하는것은 인사가 아니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뜻이 포함되여있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몇몇 사람들끼리 귀속말로 소곤거리거나 히히닥닥거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며 오해를 사게 할수 있다.

특히 남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남을 비평하는 버릇이 붙으면 잠시도 남의 말을 하지 않으면 못견딜 정도로까지 되며 나중에는 동지적단합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과오까지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는 될수록 적게 말하는것이 좋다.

말할 때에 지나치게 격하게 말하거나 침방울을 튕기며 말하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말을 너무 빨리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게 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말이 상대방의 관심사로 되는가 혹은 실례가 되지 않는가를 보아가며 례절있게 하여야 한다.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바른 자세를 취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듣는것은 언어례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례절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옳은 자세를 가지고 그의 말을 귀담아듣는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성의의 표시로 되기때문이다. 상대방은 열성적으로 말하는데 무관심한듯 시들해있거나 하품을 하

며 기지개를 하는 현상, 시끄럽다는듯이 시계를 들여다보거나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는것과 같은 행동은 불손한 태도이다.

특히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비우고 오래동안 나타나지 않는것과 같은 행동은 매우 례의가 없는 행동으로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방을 비울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납득할수 있도록 량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며 인차 다시 돌아와야 한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뒤짐을 지고 왔다갔다하거나 상대방에게 등을 돌려대고 창밖을 내다보는것과 같은 태도도 례의가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싫다는 표시로 되며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

상대방의 말을 중둥무이하고 제 말만 말이라고 하면서 열을 내여 말하는것도 례의가 없는 불손한 행동이다.

상대방의 말은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듣는것이 옳바른 태도이다.

비록 이야기의 내용에 사실과 맞지 않는것이 있다든가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것이 있다 해도 참을성있게 들어야 한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니, 그건 그런게아니라…》, 《가만,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됐어, 됐어, 더 말하지 말

○일 화○

《싱거운 말을 쓰지 말게》

헤밍웨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하였다.

어느날 점심식사때 있은 일이다.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까? 싱거우면 소금을 가져오랍니까?》

함께 식사하던 제자가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려 하였다.

그러자 헤밍웨이는 제자를 눌러앉히며 그를 타일렀다.

《〈소금을 가져올가요?〉, 이 한마디면 될걸 뭐 그리 번잡스

라구.》 등으로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리는것은 커다란 실례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열성스레 이야기하는것을 듣지 않고 딴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는것도 례의가 없는 행동이다.

만일 상대방의 말을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는것이 있을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이제 말씀한 그 내용이 잘 리해되지 않는군요. 다시한번 이야기해줄수 없습니까?》라고 겸손하게 설명을 청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회의장소나 모임장소같은데서도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일군이나 강사가 연단에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옆의 사람과 수군거리며 말을 주고받거나 눈을 지그시 감고 끄덕끄덕 조는 현상, 책을 보는 현상 등은 례의도덕이 없는 표현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성의있게 듣는다는 뜻으로 적당한 례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발언내용에 따라 《예,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등으로 례의를 차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례의도 정도에 맞게 하여야지 지나치면 어색하게 보일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수 있다.

만일 웃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주

레 말하나, 나머지는 군더더기네.

그러니까 자네 작품에는 〈선생님, 싱겁지 않습니까? 싱거우면〉따위의 말이 많네. 정말 싱거운 말들이지. 싱거운 말을 쓰지 말게.

한번 자네 한쪽발을 들고 서서 글을 써보게. 그러면 짤막한 말만 고를걸세. 아버지들이 자식을 훈계하거나 선생들이 학생을 추궁할 때 일궈세워놓고 말하는것이 무엇때문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리치를 알수 있을거네.》

간결성, 생동성, 함축성—이것은 헤밍웨이의 소설문장의 특징이였다.

의깊게 들어야 하며 필요한 내용은 적어놓는것이 좋다.

자기의 생각과 차이가 있다고 하여 말끝마다 대답질을 하는것과 같은 행동은 말을 듣는 사람의 례의가 아니다.

몹쓸 사람에게는 욕도 하지 않고 상관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말을 하는 상대방의 이러한 심정을 알고 참을성있게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며 때에 따라 례의있게 대답하기도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듣는것이 사람들과의 교제, 언어례절에서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례의도덕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묻는 말과 대답

생활에서는 종종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어떤 물음에 대답을 주어야 할 경우에 맞다들리게 된다.

이런 경우에 례의도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도덕적수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말을 물을 때와 대답을 줄 때의 례의를 잘 알고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당의 청년전위들로 준비해야 한다.

묻는 말에서 례절을 지키자면 우선 인사말부터 옳게 하여야 한다.

례를 들어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려 할 때에는 반드시 《미안합니다.》, 《초면에 안됐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한 후 《한가지 물어봅시다. …》,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말하려는 문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말해야 한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한가지 물어봅시다.》라고 말할수 있다.

아무런 인사례절도 없이 직방 물어보는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행

동으로 된다.

《말 좀 묻자요.》, 《하나 물어보자요.》 이러한 말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이러한 례의없는 물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한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며 불쾌해할수 있다.

묻는 말에서는 물음을 나타내는 존경토를 잘 쓰는것이 중요하다.

《합니까?》, 《해요?》, 《하세요?》 등은 존경토가 들어간 물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대상의 나이와 인간관계에 따라 이런 말을 알맞게 골라쓸수 있다.

보통 《합니까?》와 같은 존경의 뜻이 담긴 물음말을 쓰는것이 좋지만 대상이 어린 경우에는 《해요?》와 같은 말을 쓸수 있다.

자기의 자세를 낮추면서 묻는 말을 겸손하게 하는것도 친근감을 주는 례법이다.

례를 들어 어느 한 유원지를 찾아가면서 길을 물을 때 《유원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것보다 《유원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실수 없습니까?》라고 묻는것이 더 겸허하고 친절한 례의로 된다.

묻는 말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하여 바쁜 사람의 시간을 앗아내며 하는 말이므로 조금이라도 례의에 어긋나지 않게 정중성있게 하여야 한다.

《평양대극장이 어디 있소?》, 《지하철도역이 어디요?》, 《하는가?》 등으로 건방지게 물어보는것은 례의도덕에 어긋나는것이다.

이러한 물음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불쾌하게 하며 응당 들을수 있는 좋은 대답도 씨원하게 듣지 못하게 할수 있다.

청년들은 묻는 말과 함께 대답하는 례절도 잘 지켜야 한다.

사람들이 말을 물을 때에는 장소에 따라 누구에게 물으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하는것이므로 묻는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알고 청년들은 어떤 사람의 물음을 받으면 먼

저 그의 인사부터 친절하게 받고 성의있게 대답하여야 한다.

례를 들어 상대방이 《미안하지만 말 좀 물읍시다.》라고 한다면 《아 괜찮습니다. 어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다음 그가 묻는 내용에 대하여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묻는 말의 례의를 표시하는데도 시끄러워하는 눈길로 빤히 쳐다보거나 《뭐요?》, 《뭔데?》 등과 같은 말을 퉁명스럽게 던지는것은 도덕이 없는 표현으로 된다.

《습니다.》, 《하세요.》 등과 같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쓰는것은 묻는 말에 대한 성의의 표시로 된다.

청년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물음을 받게 되면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금성청년출판사로 가시자면 저기 보이는 뻐스정류소에서 1번 뻐스를 타셔야 합니다. 한 정류소를 가서 내리시면 인민문화궁전 앞도로가 되는데 왼쪽 지하건늠길을 지나 곧추 200m쯤 나가 왼쪽길로 꺾어들면 됩니다.》와 같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쓰면서 리해할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주어야 한다.

자기가 사는 고장이 아닌 곳에서 물음을 받고 옳바른 대답을 줄수 없을 경우에도 가능한껏 그가 목적지를 쉽게 찾을수 있게 방도를 대주어야 한다.

《미안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기 식료상점뒤에 동사무

○유모아○

《아마 그랬을거예요》

아버지: 《나는 너처럼 무얼 자꾸 물어보는 애를 처음 본다. 정말 성화를 먹이는구나. … 나는 어릴 때 누구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었어.》

아　들: 《아마 그랬을거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처럼 묻기를 좋아하셨다면야 지금처럼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였겠나요?》

소가 있으니 거기 가서 물어보시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안됐습니다만 저도 잘 모릅니다. 저앞에 보이는 기관접수실에 가서 물어보시면 혹시 알수도 있을것입니다.》와 같이 가능한껏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어 친절을 표시해야 한다.

상점판매원, 병원간호원 등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군중의 백번물음에 백번 친절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문의 청년들은 언제나 자기가 인민의 봉사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묻는 사람이 알아들을수 있게 친절하게 대답해주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손님들이 여러번 묻는데도 들은둥마는둥 하면서 제 볼일만 본다거나 신경질적으로 까다롭게 대답하여서는 안된다.

봉사부문의 청년들은 대상의 나이와 준비정도에 맞게 상대방이 정확히 리해하도록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하여야 한다.

어려운 한자말이나 지방사투리를 쓰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표준어인 평양말로 대답하여야 한다.

봉사성원들은 사람을 가리며 례의를 지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옷차림이 미끈하고 《간부》티가 나는 사람에게는 례의를 깍듯이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말을 하는것과 같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봉사부문에 찾아온 손님에게 시킴토를 쓰지 말아야 한다.

《손님, 100원짜리를 내라요.》

《2층 3호실로 가라요.》

이러한 말투는 례의가 대단히 부족한것으로서 본인의 수양정도가 낮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 될뿐이다.

《손님, 100원짜리가 있으면 내주셔야 하겠습니다. (내주기 바랍니다.)》

《2층 3호실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가주십시오.)》

이렇게 듣기에도 정이 가는 친절한 말투로 손님을 대하여야 한다.

봉사성원들은 묻는 대상에는 관계없이 오직 친절한 존경어만 쓰는것이 자기들이 지켜야 할 언어례절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친절한 언어례절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에 의해서만 나올수 있다.

봉사부문의 청년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긍지와 자부를 안고 언제나 언어례절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평범하게 주고받게 되는 물음과 대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 여실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물음과 대답을 언어례절의 요구에 맞게 활용해나감으로써 대중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꽃이 되여야 한다.

부름말과 높임말

사람들사이에 표시되는 례절은 서로 접촉하여 상대방을 부르는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사람을 부르는 언어례절은 가장 초보적인 례의라고 할수 있다.

부르는 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자기의 체면도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대방을 높이여 다정하게 부르는 말은 친절의 표시로, 존경의 뜻으로 된다.

청년들은 나이와 직위, 성별이 다른 각이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부르는 말을 대상의 특성에 맞게 바로 써야 한다.

늙은이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의 나이정도를 보아가며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머니》, 《할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를수 있다.

청년들이 늙은이들을 《령감》으로 부르는것은 례의가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로인님》이라는 부름말도 존경의 뜻으로 쓰이고있다. 늙은이들을 부를 때에는 환경에 맞게 존경을 담아 불러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늙은이들을 찾을 때 그들의 앞에 가서 부르는것과 같은 일은 삼가하

여야 한다.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이름을 붙여 불러야 할 경우에는 늙은이의 이름을 찍어 부를것이 아니라 그 집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철이네 할머님》하고 부를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의 직무를 붙여 《관리원아버님》 등으로 불러야 한다.

청년들은 웃사람에 대한 부름말례법을 옳게 지켜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웃사람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는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응당한 도리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는 직위밑에 동지를 붙여 부를수 있다.

《지배인동지》, 《부장동지》…

청년들이 상급의 직무를 부르지 않고 이름뒤에 《동지》를 붙여 부르는것은 실례로 된다.

가령 례를 들어 청년들이 공장의 지배인을 《지배인동지》라고 부르지 않고 《방현이동지》라고 부른다면 례의가 없는 행동으로 된다.

○**유모아**○

《두상》의 의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두상〉이라는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이녀석,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진 할아버지가 없으면 자꾸 〈두상〉, 〈두상〉하지 않나요.》

《오, 그건 아버지가 좋은 의미로 말하는거야. 알겠어? 〈머리두〉, 〈웃상〉, 얼마나 좋니?》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할아버지를 〈두상〉이라고 부를래요.》

《뭐라구??》

청년들은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웃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례법을 지키며 불러야 한다.

출판, 교육, 과학, 보건 등의 부문에서 지식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기자선생님》, 《연구사선생님》 등으로 불러야 한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한 부름말로 친절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만 《손님》 혹은 《동지》 등으로 부를수 있다.

직업의 뚜렷한 표식이 있을 경우에는 《군인동지》, 《운전사동지》라고 대상에 따라 부를수 있다.

친구지간이나 아래사람 등 높이지 않아도 될 대상에 한해서는 이름을 부를수 있다. 그러나 친구지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름은 단 둘이 있을 경우에나 허용되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례절있는 행동으로 되지 않는다. 친한 사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름을 막 부른다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수 있다. 아래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례의를 지켜야 한다.

나이상이나 직급상으로 아래사람이라고 하여 《여!》, 《야!》 등으로 부른다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것은 물론 자기의 품격도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아래사람들을 부를 때에도 정을 담아 《학생동무》 또는 《학생》, 《영철이》, 《은경이》라고 불러야 한다.

청년들은 대중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때에도 부름말을 옳게 써야 한다.

청년들은 특히 녀성들에 대한 부름말을 잘 써야 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 녀성들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무뒤에 《동지》를 붙여 《경옥동지》, 《은성동지》 등으로 불러야 하며 나이가 비슷한 녀성들에 대하여서는 이름뒤에 《동무》를 붙여 불러야 한다.

이름을 모르는 웃사람인 경우에는 《손님》, 《동지》, 《아주머니》 등으로 부를수 있으며 나이가 비슷한 경우에는 《녀성동무》, 《동무》 등으로 부를수 있다.

자기보다 나이나 직급이 아래인 녀성들을 부를 때에도 《여!》, 《야!》라고 몰상식하게 부를것이 아니라 이름밑에 《동무》를 붙여 부르거나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의 애인이나 처를 남에게 소개할 때에도 례절있게 불러야 한다.

만일 사랑하는 사이이면 친우들에게 《나의 애인이요.》라고 소개할수 있으며 웃사람에게는 《나의 가까운 동무입니다.》라고 점잖게 소개할수 있다. 그리고 결혼한 사이라면 웃사람들에게 《나의 처입니다.》, 《우리 집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할수 있다.

자기의 안해를 높여 부르는것보다 낮추어 소개하는것이 상대방을 존중할뿐아니라 자기의 품격도 높이는 겸허한 인사법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자기의 처를 소개하면서 《나의 부인입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것이다.

녀자들이 남자들을 부를 때 아는 사이이면 대상에 따라 이름에 《동무》, 《동지》를 붙여 부를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이면 《손님》, 《동지》 등으로 부를수 있다.

녀성들은 자기의 애인이나 남편을 남에게 소개할 때에 례의범절에 맞게 하여야 한다. 결혼을 하기 전이라면 《저의 동무입니다.》라고 할수 있으며 결혼을 한 후라면 《저의 남편입니다.》, 《우리 세대주입니다.》라고 할수 있다.

청년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부를 때의 언어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장소에서 자기 직장이나 기관의 웃사람을 만났다고 하여 큰소리로 《직장장동지!》 하고 불러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웃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까이에 다가가서 조용히 불러 친절감과 존경심을 표시해야 한다.

청년들은 웃사람들과 교제할 때 언제나 높임말을 써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면 일상적으로 웃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러저러한 사업교제를 하게 되며 가정에 들어와서도 부모를 비롯한 웃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높이는 말을 옳게 구현하여 언어례절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여야 한다.

높이는 말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반말투를 없애고 《습니다.(ㅂ니다.)》의 말을 쓰는것이다.

웃사람에게 《습니다.(ㅂ니다.)》의 말을 쓰지 않고 《…구》, 《…만》과 같은 반말투를 말끝에 달아 쓰는것은 례의가 없는 표시로 된다. 실례로 웃사람들에게 사업보고를 하거나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할 때 《오늘은 그 기관에서 일을 보지 않더구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구.》와 같이 말끝에 《만》과 《구》를 달아 쓰게 되면 웃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웃사람들과 말할 때에는 반드시 《습니다.(ㅂ니다.)》를 말끝에 달아 례법을 표시해야 한다.

《과장동지, 말은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높이는 말에서 《시》를 적중히 쓰는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웃사람들과의 교제에서 그들을 부를 때 《시》를 붙이는것은 존경의 뜻으로, 례의로 된다.

그러므로 웃사람들과 교제할 때에는 그들을 대하는 말에 《시》자를 적중히 써서 존경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자를 적중히 사용하지 못하여 웃사람들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말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직장장동지, 불렀다기에 오셨습니다.》

《미안하시지만 길을 좀 물읍시다.》

우의 례들은 옳바른 례법이 아니며 웃사람들앞에서 본의아니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씀으로써 결국은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였다. 《시》의 사용에서 알아야 할 점은 《시》가 고상한 언어와 결합될 때에만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는것이다.

《과장동지는 참 엉뚱하십니다.》

《아버님, 밥을 먹으십시오.》

우의 경우 《시》자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웃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것은 적중한 어휘를 골라쓰지 못한데 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시》자를 적중히 붙여쓰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

다. 《먹다》, 《자다》, 《있다(없다)》, 《주다》, 《말하다》 등의 단어에 《시》자를 붙였지만 《먹으시다》, 《자시다》, 《있으시다(없으시다)》, 《주시다》, 《말하시다》와 같은 몰상식한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청년들은 《자시다(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안계시다)》, 《드리다(받으시다)》, 《말씀하시다》와 같이 적중한 표현을 골라씀으로써 례의를 표시해야 한다.

청년들은 《요》계렬의 존경토를 써서 웃사람에게 존경의 뜻을 나타낼수 있다.

그러나 존경토 《요》는 어디까지나 보다 친근하고 허물없이 대할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 즉 형이나 오빠, 아저씨, 자기와 나이차이가 지내 많지 않으면서도 웃사람인 경우에만 쓸수 있다.

《부장동지, 전날에 부탁한 CD판을 출판물보급소 초급청년동맹비서동지가 어제 가져왔군요.》

이러한 말은 출판물보급소 초급청년동맹비서의 됨됨을 보지 않고도 생동하게 보여줄뿐아니라 또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부드럽고 미더운 풍모까지 다 담고있다.

만일 《부장동지, CD판을 출판물보급소 초급청년동맹비서동지가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면 CD판을 가져온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응당 가져와야 할것을 가져온것으로 느껴질수 있으므로 어지간한 인정미를 가지고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성의를 느끼지 못하고 보통일로 여길수 있다.

《부원동지, 사무실에 가세요?》

이것은 늘 함께 일하는 자기 부원에게 하는 처녀의 물음이다. 이와 같이 《요》자 계렬의 토는 일반적으로 녀성들이 자기와 가까운 웃사람에게 쓰는데서도 적중한 존경토라고 볼수 있다.

이처럼 《요》계렬의 토는 다정하고 부드러우며 친근한 느낌을 준다.

《모시다》, 《뵙다》 등의 말들은 상대편을 높이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뜻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말들을 잘 살려써야 한다.

《벌써부터 선생님을 집에 한번 모시려고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찾아뵙는다는것이 오늘에야 이렇게 왔습니다.》

청년들은 웃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시키는 말을 해야 할 때에도 례의있는 말을 옳게 써야 한다. 만약 웃사람에게 시키는 말법을 그대로 쓴다면 그것은 큰 실례로 된다.

《처장동지, 회의에 안갑니까? 시간이 다되였는데 빨리 가십시오.》

이러한 말은 명령조가 강하게 느껴지기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담았지만 상대방에게 불쾌한감을 불러일으킨다.

《처장동지, 회의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혹은 《처장동지, 회의시간이 되였어요. 모두들 기다립니다.》

이러한 말법은 시킴조가 아니라 틔워주는것으로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서두르도록 추동한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언짢은감이 아니라 고마움과 친근감이 느껴지게 한다.

《부장동지, 저에게도 그 책이 한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동지,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러한 말법은 비록 말하는 사람이 아래사람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소망을 풀어주어 기쁘게 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다.

이러한 말과는 달리 《하나 달라요.》, 《나도 보자요.》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러저러한 구실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밖에 없어.》, 《나도 빌려보는건데 인차 돌려줘야 하오.》라고 대답하기가 일쑤이다.

물론 우에서 말한 품위있는 말법은 어렵게 대하여야 할 웃사람에게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허물이 없고 가깝게 지내는 웃사람에게는 자기의 요구를 곧바로 말하여도 실례로 되지 않는다.

높이는 말가운데는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쓰이는 말도 있다.

우리 말에는 높이는 뜻을 가진 토 《께서》, 《께》, 《몸소》, 《친히》가 있다.

《께서》는 《가, 이》를 최대의 정중성을 담아 존경의 뜻을 나

타낼 때 쓰인다.

그러므로 《께서》는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표시할 때에만 쓰이고 그밖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다.

《께》는 《에게》를 쓸 자리에 써서 존경의 뜻을 나타낸다.

《선생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쓰면 《선생님에게》보다 존경의 감정이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

청년들은 웃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들에게 실례로 될수 있는 말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간섭, 건달, 고자질, 노죽, 병신, 도섭, 망발, 망동, 발광, 겁쟁이, 고집불통, 넉두리, 거만, 경거망동, 고집쟁이, 군소리, 귀머거리, 너털웃음…

— 너절하다, 능갈맞다, 도섭스럽다, 독살스럽다, 무도하다, 미련하다, 우둔하다, 부실하다, 사납다…

— 미쳐날뛰다, 바라다니다, 물어뜯다, 난탕치다…

— 낯짝, 뚱딴지같이, 왕청같이, 거들먹, 진탕망탕, 피둥피둥…

○일 화○

학생의 대답

어느 한 교원이 새 학급을 맡아 학급학생명단을 작성하면서 실무적으로 《집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하고 한 학생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아버지하구 엄마가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것이였다. 순간 교원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언어례절이 돌이켜지는지라 다시 《집에 어느분들이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학생은 아무 생각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하고 고쳐대답하였다.

나어린 그 학생은 아직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지만 교원의 물음에 반사적으로 대답한것이였다.

이러한 단어들은 경멸의 대상이 이야기에 오를 때 혹은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표현들에만 쓰인다.

《과장동지는 언제 봐야 고집불통이군요.》

이러한 말은 과장에 대한 모욕으로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웃사람에게 높이는 말과 함께 쓰지 말아야 할 말도 잘 알고 언어례절에서 언제나 고상한 풍모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화례절

영철이는 며칠전에 알게 된 옥실이를 만나보고싶어 그가 다니는 양복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받습니다.》

이러한 녀성의 상냥한 목소리가 나오기에 영철이는 다행으로 여기며 성급하게 말을 하였다.

《여보시오, 거기 신원양복점이 맞소? 옥실동무를 좀 바꿔주시오.》

《…》

어인 일인지 잠시 말이 없던 상대편에서는 이렇게 물어왔다.

《미안하지만 거긴 어디예요? 그리고 동무는 누구이고…》

《여기 말이요? 여긴 기계공장인데 빨리 그 동무를 바꿔주시오.》

잠시 말이 없던 상대방은 쌀쌀한 목소리로 《그 동문 외출하고 없어요.》라고 말하고는 송수화기를 덜컥 놓아버렸다.

《??…》

옥실이가 외출하고 없다면 어디에 무슨 용무로 갔으며 언제 돌아오는지?

영철은 안타까왔으나 어찌할수가 없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서고말았다.

영철이는 전화를 하면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은 무엇을 잃었겠는가.

한마디로 영철이는 전화례절의 초보적인 례법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상대방은 자기의 고상한 풍모를 잃었다.

영철이가 전화례절을 제대로 지킬줄 아는 청년이라면 마땅히 전화로 찾아 응답하는 상대방에게 《안녕하십니까? 신원동에서 사는 영철이라고 합니다. 신원양복점이 옳습니까?》라고 인사와 함께 자기 소개를 정확히 하고 목적을 말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절차도 없이 영철은 무턱대고 자기 요구만 하였으니 상대방의 기분을 잡쳐놓았고 시원한 대답도, 옳바른 대접도 받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영철이가 인사도, 자기 소개도 없이 명령식으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여 불쾌하게 여기면서 거꾸로 되묻고는 옥실이의 행처에 대해서도 바로 알려주지 않은것이다.

일이 제대로 되자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예, 신원양복점이 옳습니다. 옥실동무는 잠간 일이 있어 나갔는데 오후 2시경에 다시 전화를 걸면 만날수 있을것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대답을 주어야 했을것이다.

우리는 우의 현상을 통하여 전화례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도덕품성이 저렬한 사람으로 인식되여 응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며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알수 있다.

전화는 서로 상대편을 보지 못하고 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인사와 자기 소개를 하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

청년들이 웃사람이나 동무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반말을 하거나 명령식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심히 불쾌해할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웃사람에게 볼 일이 있을 때에는 전화를 거는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말하는것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화를 걸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미안스러운 감정을 표시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야기하여야 한다.

《찾아가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전화로 찾아서 미안합니다. …》

이렇게 미안스러운 심정을 표시한 다음 될수록 간결하게 함축해

서 말하여야 한다.

대화과정에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보면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주며 말하는 상대방의 말허리를 꺾지 말고 끝까지 다 들은 다음 자기의 견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전화가 끝나면 반드시 인사차림을 하고 상대방이 송수화기를 놓은 다음에 자기도 놓아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때 웃사람은 《수고하시오.》라고 답례할수 있지만 아래사람은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써서는 안된다.

이러한 인사말은 웃사람에 대한 실례로 된다.

수고하라는것은 고생을 하며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사말을 웃사람에게 하는것은 실례로 된다.

또한 웃사람과의 전화가 끝났다고 하여 인사차림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송수화기를 놓는것도 대단한 실례로 된다.

생활에서는 흔히 전화가 잘못 걸려오거나 회의중에 올 때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여 송수화기를 덜컥하고 놓거나 《아니야요.》, 《잘못 걸었수다.》, 《회의중이야요.》라고 몰상식하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전화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건설사업소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가능한껏 찾는 전화번호를 알수 있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것이 좋다.

만약 회의를 하는 경우라면 《지금 회의중인데 1시간쯤 지나서 다시 해주십시오.》라고 사연을 리해할수 있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찾는 대상이 자기 방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그 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다시 하게 하거나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바꾸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그에게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 동무 다른 사무실에 있수다. 거기로 전화를 하시오.》

《이 방에는 그 동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놓는것은 실례로 된다.

청년들이 전화례절에서 지켜야 할 점은 다음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수 있는 범위에서 낮은 소리로 조용조용히 말하는것이다.

큰소리로 전화를 하여 사무실안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지장을 주는것은 실례되는 행동이다.

자기가 찾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례의를 잘 지켜야 한다.

《좀전에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바쁘신데 자꾸 전화를 하여 안됐습니다. 혹시 혁준동무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여 이렇게 다시 전화합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청년들은 미안해하는 상대방의 심정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보다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아, 괜찮습니다. 우리도 혁준동무를 기다리고있는데 좀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30분쯤 있다가 다시 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밤이나 휴식일에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례의를 바로지켜야 한다.

《일명입니다. 밤에 전화를 해서 안됐습니다. …》

《은하입니다. 휴식을 하는데 방해를 주는것이 아닙니까?》

이런 전화를 받은 청년들은 상대방의 옹색한 마음을 풀어주는 립장에서 말을 해야 한다.

《아, 괜찮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휴식이 딴게 휴식이겠소. 이렇게 동무들사이에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것도 즐거운 휴식이지. …》

이렇게 하지 않고 밤에 피곤스럽게 전화를 한다고 하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왜 그러오?》, 《좀 다른 시간에 할수는 없소?》 하고 짜증어린 어조로 말하는것은 실례로 된다.

《오늘 낮에 생각지 않게 은성이라는 그 총각과 전화를 했는데 어찌나 례절이 밝은지 난 그를 보지 않고도 합격도장을 눌러놨다.

얼마나 례절바르게 전화를 하는지 그의 사람됨됨이 한눈에 안겨

오더구나.》
이것은 자기 딸이 사랑하는 총각 즉 사위감과 전화를 하고난 후 어머니가 기뻐서 딸에게 한 말이다.
청년들은 일상 사업과 생활에서 자주 쓰게 되는 전화를 하면서 례절을 잘 지키는것이 결코 소홀히 대할수 없는 문제라는것을 명심하고 언제 어떤 경우에도 례의를 깍듯이 지켜나가야 한다.

사랑과 그늘

청춘의 사랑은 아름답고 깨끗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청춘의 사랑을 꽃이나 흰눈에 자주 비유하는것이리라.
그런 사랑을 가슴에 지니고 행복에 부푼 가슴을 달래이지 못하고있던 신옥은 이즈음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그것은 날이 감에 따라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는 애인의 언행에서 이러저러한 부족점들이 조금조금씩 나타나고있기때문이였다.
한공장에서 일하는 신옥의 애인인 영범이는 소문난 혁신자로서 탁구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는 팔방미인으로 알려진 청년이였다.
늘씬한 키에 환하게 생긴 영범이와 함께 걷는 신옥이를 볼 때면 공장처녀들은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면서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내군 하였다.
신옥은 자기가 행복했고 또 그런 총각을 사랑하는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던 신옥의 가슴에 영범에 대한 실망이 싹터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사랑에 그늘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망은 신옥이가 영범을 만날 때마다 점차 거만하게 이야기하는 태도를 감수한 때부터였다.

신옥이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몸가짐도 바로하고 깍듯이 례법을 차리던 영범이는 차차 둘사이가 가까와지자 조심스러워하던 몸가짐에서 벗어나 반말투로 대했다.

신옥은 처음에는 둘사이가 허물없는 사이이니 그럴수 있지 않을가 하고 리해해보려고도 했지만 뭇사람들앞에서 여러번 망신을 당하고보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어느날 신옥은 실험실에서 일을 하다말고 영범에 대한 생각으로 속을 태우다가 그만 정신이 번쩍 들어 손목시계를 띠여보았다.

그리고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서둘러 분석일지에 기록한 후 작업장을 정리하고는 바삐 옷을 갈아입었다.

영범이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되였던것이다.

신옥은 자기를 초조하게 기다릴 영범의 모습을 그려보며 발걸음을 재게 놀려 약속한 장소로 갔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늦게 떠나다보니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였다.

《늦어서 미안해요, 오래 기다렸어요?》

신옥은 사죄절반, 인사절반을 담아 송구스러운 마음을 펼쳐놓았다.

《10분이나 늦었구만. 자, 빨리 가자. 이러다간 늦어지겠어.》

○속 담○

약속, 진실성

- 약속은 신중히 하고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라.
- 약속은 의무.
-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을 말하라.
- 한마디의 진실이 백마디의 거짓보다 낫다.
- 한평생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에겐 행운이 차례진다.
- 현명한 사람은 확신성이 없는것을 장담하지 않는다.
- 진실성이 있는 례절은 애정에 가깝다.

언짢은 기색을 지으며 퉁명스럽게 하는 영범의 말은 또 반말투였다.

그러자 신옥은 영범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기대가 또다시 사라져가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자기가 업수임을 당했다는 섭섭한 마음때문만이 아니였다.

말은 곧 그 사람이라는 말도 있듯이 영범이 별생각없이 던지는 그 반말투에 수양되지 못한 그의 도덕품성이 비껴있었기때문이였다.

흔히 총각들은 처녀들에게, 처녀들은 총각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자기의 옷차림과 언어, 행동에 각별한 신경을 돌린다.

특히 상대방과의 대화를 잘하고 처신을 잘하여 인기를 끌어보려고 무척 마음쓴다.

그래서 총각들은 처녀를 만나러 갈 때면 거울앞에서 몇번이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구두가 닳도록 닦는것이며 처녀들은 또 그들대로 화려한 옷을 이옷저옷 바꾸어 입어보고 머리단장과 얼굴화장에 적지 않은 공수를 바치는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품을 들인 옷차림과 머리단장, 얼굴화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여 그 청년이나 처녀의 인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례절없는 행동을 할 때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처녀들에게 반말을 하는 청년들을 보게 된다.

처녀들을 찾을 때이면 《여, 야》라고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반말을 쓰는 청년들은 알아야 한다.

처녀들에게 몰상식한 반말투를 쓰는것이 상대방에게 친근한감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의 인격을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린다는것을.

처녀들 역시 남자들이 반말투로 이야기한다고 하여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반말투로 말하는것은 례절이 없고 수양이 부족한 표현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말투로 이야기를 하는것은 사랑하는 청년들사이의 감정에 그늘을 던지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결혼후 가정생활에로 연장되여 후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아버지의 본을 따서 자기들도 반말을 하게 되며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남자애들은 녀자들에게는 반말을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녀자애들에게 거침없이 반말을 하게 된다.

결국 자식들은 청년으로 자라난 다음에도 처녀들에게 반말질을 하게 되며 결국은 언어례절을 지킬줄 모르는 몰상식한 인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것이다.

신옥이가 영범의 반말투에 대해 그처럼 실망하며 불안해하는것도 결국은 그것이 언어례절 하나뿐아니라 그의 품성에 관한 문제로까지 되기때문이다.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제 생각에 옴해 영범이와 함께 걸음을 옮기는 신옥의 앞에 뻐스정류소가 나타났다.

신옥이는 영범이와 함께 줄을 선 사람들의 뒤에 가 섰다.

퇴근시간이라 뻐스정류소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뻐스 한대를 지나보내고 다음차가 왔을 때였다.

영범이는 더 기다리지 못하겠는지 신옥을 바라보며 나직한 소리로 말하였다.

《앞으로 나가자구.》

그리고는 인차 줄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는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가 뻐스문앞에 다가섰다.

그러자 줄을 서있던 사람들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앞으로 나가는거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그게 뭐요?》

《정말 량심이 없는 사람이구만.》

사람들의 비난을 못들은척 하며 뻐스를 타려던 영범은 신옥이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은것을 알고는 목을 길게 뽑아 뒤쪽을 바라보며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의 곱지 않은 눈길은 영범에게서 신옥에게로 옮겨갔다.

《저 하나만 끼여타는것도 성차지 않아 처녀까지 나오라고 저러누만.》

《저런 청년과 함께 다니는 처녀도 알만 하지. 참 꼴불견이구만.》

《인물이 훤한 처녀가 어떻게 저런 청년을 다 따라다니나.》

《빛좋은 개살구라고, 아마 속은 텅텅 비였을거우다.》

《옳으이.》

신옥을 기다리던 영범이가 떠나기 시작하는 뻐스에 한발을 올려딛고 매달려가자 비난의 목소리는 한층더 높아졌다.

《저러다 신수가 훤한 처녀를 시집도 가보기 전에 과부로 만들겠수다.》

《내 말이 그 말이우다. 저 매달려가는 꼴을 좀 보오. 정말 눈뜨고 못보겠구만.》

신옥은 너무도 창피스러워 더이상 그자리에 서있을수가 없었다.

어떻게 뻐스정류소를 떠났고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신옥은 고개를 떨구고 종종걸음을 쳤다.

그의 귀전에서는 뻐스줄에서 사람들이 퍼붓던 비난의 목소리가 그냥 울리였다.

신옥은 분하고 서러웠다. 그래 무엇이 부족해 영범이와 자기가 사람들의 멸시에 찬 눈총을 받으며 조소의 대상이 되여야 한단 말인가.

이윽하여 호실에 들어선 신옥은 더이상 자신을 지탱할수가 없어 침대에 쓰러지고말았다.

호실동무들이 모두 영화구경을 가고 없는것이 천만다행이였다.

신옥은 울적한 기분속에 좀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처녀들에게는 반말을 밥먹듯 하고 뻐스타는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와 인민을 위해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물론 영범이가 로력혁신자인것만은 사실이고 여러가지 재간을 가지고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추지 못한 심장에서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이 가면 얼마를 가고 도덕품성이 결여된 잔재간이 빛을 내면 얼마나 내겠는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나타난 부족점이기에 그것은 더욱더 신옥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갑자기 문두드리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였다.

그 소리는 고요에 잠긴 호실을 들었다놓으며 계속 울렸다.

신옥은 나가보지 않고도 영범이가 찾아왔음을 직감하였다.

그전에 찾아왔을 때에도 문을 이렇게 요란히 두드려 신옥이와 그의 동무들을 깜짝 놀래운적이 있었던것이다.

(갈수록 험산이라고, 저 동무는 왜 저럴가.)

신옥은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영범이를 만나고싶은 생각도 없어서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벌컥 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금시 방안이 환해지는것이였다.

방안에서 응답이 없는데도 제 짐작으로 생각한 영범은 문을 열고 들어와 방안의 불을 켰던것이다.

《어마나, 어쩌면…》

신옥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차림을 다듬었다.

그리고는 불쾌한 기분을 억누르며 곱지 않은 눈길로 영범을 바라보았다.

그의 기분상태에는 아랑곳없이 원탁앞으로 다가와 가까이의 걸상에 앉은 영범은 오히려 신옥을 나무라는것이였다.

《사람이 왜 그리 마음이 약해. 뻐스줄에서 앞으로 나오라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은 오늘계획이 다 틀어지지 않았어?!》

《…》

신옥은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뻐스타는 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량심상가책은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제편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사회주의륜리도덕이 온 사회에 활짝 꽃피고있는 오

늘의 시대에 살고있는 인간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말이 없어? 나 혼자 뻐스를 탔다고 그러는거야?》
평시에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니 자기의 행동이 례의도덕에 어긋난다는것을 알수가 없는것이다.
《영범동무, 전 지금 머리가 아파 그러는데 혼자있게 해줄수 없어요?》
《머리가 아프다구? 열이 나나?…》
《열은 없는데…》
의혹과 근심이 실린 눈으로 신옥을 바라보던 영범은 걸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좋아, 그럼 안정을 잘하라구.》
신옥은 영범을 밖에까지 바래워주었다.
호실에 들어온 신옥은 오늘 있은 일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반말투, 약속한 시간을 어긴데 대해서는 너그럽게 리해하려고 하지 않고 뻐스줄에서의 행동은 응당한것으로 여기는 사람, 또 응답이 없는데도 녀성의 방으로 무작정 들어와 불을 켜는것은 너무도 례의가 없는 행동이 아닌가.
영범의 도덕생활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적당히 스쳐지나갈수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앞날의 운명에까지 가늠할수 없는 후과를 미칠수 있는 심중한 문제였다.
신옥은 골똘히 생각하였다.
당의 품속에서 나서자란 우리 청년들이라면 마땅히 고상한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니는데서도 사회의 선구자가 되여야 할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정한 동지적사랑은 비판속에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영범동무의 잘못을 일깨워주어 옳바른 도덕품성을 가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애인이기 전에 먼저 혁명동지가 되여 그가 아름다운 인간으로 한생을 빛내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신옥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열렬한 선군시대의 청년이니 자기가 나서면 성공할수 있을것 같았다.

한번 말해서 안되면 세번, 네번 꾸준히 노력하여 영범이를 마음도 뜻도 자기와 딱 맞는 돋보이는 청년으로 만들리라 결심다지는 신옥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롭게 태여난 례의범절이 밝은 청년, 영범의 단정하고 의젓한 모습이 어려왔다.

물론 그옆에는 행복에 겨워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총각에게 몸을 기대고있는 신옥이 자기의 모습도 있었다.

4) 상하간 례절

《웃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그들에게 자리를 권하는것과 같은것은 우리 인민들속에서 하나의 풍습처럼 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웃사람도 아래사람들을 례절있게 대하고 아래사람들의 인사에 반드시 답례를 하는 좋은 풍습이 있습니다.》

김정일

인간생활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사람들의 도덕관계도 여러가지로 맺어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처자사이에, 혈연적으로는 친척들사이에, 동네에서는 이웃들사이에, 사회적으로는 집단과 동지들사이에 도덕관계가 이루어진다.

생활적으로 놓고보면 부모, 형제, 처자가 제일 가까운 사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적관계도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적관계로 발전하여야 가장 가까운 관계로 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선군혁명위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들이다.

혁명동지들사이의 관계는 사업상 직급에 따르는 상하관계, 혁명사업경력에 따르는 선후배관계, 나이에 따르는 웃사람과 아래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혁명동지들의 상하관계는 혁명사업과정에 맺어지는 사업관계

로서 사회적집단에서 직급에 따라 나뉘여진다.

혁명동지들의 상하관계는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체계와 분담의 관계로 된다.

그런만큼 혁명동지들의 상하관계는 나이에 따르는 웃사람과 아래사람의 관계나 혈통에 따르는 가족, 친척들의 관계보다 더 혁명사업에 접근한 제일가는 동지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로 된다.

그러므로 상하간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상급에 대한 례절

상급은 보다 중요한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혁명동지이며 웃사람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상급을 존경하고 례절있게 대하여야 한다.

상급을 존경한다는것은 상급의 사업상권위를 보장하고 그의 지시를 성근하게 접수하며 철저히 집행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상급의 지시에 대하여 자기 리해타산을 먼저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급의 응당한 요구에 관료주의《모자》를 씌우며 접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집단의 동지적단결에 저애를 주게 된다.

설사 상급에게 부족점이 있고 그의 지시에 의견이 있다 해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성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집행한 다음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것이 상급을 대하는 태도이다.

직급상 아래사람은 상급을 사업측면에서만 존경할것이 아니라 평시 생활에서도 존중하고 따르며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

상급도 인간으로서 배고픈줄 알고 피곤을 알며 추운 때에 더운 곳에 있으면 좋은줄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보다먼저 동지, 아래사람들을 생각하며 좋은것은 동지들에게, 어려운 곳에는 자기 몸을 먼저 내댄다.

그러므로 아래사람들은 맛있는것이 생기면 상급에게 먼저 권

할줄 알며 뻐스나 기차 등을 같이 타고 다닐 때에는 자리를 양보할줄 알아야 하며 추운 방에서 같이 있을 때에는 따뜻한 자리를 상급에게 양보해야 한다.

아래사람들은 상급을 존경할뿐아니라 그 어떤 위험한 정황이 조성될 때에는 조직과 집단의 책임자, 일군들을 희생적으로 보호할줄 알아야 한다.

청년들은 생활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조직과 집단의 사업을 책임진 일군들을 자주 대하게 된다.

그때마다 청년들이 일군들을 존경하고 그들앞에서 례절있게 행동하는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중요한 도덕적요구이다.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례절은 그들의 직위가 높기때문만이 아니며 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일군들에 대한 존경과 례절바른 행동의 기초에는 청년들이 조직과 집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혁명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 상하간 단합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있다. 그렇기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조직과 집단을 책임진 일군들을 존경하고 례의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는것이다.

청년들은 상급에 대한 례절이 가지는 필요성과 본질을 잘 알고 일군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받들며 언제나 례절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어떤 용무로 상급을 만날 필요가 제기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찾아보아야 한다.

우선 상급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몸단장을 살펴보고 바로하여야 한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만나는 일군이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무실이라고 하여 몸차림을 아무렇게나 하고 상급앞에 나서는것은 실례되는 행동이다.

무더운 여름철이라고 하여 런닝샤쯔를 입고 상급의 방에 찾아가거나 실내화를 끌고가는 현상, 담배를 꼬나물고 상급의 방에 들어가는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급의 사무실앞에 가서는 문을 두드리고 안에서 응답이 있을 때

에만 들어가야 한다.

만일 상급의 방에 손님이 이미 와있거나 회의중일 때에는 미안함을 표시하고 나왔다가 그 손님이 나온 후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로 상급을 찾아갔을 경우에는 상급과 손님에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기본이야기를 하여야 한다.

《저, 말씀도중에 안됐습니다. …》

《말씀도중에 끼여들어 미안합니다. …》

상급의 방에 들어가면 먼저 인사를 하고 찾아온 용건을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급이 권하는 자리에 앉으며 기본이야기는 될수록 간명하게 요점을 잡아 하여야 한다.

상급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그를 바라보며 귀담아들어야 한다.

상급이 말을 하는데 여기저기에 시선을 주며 두리번거리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이는 현상, 다리를 떠는 현상, 하품을 하며 먼곳을 바라보는것과 같은 현상은 심히 도덕이 없는 행동으로 된다.

상급과 이야기를 나눌 때 급한 용무로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와 량해를 구하고 자기 일을 볼수도 있다.

이때에도 청년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며 그 제의를 묵살하여 상급과 손님을 딱하게 하고 자기의 풍모를 흐리게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전 일없습니다. 어서 먼저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상급도 손님도 청년의 행동을 고맙게 생각할것이며 도덕이 있는 청년이라고 마음속으로 평가하게 될것이다.

청년들은 사업과 생활과정에 일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수도 있고 충고나 비판을 받을수도 있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말도 있듯이 사람의 도덕적풍모는 상급의 충고나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을 어떤 자세에서 접수하는가 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고 볼수 있다.

좋은 날에는 누구나 웃으며 화목하게 휩쓸린다.

그러나 비판을 받으면 속이 좋지 않아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괴로와한다.

병을 고치려면 쓴약을 먹어야 하듯이 사람이 자기 결함을 고치고 보다 준비된 사람으로 발전하려면 아픈 매를 달게 받아들일줄 알아야 한다.

상급의 비판이 지나치다고 하여 그자리에서 반박하거나 사사건건 따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것은 심히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어머니가 잘못을 저지른 자식에게 아픈 매를 드는것은 자식을 더없이 사랑하기때문이며 그가 앞으로 더 잘되기를 바라서이다.

때문에 청년들은 상급의 비판을 허심하게, 성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상급의 말이 끝나면 청년들은 귀중한 충고를 준데 대한 고마

○유모아○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것

몇몇 로인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한담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것이 무엇이며 가장 가치없는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론의하였다.

한 로인이 친구에게 물었다.

《당신은 우리들중 제일 현명한 사람이니 어디 말해보오.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것이 무엇이요?》

《충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없는것은 무엇이요?》

친구는 이번에도 거침없이 말하였다.

《충고요.》

《이 늙은이가 롱담을 하는군.》

어이없어하는 로인에게 친구가 말하였다.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거요. 〈충고〉가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세상에서 그이상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되며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전혀 가치없는것으로 되고말거든.》

움이나 사업을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는것이 좋다.

《귀중한 충고를 주어 고맙습니다. 내 꼭 결함을 고치겠습니다.》

《직장장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사업에서 반드시 개진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상급의 비판가운데서 사실과 맞지 않는것이 있을 때에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은 다음 자기의 생각을 말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구구한 설명을 늘어놓아 많은 시간을 랑비하고 그가 실망감을 가지게 할것이 아니라 요점만 골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청년들은 상급과 사업토의를 할 때에는 귀담아들으며 중요한것은 적어두는것이 좋다.

볼 일이 끝나면 인사를 하고 곧 자리를 떠야 한다.

필요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태도에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시간을 끄는것은 상급에 대한 실례로 된다.

만약 상급의 사무실에 손님이 있다면 그에게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는것이 옳바른 례의도덕으로 된다.

상급이 자기 일터에 찾아왔을 때에는 일어서서 맞아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용무를 잘 보도록 례의를 지켜야 한다.

상급이 서서 묻는데 앉은자리에서 빤히 올려다보며 대답하는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그리고 상급이 자리에 앉으면 잠간 서있다가 상급의 권고를 받은 다음에야 자리에 앉아야 한다.

상급이 자기 일터에 왔을 때 본체만체 하면서 일만 계속하는것은 매우 불손한 행동으로 된다.

상급이 돌아갈 때에는 장소에 맞게 바래주어야 한다.

상급이 자리를 비운 방에 함부로 드나들거나 방안의 물건이나 서류 등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상급과 오래동안 떨어져 사업할 때에는 필요한 사업정형을 전해야 하며 돌아오면 그사이의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례의도덕은 상급에 대한 개인적인 도덕적관계만이 아

니라 혁명과업을 대하는 직급상 아래사람의 자세와 립장, 조직과 집단을 대하는 태도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래사람에 대한 례절

청년들에게는 젊은 나이의 특성으로 하여 직급상 아래사람으로 부를만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청년동맹원들은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을 교양하는 위치에 있는것만큼 그들을 아래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보호하며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또한 청년동맹일군들과 사회적책임을 지고있는 청년동맹원들도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아래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조직과 집단의 책임자, 지휘관에게는 자기가 책임지고 지휘하는 하급들을 교양하고 그들의 생활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조직적의무인 동시에 도덕적의무로 된다.

웃사람은 이러한 책임감을 간직하고 자기가 데리고있는 아래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직급상 아래사람들에 대한 상급의 사랑은 원칙적인 사랑이여야 한다.

높은 요구성이 없는 사랑은 참다운 사랑으로 될수 없다.

귀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도 있듯이 엄격한 요구성이 있어야 아래사람들을 참답게 키울수 있다.

청년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형님으로, 언니로 된다.

소년단원들과 어린이들은 청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고상한 도덕을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례의도덕을 지킴에 있어서 언제나 아래사람들과 어린이들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그들을 부를 때에는 반드시 《동무》를 붙여서 불러야 한다.

청년들은 직장이나 대학에 나와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아래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존중하는 자세에서 불러야 하며 그들과 친근하고 다정한 말로 교제를 하여야 한다.

아래사람들의 인격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말투는 쓰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이 아래사람들과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알맞는 말차림인 《하오》를 쓰는것이 좋다.

《하오》에 쓰이는 종결토로는 《오》, 《소》, 《구려》와 같은것들이 있다.

《학습중이요?》

《작업은 끝났소?》

《늦었는데 식사를 빨리 하구려.》

이와 같이 《하오》는 아는 사이에 쓰는 말투로서 상대방과 아래사람들에게 더욱 다정한감을 줄수 있다.

물론 이러한 말투가 모르는 아래사람들에게는 실례로 느껴질수 있으나 그래도 일없으며 자기보다 훨씬 아래인 사람들에게는 《요》토를 씀으로써 친밀감을 느끼게 할수 있다.

청년들은 아래사람들에게 종결토인 《아(어, 여)》, 《지》로 된 반말을 쓸수 있다.

《그만하지.》

《그러지 말아.》

이러한 반말투는 아래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서로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말을 쓰는것은 례절이 없는 현상으로 될수 있다.

대상이 나이차이가 많거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해라》를 쓸수 있다.

이 말차림의 존경토로는 《느다》, 《마》, 《느냐》, 《구나》, 《냐》, 《나》, 《니》, 《다》, 《아라》, 《려무나》, 《렴》, 《자》 등을 쓴다.

《다녀오너라.》

《어서 가자.》

《인사 드려라.》

청년들은 《야》, 《자》와 같은 반말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아는 사이라 하여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반말을 하게 되면 대상자는 물론 주위사람들에게도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라 하여 《야》, 《자》 하면 아무리 아래사람이라고 하여도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주위사람들은 그러한 청년을 몰상식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청년들은 아래사람을 대하는데서 상스러운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불쾌감을 줄뿐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여지없이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문화성이 없는 단어들은 물론 저속하고 유치한 말들을 쓰지 말아야 한다.

5) 손님과 주인사이의 례절

《우리 인민은 특히 손님을 례절바르게 대하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습니다. 손님과 식사를 나눌 때에는 주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손님에게 식사를 권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쪽에 놓아주었으며 손님이 식사를 다하고 수저를 놓은 다음에야 주인도 수저를 놓군 하였습니다.》

김정일

주인을 찾을 때

청년들은 동무들이나 친척들 그리고 그밖의 집들에 손님으로 갈 수 있다.

손님으로 갈 때에는 약속한 방문시간을 지켜야 한다.

특히 어떤 가정의 식사와 같은 모임에 초청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손님으로 갈 때에는 방문시간을 잘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이른새벽이나 늦은저녁에 손님으로 가는것은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식사시간을 앞둔 때이거나 식사시간에 손님으로 가

는것은 적당치 못하다.

손님으로 가면 의례히 주인을 찾게 된다.

주인을 찾을 때에는 언제나 정중하게 찾아야 한다.

찾아간 집에 부름종이 있으면 그것을 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손기척으로 주인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손기척은 세번정도 하는것이 좋다.

손기척을 한번 하게 되면 방안의 사람은 그것이 누가 왔다고 알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지나가던 누구의 실수에 의해 문을 건드려놓은 소리인지 분간할수 없게 된다.

《똑, 똑, 똑》 세번의 손기척, 이것은 손님이 왔다는 확고한 느낌을 주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세번을 하여야 한다는것은 아니며 두세번도 적당한 손기척이라고 할수 있다.

가정을 방문할 때의 손기척은 가볍게 구부린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의 등으로 방안의 주인들이 놀라지 않게 조용히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점잖게 하여야 한다.

손기척을 한 다음에는 주인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간단히 몸차림을 하고 나올수 있는 시간적여유도 주지 않고 조급하게 련속 손기척을 한다면 주인은 매우 바빠하며 불쾌하게 여길것이다.

손기척을 하고 일정한 여유를 두었으나 주인의 응대가 없을 때에는 첫번째 손기척보다 좀더 크게 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옆집의 주인들을 복도로 불러낼 정도로 크게 하여서는 안된다.

사무실을 찾아가서 손기척을 할 때에는 가정을 방문할 때와는 달리 좀더 조용히 하여야 한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분주할수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손기척을 좀 크게 할수 있다.

부름종으로 주인을 찾을 때에는 밖에 누가 왔다는것을 주인이 알수 있을 정도로 간단히 짧게 한번 신호한 후 일정한 시간 기다

려야 한다.

주인이 인차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종을 길게 계속 누르는것은 실례로 된다.

농촌문화주택을 비롯하여 단층주택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예로부터 해오던것처럼 말로 주인을 찾는것이 상례라고 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손님이 마당에 들어서서 주인을 찾는다.

《주인님 계십니까?》

《순임동무 있습니까?》

《경옥아주머니 계셔요?》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지역에서는 손님이 대문이나 사립문밖에서 주인을 찾는것을 례의로 여기고있다.

청년들은 마당에 들어서서 주인을 찾는 경우에도 자기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인이 남자들인 경우에는 가운데방문앞에서 찾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혹은 웃방문앞에서 찾을수 있으며 녀성들의 경우에는 아래방이나 부엌문앞에서 찾는것을 일반적인 례의로 하고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처녀들이 웃방문앞에서 주인을 찾으면 매우 불손한 행동으로 여기며 반대로 남자들이 아래방이나 부엌문앞에

○**속 담**○

방 문

- 드문드문 방문하면 언제나 환영받는다.
- 드물게 나타나면 귀한 법이다.
- 대문을 나설 때엔 하늘을 보고 대문에 들어설 때엔 주인 낯을 보라.
- 남의 집문을 두드리면 너의 집문도 두드린다.
- 청하지 않은 술좌석에 앉지 말라.
- 부르지 않은 잔치에는 가지 말라.
- 주인이 없는 집에 손님으로 가지 말라.

서 찾으면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주인을 찾을 때에도 지방에 따라 관심을 돌려야 한다.

손님을 맞을 때

주인은 손님이 찾아오면 즉시 문을 열고나가 반갑게 맞아야 한다.
문도 열지 않고 《거 누구요?》 하고 묻거나 시끄러운 어조로 《왜 왔습니까?》 하고 말하여 손님을 불쾌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주인을 찾아온 손님이 어른이건 아이이건 리해관계가 있건없건 친절히 맞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은 중요하다.
그것은 첫인상이 사람들과의 교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처음에 받은 나쁜 인상은 도중에 몇배의 친절을 베풀어도 꾸민듯 하여 가시기 어렵다.
손님을 친절히 맞는것은 손님을 존경하고 손님이 찾아온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를 즐겁게 하려는 주인의 성의라고 할수 있다.
맛있는 음식대접도 주인의 이러한 마음을 손님이 느끼지 못할 때에는 만족을 주지 못한다.
찾아온 손님이 낯이 익은 때에는 반갑게 맞이하고 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모르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는 주인을 확인하는 그의 물음에 친절히 대답하여야 한다.
《이 집이 순경동무네 집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침이군요. 내 한작업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만일 손님이 주인을 잘못 찾아왔을 경우에는 쌀쌀한 어조로 《여긴 그 집이 아니예요.》라고 말하고 문을 닫을것이 아니라 그가 목적한 주인을 찾을수 있도록 친절을 보여야 한다.

《저, 제가 알기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것 같은데 인민반장동무를 찾아가 알아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옆의 인민반에 ××공장에 다니는 아저씨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번 알아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안내를 받은 손님은 주인이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방안을 정돈할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여유를 주어야 한다.

주인은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손님이 왔음을 알리고 손님을 모시는데 실례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깨끗이 정돈해놓아야 한다.

만약 만나려는 가족이 자고있고 또 즉시에 깨우기 곤난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여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는 필요한 시간만큼 손님을 접대하여야 한다.

만나려 하는 가족이 집에 없을 경우에는 처신을 옳게 하여야 한다.

시간을 지체하여도 될 손님에게는 마음놓고 기다릴수 있게 신문, 잡지, 사진첩 등을 내놓고 심심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편의를 도모

○속 담○

손님접대

- 손님대접 잘 받자면 손님접대 잘해야 한다.
- 손님으로 갈 때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님접대할 때에는 허리띠를 풀어놓으라.
- 반가와하는 태도가 음식물보다 더 값있다.
- 손님을 대접할 때엔 그의 말도 대접하라.
- 손님은 빵을 보지 않고 주인의 눈치를 본다.
- 차린 음식은 먹되 없는것은 찾지 말라.
- 좋은 손님은 시간을 안다.
- 주려고 하는 물건은 말없이 주라.

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손님에 대하여서는 찾아온 사연을 구체적으로 알아두었다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방안이 정돈되여 손님이 방안에 들어오면 가족들은 손님이 누구를 찾아왔건 관계없이 일어서서 반가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손님의 외투나 겉옷을 받아 걸어주어야 하며 가방같은 손짐이 있으면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 놓아야 한다.

손님이 방안에 들어오면 집안의 웃사람과 가족들에게 소개를 하여야 한다.

《한직장에서 일하는 저의 동무입니다. 잠간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손님소개를 한 후 자기 가족을 손님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우리 형님이요.》

《내 조카 철만이요.》

만약 손님이 동무와 함께 왔을 때에는 손님과 함께 그도 가족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

《의논할 일이 있어서 우리 직장동무와 함께 온 동무입니다.》

직장일군이나 그밖의 웃사람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는 동무가 찾아왔을 때와는 다르게 소개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가족에게 손님을 소개하는것이 아니라 손님이 자기의 웃사람인것만큼 가족을 손님에게 먼저 소개하여야 한다.

인사를 끝낸 주인은 손님에게 앉을자리를 권해야 한다.

주인은 어느때나 손님을 웃자리에 모셔야 한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선선한 자리가 웃자리로 되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 웃자리로 된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에게는 출입문으로부터 먼곳이 웃자리로 되지만 녀성들에게는 방의 아래목이 그들의 웃자리로 된다.

방안에 웃사람이 있을 때 청년들의 자리는 웃쪽과 아래목을 내놓은 그밖의 자리이다.

청년들은 누구나 손님으로 가서 자기 자리조차 바로잡지 못하여 설자리, 앉을자리도 모른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안에서

주인의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은 손님은 자기의 방문목적을 말하여야 한다.

손님이 의례적으로 방문하러 갔을 때에는 거기에 맞게 문안과 안부를 전해야 하고 실무적방문을 위하여 갔을 때에는 자기의 방문목적을 간단명료하게 말하여야 한다.

이러저러한 부차적인 말을 하다가 용건을 말하면 시시해질뿐아니라 주인으로 하여금 무엇때문에 왔는가를 마지막까지 생각하게 할수 있다.

물론 주인의 위치와 방문목적에 따라 이야기순서를 정할수 있으나 그런 때에도 마지막에 용무를 이야기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만약 주인이 무엇인가 하고있을 때 손님이 찾아갔다면 그가 일을 쉽게 끝낼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방문목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님을 맞는 주인의 례의도 마찬가지이다.

주인은 손님때문에 하던 일을 마저 못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손님이 미안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

주인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님과 마주앉아 일반적인 인사를 나누며 손님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목적을 말할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는것이 일반적인 례의도덕이다.

만일 할 일을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무슨 일로 왔는가고 급하게 묻거나 시계를 자주 보며 바쁘다는것을 암시할것이 아니라 허심하게 손님에게 량해를 얻어 일을 빨리 끝낸 다음 기다려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고 손님을 대해야 한다.

남의 집을 방문하여 두리번거리며 필요없는 말로 시간을 끌거나 방안의 책이나 가정필수품을 제 마음대로 만져보며 그 값을 묻거나 빌려달라는 등 주인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필요에 의하여 그 집의 책을 보아야겠다든가 그 무슨 요구가 있다면 주인에게 말하여야 하며 그의 승인밑에서 자기의 요구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데도 지루하게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랑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주인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과 다시는 마주앉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청년들은 부모들의 손님이 집에 왔을 때의 례의를 잘 지켜야 한다.

부모나 손님이 앉으라면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학습하거나 밖으로 나감으로써 손님이 부모와 편히 이야기를 할수 있게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모를 찾아온 손님의 이야기에 참견하거나 방안을 왔다갔다하는 불손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방안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돌보아야 한다.

손님을 맞은 주인은 과일이나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내놓을수 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을, 추운 겨울에는 더운물을 권하는것이 좋다.

손님은 주인에게 사의를 표하고 음식을 들어야 한다. 과자나 사탕을 먹을 때에는 이야기를 나눌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넣고 입을 다문 다음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먹어야 하며 와작와작 씹어먹음으로써 게걸스러운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주인과 손님은 음식을 대접하고 그것을 받을 때의 례의를 잘 지켜야 한다.

식사에 초대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시간이 식사시간과 겹쳐서 음식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식사에 초대되였다면 손님은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생각지 않게 음식대접을 받게 되였다면 사양과 함께 주

인의 성의에 사의를 표시해야 한다.

남비나 큰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고 어른, 아이, 손님이 같이 먹게 하는것은 례절과 문화성이 없는 표현이며 위생상으로도 좋지 못하다.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경우라면 웃어른과 손님의것은 다른 그릇에 따로 담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그마한 빈그릇을 놓아주어 덜어먹도록 하여야 한다.

귀가 떨어졌거나 허물이 있는 그릇은 쓰지 말아야 하며 그릇을 상에 놓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게 가만가만 놓아야 한다.

식사전에 손을 닦기 위한 젖은 수건을 내는것이 좋다.

다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의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식사를 할 때에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한다.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에는 웃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다음에 아래사람이 수저를 들지만 손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는 주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손님에게 권하는것이 례절이다.

맛있는 음식은 손님쪽에 놓아주어야 한다.

손님과 허물없는 사이라고 해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밥그릇에 국을 부어주거나 물을 부어주는것은 실례이다.

식사를 할 때 쩝쩝소리를 내거나 재채기를 하여 손님의 그릇에 밥알이 튀는것과 같은 대단한 실례가 없어야 한다.

음식을 들면서 수저들의 부딪치는 소리, 음식그릇을 긁는 소리를 내는것도 식사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례절없는 행동으로 된다.

주인은 손님이 마음놓고 음식을 들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야 하며 식사를 먼저 끝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음식을 다 먹은 다음 입가심을 할 때 소리를 내여서는 안되며 이를 쑤시는 경우에도 한손으로 가리우고 하거나 몸을 반쯤 돌리고 해야 한다.

손님은 식사를 끝낸 후 주인의 성의에 깊은 사의를 표시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손님은 녀주인에게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는 례절을 표시해야 한다.
손님이 집에서 여러날 묵어가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손님이 옹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도록 친절히 대해주어야 한다.
주인은 손님에게 세면장과 위생실을 알려주며 비누와 치약, 깨끗한 세수수건 등을 리용할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불을 펼 때는 손님의 이불을 먼저 펴고 잠자리에는 주인이 먼저 들면서 손님에게 자리에 들도록 권하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님에게 문안을 하여야 한다.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한 주인의 인사에 손님은 사의를 표시해야 한다.
《잘 잤습니다.》
《돌봐주어 감사합니다.》
가정방문을 마친 손님은 떠나기에 앞서 주인집가족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인사는 나이많은분들부터 차례로 내려가면서 한다.
《바쁜 때 와서 폐를 끼쳐 안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고마왔습니다.》
주인 역시 손님이 다시 와주기를 바라는 인사와 함께 잘 가라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손님은 주인이 열어준 문으로 나가야 한다.
주인은 손님을 문밖이나 울밖까지 안내한 다음 가야 할 길 혹은 리용해야 할 뻐스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준 후 바래워야 한다.
손님을 바래우는 주인이 문밖에조차 나서지 않거나 혹시 나섰다 해도 손님이 아직 굽이길을 돌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는것은 실례로 된다.
다시말하여 주인은 손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바래우는것이 응당한 례의로 된다.

식사할 때에

사람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한다.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하고 식당, 렬차, 배, 비행기에서 그리고 결혼식 등에 초대되여서도 식사를 한다. 이러한 때에 식사례절을 바로지키는것은 그 사람의 됨됨을 보여주는 기준의 하나로 된다.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례의도덕의 기본은 고상한 정서와 깨끗하고 위생문화적인 풍모를 가지는것이다.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는 무엇보다도 점잖게 처신하여야 하며 몸차림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식사를 하는데 가까이에서 외투나 겉옷을 벗으면서 먼지를 날리거나 외투를 입은채로 자리에 앉는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된다.

특히 식탁을 마주하기 전에 누구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손을 깨끗이 씻는것을 별치 않은 일로 여기면서 어지러운 손 그대로 식탁에 마주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식사하는 장소에서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식당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서 식사하게 되였을 때에는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자리에 앉을 때에는 걸상의 왼쪽으로부터 들어가 중심에 바로 앉아야 한다.

걸상을 식탁앞으로 바싹 당겨서 깊숙하게 앉으면 음식을 먹을 때의 자세가 좋지 못하므로 알맞춤히 앉아야 한다.

걸상에 앉을 때에는 상반신을 곧추 세우고 손은 가볍게 식탁우에 얹을 정도로 놓아야 한다.

자리를 잡으면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만약 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접대원을 찾아가 이야기하고 도

움을 받아야 한다.

음식상을 받으면 조용히 점잖게 식사를 하여야 한다.

겸상을 하였을 때에도 례절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같이 앉은 사람들에게 점잖게 음식을 권한 다음 조용히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인사를 차린다고 하여 사양하는 손님에게 두번 세번 무리하게 권하거나 지어 자기 입에 넣었던 수저로 음식을 집어서 남의 그릇에 놓아주는것과 같은 불쾌한 성의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음식은 자기에게 차례진것은 물론 함께 들게 된 음식도 례의에 맞게 사양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사양하는 음식을 자꾸 권하거나 들지 않는 리유를 물어서는 안된다.

사람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자꾸 권하면 본의아니게 남을 괴롭힐수 있으며 후에 불편이 생기게 할수 있다.

특히 외국인들과 음식을 나눌 때에는 신앙에 따라 소고기를 안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술을 안마시는 사람도 있고 돼지고기를 안먹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처음에 한번 권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자꾸 권할 필요가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게 되여있는 음식은 자기 앞쪽의것을 먹는것이 원칙이다.

저가락으로 음식을 고르면서 이리저리 뒤집어놓거나 이걸 집었다 저걸 집었다 하는것은 대단한 실례로 된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여 그것만 먹거나 음식그릇이 먼곳에 놓여있다고 하여 몸을 반쯤 일으키고 손을 뻗쳐 음식을 드는것은 실례로 된다.

맛있는 음식은 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점잖게 음식을 먹는것이 고상한 식사례절로 된다.

맛있는 음식에만 부지런히 저가락을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음식에는 수저를 대지 않는것은 주인에 대한 실례로 된다.

음식을 다 든 다음에는 음식에 대한 좋은 평가의 말이나 주인의 성의에 사의를 표하는 말을 하는것이 좋다.

6) 가정에서의 례절

《부모처자사이에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서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김정일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한생을 마음써왔으며 또 쓰고있는 고마운분들이다.

당을 따라 혁명의 머나먼 길을 걸어오며 자식들을 위해 바친 부모들의 그 정성은 무엇으로도 헤아릴수 없고 또 갚을수도 없다.

이러한 부모들을 존경하며 잘 모시는것은 자식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도리이고 의무이다.

청년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잘 모시는것은 가정의 화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청년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가정이 화목해질수도 있고 소란하여 남의 말밥에 오르는 가정으로도 될수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남겨주신 《가화만사성》은 오늘 우리 청년들이 즐겨쓰는 명언이다.

가화만사성이란 가정이 화목하고 편안해야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 맡은 일을 지장없이 원만히 수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 뜻이다.

가정의 화목, 이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것이다.

하지만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가정의 화목이다.

가정의 화목은 서로가 존중해주고 아껴주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상정신적, 도덕적품성에서 움트고 자라나는것이다.

예술영화 《피바다》에서는 수수범벅에 대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온다.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아버지마저 원쑤놈들에게 잃은 불쌍한 을남이네 가정에서 어머니는 어쩌다 생긴 수수범벅을 자기는 입에도 대지 않고 갑순이와 을남이에게 고스란히 내여준다.

철없는 나어린 을남이는 순식간에 게눈감추듯 수수범벅을 다 먹지만 갑순이는 자식들을 위해 배를 곯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기의 수수범벅을 먹지 않고 건사하였다가 조용한 때에 어머니에게 드린다.

어머니는 딸의 그 마음이 너무도 기특하고 고마와 마음속으로 소리없는 눈물을 삼킨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감명깊은 그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자식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부모들의 사심없는 정성과 뜨거운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것이다.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혈기와 정열에 넘치는 청춘시절에 청년들이 옳바른 가정관을 바로세우는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옳바른 가정관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가정에서 저밖에 모르는 리기주의자가 될수 있으며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의 요구에 엇서나감으로써 가정을 불안하고 소란스럽게 만들어 부모들이 자

식격정으로 직장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들이 자식교양을 잘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사회와 집단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만든다.

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엄중한 일인가.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들의 속을 태우는 불효막심한 애꾸러기, 덜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가정의 화목을 보장하고 부모들이 긍지와 영예로 여기는 훌륭한 자식이 되자면 청년들은 무엇보다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여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보다 먼저 부모들을 생각하여야 하며 부모를 위해 아글타글 마음써야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산다는 말도 있듯이 청년들은 우선 부모를 부르는 말부터 바로써야 한다.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로 정중히 불러야 하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존경하는 뜻을 더 돋구어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일상적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모와 짤막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존경의 뜻이 담겨지도록 항상 마음써야 한다.

존경어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중간형의 애매한 말투를 쓰는것은 벌써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식어간다고 볼수 있다.

부모들이 《얘 선호야, 아버지가 가져온 ××가 어디 있는지 모

○유모아○

며느리의 음식솜씨

빨래집로인이 새 며느리를 맞았는데 어찌나 음식솜씨가 없는지 도저히 밥을 먹을수가 없었다.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놓고 《내가 며칠전에 차집로인네 집에 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때가 되여 그 집 며느리가 밥상을 들여왔는데 몇가지 반찬은 모두 무우로 만들었더구나. 그 반찬의 맛이 그

르겠니?》 하고 물을 때 《글쎄요. 난 잘 모르겠는데…》라고 반말투로 말하는것은 존경심이 없는 표현이다.

이런 경우에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정중히 대답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침인사를 바로 해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한집에서 산다고 하여 인사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자리가 차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침인사는 별로 큰것이 아니여도 부모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며 자식들이 나라일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오늘 하루도 힘껏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것이다.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음식을 차려드리는데서도 도리를 지켜야 한다.

가정에서 만드는 음식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식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젊은 며느리나 딸들이 한다고 하여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식사시간에 부모들에게 상을 차려드린 후 음식맛이 어떤가고 부모들의 의향을 물어보는것도 하나의 례절이다.

청년들은 색다른 음식이 조금 생기면 부모들부터 먼저 생각하고 부모들이 그것을 달게 드는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

저그만이더구나.》 하며 이런저런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이야기를 듣고있던 며느리는 《아이, 그런거라면 저도 만들수 있어요.》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윽고 저녁때가 되여 밥상이 들어오는지라 빨래집로인은 자못 기대가 컸다. 밥상을 살펴보니 반찬그릇이 여러개인데 담은것은 모두 시여서 먹지도 못할 무우김치뿐이였다. 기가 막힌 빨래집로인이 물끄러미 며느리를 쳐다보고있는데 며느리가 한마디 하였다.

《아버님의 음식특성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이 생겼다고 하여 제 먼저 먹거나 혹은 젊은 부부들끼리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면 부모들이 섭섭해하고 노여움을 탄다는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

자식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집에 들어올 때의 례절도 바로 지켜야 한다.

아침에 직장이나 대학에 갈 때에는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여야 하며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다녀왔다고 인사를 해야 한다.

휴식일에 어디로 나가는 경우에도 부모들에게 자기가 무슨 일로 어디에 다녀오겠다는 인사말을 하고 나가는것이 좋다.

《아버지, 학습문제토의때문에 한학급의 정호동무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한 인사말들은 부모를 믿고 존경한다는 자식의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는것으로 된다.

청년들은 또한 집안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모들과 의논하고 처리하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별치 않은 일이라고 하여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처리한다면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뿐아니라 부모들을 무시한것으로 하여 그들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옷차림에 늘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모들의 옷을 언제나 깨끗이 빨아 손질해드려야 하며 겨울에는 부모들이 덥게 지내도록 늘 관심을 돌려야 한다.

옷 한가지를 사고 생활필수품 하나를 사도 부모들의것을 먼저 사며 그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부모들이 늙었다고 하여 그들의 옷차림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의 옷차림에만 신경을 쓰는것은 자식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것으로 된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문화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 돋보기도 알맞는것을 갖춰드리고 새 책과 재미있는 CD판도 가져다드리며 낚시도구도 마련해줄수 있다.

그리하여 부모들이 적적하지 않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여야 한다.

부모들이 앓을 때에는 만사를 제껴놓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하며 영양가높은 음식을 자주 대접하고 마련해드리고 어린이들이 집안에서 떠들면서 부모들의 휴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부모와 한집에서 살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 자주 찾아가보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 편지로 소식을 전하여야 한다.

명절날이나 부모들의 생일날에는 성의껏 마련한 음식감이나 기념품을 가지고 찾아뵈와야 하며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

남자들은 처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돌려 우와 같은 례의를 지켜야 한다.

청년들은 집안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을 맡아하여야 한다.

집을 거두거나 꾸리며 마당청소를 하는 등 여러가지 일을 부모에게 떠밀지 말고 언제나 자기가 맡아하는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일이 사랑이라고 이런데서 부모와 자식간의 정이 더 깊어지고 부모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집에서 생활하는 젊은 녀성들은 아침일찍 일어나 식사도 보장하고 여러가지 빨래도 도맡아함으로써 시어머니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마음써야 한다.

자식을 아끼는 어머니들이 며느리(혹은 딸)를 조금이라도 더 재우려는 마음에서 일찍 일어나 밥도 짓고 빨래를 해준다고 하여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며 늦잠을 자거나 손에 물을 묻히기 싫어하는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의 충고에 말대답을 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부모들의 낡은 관습에서 오는 요구나 혹은 그릇된것까지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원칙적인 타이름에 대해서는 귀담아듣고 성근하게 고쳐야 한다.

부모의 타이름에 일부 감정에 거슬리는것이 있거나 자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말마디마다 해명하려 들거나 얼굴색이 시

퍼래서 씩씩거리는것은 심히 례의에 어긋나는것이다.

자식이 잘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부모의 타이름은 형식이 어떻든지간에 다 자식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충고이다.

부모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바심이 강해지며 자식들의 일에 마음을 놓지 못하여 잘하라고 잔소리를 자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심정을 잘 알고 충고를 새겨들을뿐아니라 대담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제가 확실히 생각이 짧았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해주세요. 꼭 고치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충고를 이렇게 흔연히 접수하고 고쳐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것이며 자식에 대한 정은 또 얼마나 깊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청년들은 언제나 부모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깊은 존경과 정을 담아 심중하게 해야 한다.

동생을 사랑해야 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청년들은 가정에서 동생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언제나 자기자신부터 도덕생활에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원칙적이고 뜨거운 인정을 지니고 동생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철없이 자라는 나어린 동생들은 언제나 형의 행동을 여겨보면서 형처럼 행동하고 옷차림도 형처럼 하려고 애쓴다.

소년들은 철없는 그 시절에 보고 듣는 모든것을 사진기처럼 그대로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인다.

소년시절에는 웃사람의 좋은것도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것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소년들이 보고 들은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것은 아직 사회현상에서 옳고 그른것을 제대로 가려낼 능력이 부족하고 사상의식수준이 높지 못한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형이나 언니들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동생들이 나쁜것을 본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서 행동해야 한다.

가정에서 동생들은 학습태도와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말투와 걸음걸이까지도 형이나 누이를 닮으려고 한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청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놀음놀이로 시간을 보내거나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밖에 나가 동네아이들과 싸움질이나 하게 되면 동생들도 그런 옳지 못한 행동을 닮을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청년들은 동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마구 시키지 말아야 한다.

손아래동생이라고 하여 《야, 물 떠오라.》 《책 가져오라.》 하고 잔심부름을 시키면 그도 자기 아래동생에게 그렇게 요구할수 있

○유모아○

《례절》있는 아이

《젠니, 어른들이 말할 때에는 끼여들지 말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몇번이나 말했니?》

《그런데 어머니, 아무리 기다려도 이야기가 어디 끝나야 말이지요.》

… …

《젠니, 어느 사과를 먹겠니?》

《제일 큰것을 먹겠어요.》

《젠니, 례절이 있어야지. 작은것을 먹으렴.》

《아니 어머니, 례절때문에 거짓말을 하란 말이예요?》

으며 남을 시켜먹는 나쁜 버릇이 자라날수 있다.

청년들은 좋은것이 하나 생겨도 동생을 먼저 생각할줄 알아야 하며 언제나 따뜻한 정을 가지고 동생을 돌봐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사회에서뿐아니라 집에 들어와서도 문화어를 써야 한다.

어릴적부터 문화적인 언어생활에 습관되는것은 도덕적수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도덕이란 결코 아래사람이 웃사람에게만 지켜야 할 례의범절이 아니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호상성을 띠고있는 사회적규범이다.

때문에 동생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들에게 아무말이나 해도 일없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생들을 찾아도 《야, 자》 하고 부를것이 아니라 《영남이》, 《영남아》 하고 친근하게 불러야 한다.

동생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손찌검을 하거나 야비하고 조폭한 말로 욕질할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도록 차근차근 일깨워주어야 한다.

야비한 말로 동생들을 욕하면 그들이 자존심이 상해 반발심을 가질뿐아니라 거친 말투를 쓰는 형을 본따 자기 아래동생들에게 혹은 밖에 나가 동무들사이에도 그런 비문화적인 언어를 쓰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언제나 교양자적립장에 서서 말 한마디, 손짓 하나도 례의에 맞게 하여 동생들을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부부사이에

부부사이는 가장 가깝고 친근하며 그것은 뜨거운 동지적사랑으로 이어져있다.

부부간의 동지적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나 형제자매들의 사랑에도

비길수 없다.

부부사이는 이런 뜨거운 사랑이 오가는 각별한 사이이기에 서로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부부간에는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위해주는 마음이 뜨거워야 한다.

안해는 가정의 기둥인 남편을 존중해야 하며 인사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아침시간이 되면 《어서 일어나세요. 출근시간이 다됐어요.》, 《식사가 다 됐어요. 나와 식사하세요.》, 《밤에 속이 편찮아하더니 좀 나아요?》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남편을 존중하며 인사례절을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빨리 일어나라는데 왜 아직 안일어나요?》, 《저렇게 꾸물거린다구야. 밥이 다 식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침부터 남편의 기분을 잡쳐놓는 무례한 안해로 되고만다.

식사를 하고 출근할 때에는 《다녀오세요.》한다든가 문앞까지 따라나가 가방을 손에 들려주며 웃는 낯으로 바래주는것도 인사례절로 된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인제 오세요?》, 《시장하시겠어요. 제 인차 식사를 차리겠어요.》라고 남편을 생각하는 진정어린 마음을 인사에 담아야 한다.

특히 남편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안해의 인사례절은 매우 중요하다.

안해는 웃는 낯으로 손님을 맞아들이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방안에 계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남편의 손님을 위해 성의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뚝뚝한 인상으로 《들어오라요.》라고 말한 후 시끄러워하는 표정으로 계속 제일만 하는것은 손님에 대한 큰 실례로 된다.

남편의 손님에 대한 존중은 곧 남편에 대한 존중으로 되며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으로도 된다.

녀성들은 자기 동무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때에 남편에게는 인사도 안시키고 저들끼리만 말하는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례절없는 행동으로 된다.

남편은 안해의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남편은 안해의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해가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부는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는 립장에서 하여야 한다.

이런 립장에 서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남편이나 안해가 반말질을 마구 하거나 몰상식한 언사를 쓰는것은 례의에 심히 어긋나는 행동이다.

사람들가운데는 성격이 쾌활하고 대범한 개방형이 있는가 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또 신경이 예민한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부부사이에는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신경을 건드리는 말은 될수록 삼가하면서 부드럽게 말하여야 한다.

○일 화○

우뢰가 울자 비가 오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안해는 성미가 사납고 속이 넓지 못했다. 그리하여 종일 그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쩍하면 욕설을 퍼부어서 소크라테스를 난처하게 만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한번은 그의 집을 찾아온 한사람이 왜 이런 안해를 맞아들였는가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기마술에 능한 사람은 성질이 사나운 말을 골라 타는거야. 사나운 말을 타내면 다른 말은 마음대로 부릴수 있는거지. 이런 안해의 성미를 참아낼수 있으면 그 어떤 사람하고도 잘 지낼수 있는거야.》

한번은 소크라테스의 안해가 크게 화를 내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소크라테스에게 물벼락까지 안기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무렇지도 않은듯 태연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뢰가 울자 비가 오는거야 당연한 일이지.》

만일 어떤 문제를 토의할 때 의견일치가 안된다고 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나중에는 야비한 언사까지 쓰는것은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자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매우 엄중한 행동이다.

남편쪽에서 잘못 생각했을 때에는 그가 성이 가라앉은 다음에 안해가 차근차근 리치를 밝혀 말한다면 쉽게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안해쪽에 잘못이 있을 때에도 경우는 마찬가지이다.

남편은 안해에게 우격다짐으로 자기 의견을 내려먹이려 할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기 쉽게 하나하나 깨우쳐주면 안해는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될것이며 일시적으로 생긴 부부사이의 불신은 칼로 물 벤듯이 사라져버릴것이다.

가정에 좋은 옷감이 하나 생겨도, 맛있는 음식이 하나 생겨도 안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남편은 안해를 생각하며 서로 위해줄 때 부부사이의 정은 더욱 뜨겁고 깊어지게 되는것이다.

생일날이면 안해나 남편은 서로 성의를 다해야 하며 간단한 기념품도 마련해가지고 축하해주어야 한다.

시부모를 모시고있는 경우 남편은 안해가 며느리의 구실을 잘할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이끌어주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의 크고작은 일을 맡아하는 며느리에게 있어서 남편의 도움은 참으로 고마운것이다.

남편은 안해가 자기 부부나 자식들보다 시부모를 먼저 생각하게 하고 거기에서 락을 찾도록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만일 시부모와 며느리사이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 립장에 서서 부모의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서도 안해가 실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하며 서로의 관계를 조절해나가야 한다.

7) 공중도덕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은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세우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정일

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들의 청춘시절과 자신들의 고귀한 땀방울이 어려있는 거리로 오갈 때마다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

거리에 나설 때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집에서 입던 옷이나 작업복, 체육복 같은것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집을 나설 때에는 꼭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몸단장이 제대로 되였는가를 거울앞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옷이 구겨지지 않았는가, 단추는 제대로 채웠는가, 넥타이를 바로 매였는가를 살펴야 한다. 흙이나 먼지가 묻은 신발은 손질하여 깨끗하게 신고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동생들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거나 혹은 동생들끼리 거리에 나갈 때에도 옷차림과 몸단장이 제대로 되였는가 살펴보고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거리에 나서면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는 길을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날수도 있다.

웃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자를 벗고 머리숙여 인사를 해야 하며 동무지간이나 같은 나이의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간단한 인사말이나 눈인사를 할수도 있다.

거리에서 두사람이 함께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때에는 옆의 사람을 세워둔채 상대방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실례로 되기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거나 후에 다시 만날것을 약속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함께 걷던 사람에게 량해를 구해야 한다.

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물어야 할 일이 생길수도 있다.

이러한 때에도 례의도덕을 지켜가며 물어보아야 한다.

《저, 미안하지만 길을 좀 물읍시다. 석암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실례합니다. 통일거리로 가려면 어디서 궤도전차를 타야 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여기 사진관이 어디 있소?》, 《여기서 구역체신소까지 얼마나 가야 하오?》라고 퉁명스럽게 묻는것은 실례로 된다.

물음을 받은 청년들은 물은 사람이 혼자서도 목적지를 찾아갈수 있게 구체적으로 친절히 대주어야 한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 예, 저기 보이는 고층살림집을 지나면 궤도전차정류소가 있는데 그걸 타고 3번째 정류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이고장 사람이 아니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고 대답도 없이 그저 씽하니 지나치거나 《몰라요.》, 《많이 가야 하우다.》, 《이 길로 가면 되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것은 례절이 없는 행동이다.

거리를 가다가 몸이 불편해하는 사람이나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가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지 말고 관심을 돌려 방조를 주어야 한다.

길을 걸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걷는것이 제정된 질서이다.

길 왼쪽으로 걸어 마주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여러 사람이 옆으로 길게 늘어서서 길을 메우며 걸어가는것은 례절이 없는 행동이다. 청년들은 부모나 처녀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그들을 오른쪽에 세우고 걸어야 한다. 그것은 도로가 한적할 때에는 별문제이지만 걷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어기는 사람들과 손을 부딪칠수 있고 또 마주칠수도 있기때문이다.

웃사람과 함께 걸을 때에는 그의 왼쪽뒤에 한두발자국 떨어져서 걷는것이 례의로 된다.

길을 가다가 바닥에 물이나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같이 가는 사람들이 편히 가도록 이끌어주면서 걸어가야 한다.

청년들은 교통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자동차, 뻐스 등이 꼬리를 물고달리는 번화한 거리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교통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자면 모든 청년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있어야 한다.

규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데서 중요한것은 건늠길을 건

○상 식○

화초는 건강에 좋은 약

여러가지 화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줄뿐아니라 사람들의 신경을 흥분시키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인체의 면역을 높이는 작용을 하므로 사람들은 저도모르는 사이에 보건의 혜택을 입게 된다.

곱게 피여난 생화는 사람들에게 미적향수를 안겨주어 사람들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그윽한 향기는 피로를 풀어주고 마음을 흥분시킨다.

붉은꽃은 사람들의 밥맛을 돋구어주고 남색꽃은 해열, 진정

너갈 때의 질서를 잘 지키는것이다.

청년들은 차길을 건늘 때에는 반드시 건늠길표식이 있는 곳과 지하건늠길로만 건너가야 한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건늠길을 건늘 때에는 반드시 어린이의 손을 잡고 교통신호에 따라 건너가야 한다.

오늘 우리의 거리와 마을들에는 아름답게 꾸려진 잔디밭이나 꽃밭들이 많다.

청년들은 시간이 바쁘다고 하여 또는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 잔디밭이나 꽃밭으로 질러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애써 꾸려놓은 잔디밭이나 꽃밭이 못쓰게 되는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수 있다.

거리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다니는것은 비문화적이고 매우 몰상식한 행동이다.

또한 침을 뱉거나 손으로 코를 쥐고 풀어버리는 행동도 역시 비문화적이고 저렬한 행동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서 종이를 리용하여 처리하고는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

청년들은 길을 건늘 때만이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 복도로 다

작용을 한다.

넓은잎정향나무의 향기는 살균작용을 하며 국화꽃향기는 머리아픔을 멈추게 하고 시력을 높인다.

나리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환경의 정결함을 더해준다. 진달래꽃은 기관지염증을 해소하며 자지색꽃은 임신부들에게 유쾌한 정서를 안겨준다.

독말풀꽃은 진정과 수면에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꽃가루에는 14가지 비타민과 11가지 미량원소 및 활성효소가 들어있으며 21가지 아미노산과 50여가지 천연효소가 함유되여있다.

특히 꽃가루에 들어있는 항생소를 비롯한 일부 물질들은 로화방지의 중요한 요소로 된다.

닐 때, 회의장으로 들어갈 때, 주석단으로 나갈 때에도 례의를 잘 지켜야 한다.

이때에는 웃사람과 일군들의 뒤에 적당히 떨어져 조용히 걷는것이 례의로 된다.

물론 자기가 맡은 단위나 길을 안내할 때에는 앞에 서야 하지만 그밖의 경우에는 웃사람과 일군을 앞세워야 한다.

극장, 영화관, 경기장에서

우리의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들은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이고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문화교양기관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즐거운 기분으로 문예작품을 관람할수 있도록 모두가 극장관람문화를 바로세워야 한다.

극장관람문화는 무대예술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하는것부터 시작하여 작품을 보는 전과정에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과 례절을 비롯한 행동규범들을 이르는 말이다.

청년들은 공연을 보면서 무대에 나선 배우들과 교감도 할줄 알고 작품세계에 깊이 잠겨 감흥을 느낄줄도 알며 공연이 끝나면 열렬한 박수도 보내야 한다.

박수는 공연관람에서 지켜야 할 초보적인 도덕일뿐아니라 작품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쳐야 한다.

이처럼 극장에서의 례의도덕을 바로 지켜야 관람문화가 바로 섰다고 말할수 있다.

청년들은 극장, 영화관, 체육관 등에 갈 때에는 옷차림과 몸단장을 단정히 할뿐아니라 절대로 술을 마시고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경표를 살 때에는 줄을 서서 차례로 표를 사야 한다.

표를 먼저 사겠다고 줄에 끼여들거나 밀치면서 다툼질을 하는것은 서로의 즐거운 기분을 흐리게 하는 무례한 행동이다.

안내원들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손님, 가방을 맡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5렬 19번이면 저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앞을 지나야 할 때에는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하며 자기 자리에 혹시 다른 손님이 앉아있다면 웃는 낯으로 조용히 해결하거나 안내원을 찾아가서 해결받아야 한다.

《저 손님, 미안하지만 자리번호를 헛갈리지 않았습니까?》

《저 할아버지, 자리번호가 바뀐것 같은데 그냥 앉아계십시오. 제가 바꾸어앉겠습니다.》

자리번호가 정해져있지 않는 영화관, 문화회관들에서 빈자리에 앉으려면 앉아있는 사람에게 옆자리가 비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작종이 울리고 불이 꺼진 다음에 자기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는것은 다른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방해가 된다.

공연이 시작되면 작품감상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자기가 이미 보았거나 아는 내용의 작품이라고 하여 앞질러가며 말하는것도 실례가 되는 행동으로 된다.

구경하면서 음식물을 먹거나 바닥에 종이를 버리는 현상, 신발을 벗거나 발을 걸상에 올려놓는것 등은 매우 문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공연도중에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허리를 굽히고 조용히 나가야 한다.

예술공연이나 영화는 끝까지 진지하게 보아야 한다.

공연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는것은 출연자들에게 심히 불손한 행동으로 된다.

예술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관람자들이 모두 일어서서 열렬한 박수로 배우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어야 한다.

공연이 끝나면 덤비지 말고 질서있게 조용히 나와서 맡겼던 소지품을 찾아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청년들은 체육관이나 경기장에 가서도 제정된 질서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경기장에 들어갈 때에는 안내원의 안내를 받으며 줄을 서서 질서있게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면서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고 걸상을 타고넘거나 이곳저곳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경기가 진행되면 청년들은 응원을 잘해야 한다.

경기를 응원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하여 휘파람을 불거나 비웃는 일이 없어야 한다.

관람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혼자서 무엇을 먹는것은 례의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음식을 간단히 들 때에도 휴식시간에 옆의 사람에게 권하면서 드는것이 도덕있는 행동이다.

청년들은 경기를 끝까지 보고 선수들이 퇴장한 다음에야 경기장에서 질서있게 나와야 한다.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거나 먼저 나가겠다고 밀치고닥치고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앉으십시오》

뻐스나 궤도전차, 기차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러므로 교통수단을 리용하는 청년들과 이 부문의 일군들이 서로 례절을 잘 지키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청년들이 여러가지 교통수단들을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신문이나 잡지, 책을 보면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줄을 서지 않고 한옆에 있다가 뻐스나 궤도전차가 오면 끼여

들어 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는 사람이 줄의 앞쪽에 서있다고 하여 그것을 구실로 끼여드는것도 례의도덕이 없는 현상이다.

온 차례로 줄을 서지 않고 안면을 구실로 줄에 끼여들기 시작하면 한명이 두명으로 늘어나고 두명이 또 네명, 다섯명으로 늘어나 뻐스, 궤도전차줄에 혼잡탕이 조성될수 있다.

급한 일이 있어 먼저 타야 하는 경우나 동무가 한발 먼저 나와 줄을 잡고있는 경우에는 뒤사람들에게 충분히 량해를 구하고 뻐스나 궤도전차에 올라야 한다.

뻐스나 궤도전차에 오를 때 먼저 오르겠다고 밀치고닥치고 하지 말아야 하며 매달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뻐스, 궤도전차, 기차를 리용할 때에 청년들은 영예군인이나 늙은이, 애기어머니들이 먼저 오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철도역의 안내원들은 손님들의 각이한 물음에 언제나 친절하게 정확히 대답하여야 하며 렬차원들과 뻐스, 궤도전차의 차장들은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봉사성을 높이기 위해 애써야 한다.

렬차원과 차장들의 친절한 언어례절은 먼길을 려행하는 손님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피곤을 덜어준다.

철도역 안내원은 열사람, 백사람이 물어보든 전화로 물어보든 언제나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주어야 한다.

○유모아○

처녀의 인사불성

로인; 《아가씨, 여기 내 자리에 앉으시우!》
처녀; 《할아버지는 이제 내리시겠습니까?》
로인; 《아니, 몇정류소 더 가야 하오. 그런데 아가씨가 먹는 과자부스레기가 떨어져 내 목덜미로 자꾸 들어가서 그러오!》

청년들은 차에 오르면 영예군인이나 늙은이, 애기어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늙은이와 애기어머니가 곁에 서있는데도 못본척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것은 새 세기에 사는 인간답지 못한 얼굴뜨겁고 비도덕적인 행동이다.

《아주머니, 여기에 앉으십시오.》

《할머니, 여기에 자리가 있으니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권하면 자기의 인품도 더욱 올라가고 주변손님들의 찬양을 받을것이다.

뻐스, 궤도전차, 기차를 리용할 때에 나쁜 냄새가 나는 물건을 가지고오르지 말아야 하며 큰 짐을 뻐스나 궤도전차, 기차안의 길에 놓아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한다.

차안에서는 많은 손님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게 될수록 말을 삼가하여야 한다.

아는 사이라고 하여 큰소리로 말하거나 웃고 떠들어대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

동무와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소곤소곤 말을 하는것이 좋다.

기차려행을 할 때에 안면을 익힌 손님이 도중역에서 내리려 한다면 그의 짐을 거들어주며 인사를 나누는것이 례절있는 행동으로 된다.

《건강하십시오. 또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제 후에 꼭 전화를 하겠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저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편안히들 가십시오.》, 《재미있게 얘기를 듣느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군요. 이번에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히들 가십시오.》

이렇게 서로가 례절을 깍듯이 지키면 비록 짧은 시간을 함께 려행하였지만 밝은 인상을 가지고 도덕이 밝은 상대방을 좋은 추억속에 오래도록 그려보게 된다.

《어서 오십시오》

상업, 급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대중에게 가닿게 해주는 위치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부문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영예감을 간직하고 여러 계층의 손님들을 대함에 있어서 언제나 밝은 인상을 가지고 례절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무얼 드릴가요?》

상점판매원들이나 식당의 접대원들은 손님들의 요구를 해결해주기 위해 성의를 다할뿐아니라 주동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손님에게는 이 색이 그 색보다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상품은 다 나갔습니다. 그 상품이 다시 들어오니 며칠후에 와보십시오.》

《국수뿐만아니라 시원한 에스키모도 있습니다.》

상점판매원들이 손님들의 물음에 《없어요.》, 《거기 써붙여놓지 않았나요.》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손님들이 물건을 오래 살펴본다고 하여 《사겠어요? 안사겠어요? 안사겠으면 그만두라요.》라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상점판매원들은 손님들의 백번 물음에 백번 다 친절히 대답해야 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

식당의 접대원들은 밝은 인상을 가지고 음식그릇을 상우에 소리가 나지 않게 놓아야 하며 《많이 드십시오.》라고 친절히 말하여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려관의 안내원들은 손님을 친절히 맞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세

면장과 위생실의 위치 등 편의시설들의 위치도 알려주어야 한다.

려관에서 여러날 묵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생활에 불편이 없는가를 자주 알아보고 가능한껏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려관에 들게 되면 방안의 손님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여야 하며 생활에서 례의도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려관을 떠날 때에는 함께 지낸 손님들과 려관의 관리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전 오늘 돌아갑니다. 그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들이나 관리원도 례의를 표시해야 한다.

《신세는 오히려 내가 더 진걸요.》

《또 오세요.》

상점에 간 청년들은 판매원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온종일 숱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어야 한다.

《더운 때 수고합니다. 저 학습장을 좀 봅시다.》

《판매원동무, 안녕하십니까. 저 시계를 좀 삽시다.》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갈 때에는 판매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

《잘 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판매원들은 손님들의 인사에 답례를 하여야 한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해요.》

《또 오세요.》

식당에 간 청년들은 자리에 단정히 앉아 음식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음식을 빨리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여 접대원에게 짜증을 내며 비문화적인 언어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음식상을 받았을 때의 례절은 조용히 점잖게 말하고 처신하는것이다.

일군이나 웃사람과 자리를 같이하였을 때에는 그들이 수저를 든 다음에 들어야 하며 청량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도 같은 례의를 지켜야 한다.

자기에게 음식상이 먼저 차례졌을 때에는 먼곳에 앉은 사람이나 웃사람에게 권해야 하며 그렇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등의 인사를 간단히 한 후 수저를 들어야 한다.

음식상이 함께 나오게 될 경우에는 먼저 받았다 하더라도 한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드는것이 례의도덕이다.

음식을 드는 때에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식사를 하다말고 부산스럽게 큰소리로 떠들며 식사분위기를 깨뜨릴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인사를 하여 례의를 표시하여야 하며 식사가 끝난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음식을 들 때에는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하며 수저를 입으로 가져갈 때 목을 길게 상우로 내뽑거나 볼이 불룩하게 음식을 넣고 점잖지 못하게 먹어서는 안된다.

인사를 차린다고 하여 사양하는 손님에게 두번세번 무리하게 음식을 권하여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미료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것이므로 남에게 먼저 권해야 하며 깨끗하게 쓰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쩝쩝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거나 국을 후륵후륵 소리를 내면서 먹어서는 안된다.

또한 음식을 들면서 말을 많이 하거나 특히 음식을 넘기지 않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모아○

《이젠 습관이 돼서》

식당에서 여러가지 맛좋은 료리를 만들어 팔고있었다. 손님들도 많이 모여들었다.

접대원이 김이 문문나는 국그릇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다. 그는 엄지손가락이 국물에 잠긴채로 국사발을 들고 손님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다가와 태연하게 내려놓았다.

손 님; 《여보시오, 당신의 손가락이 국물에 잠겼소!》

접대원; 《괜찮습니다. 이젠 습관이 돼서 뜨거운줄을 모르겠는걸요.》

음식을 채 넘기지도 않고 일어서서 씹으면서 입을 닦는것과 같은 비문화적인 행동은 곁사람들의 입맛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식사를 다 한 다음 조용히 입가심을 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야 한다.

특히 식사를 하면서 음식맛을 떨구는 이야기나 행동은 극히 삼가해야 한다.

접대원은 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실례되는 일을 하여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식사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접대원들은 아직 손님들이 음식을 들고있는 식탁에서 빈그릇을 가져가거나 행주질을 하는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접대원이 본의아니게 손님들에게 실례되는 일을 하였다면 제때에 량해를 구하여야 한다.

리발소, 미용원의 봉사자들은 반드시 손님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들의 기호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머리단장을 해주어야 한다.

리발소, 미용원에 간 청년들은 기다렸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머리단장을 해야 한다.

기다리는 시간에 책이나 신문 등을 열람할수 있다.

봉사부문에 영예군인이나 로인들이 오면 먼저 리용하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바쁜 일이 없으면서도 제 차례라고 하여 로인들을 못본척 하고 먼저 머리를 깎는것은 례의도덕이 부족한 행동이다.

청년들은 머리를 깎으면서 끄덕끄덕 졸거나 옆의 자리에 앉은 아는 동무와 큰소리로 말하면서 머리깎는데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머리를 다 깎은 다음에는 리발사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해야 하며 리발사는 그에게 답례를 하여야 한다.

《정말 마음에 들게 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오십시오.》

만일 머리단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도 짜증을 내지 말고 너그럽고 친절하게 말하여 고치도록 해야 한다.

《제 머리가 좀 찌그러진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하여 리발사는 《머리가 그렇게 생겨서 별수 없어요.》라고 귀찮다는 식으로 말할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군요. 미안

합니다. 제꺽 고쳐드리겠습니다.》라고 친절히 말한 후 손님의 의향대로 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어느곳에서나 례의도덕을 잘 지켜야 사람의 인품이 더욱 돋보이고 고상한 인간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봉사원과 례절

저녁상을 차리던 며느리는 시들한 기분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의아함을 금할수 없었다.

늙기는 했어도 언제나 젊은이들 못지 않게 명랑하고 활기있게 생활하고있는 시어머니였기때문이다.

시어머니는 구럭을 방구석에 맥없이 놓더니 옷도 갈아입을념을 안하고 누울 차비였다.

며느리는 구럭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보았다.

구럭에는 사과가 그득했는데 시어머니는 침울하다할지 노엽다할지 매우 어두운 인상이였다.

《어머니, 어디 편치 않으세요?》

《…》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엇때문에 그처럼 언짢아하는지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아침에 있은 일이였다.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소학교 1학년에 다니는 영철이가 할머니에게 말하였다.

《할머니, 나 5점맞으면 사과를 사다주겠다고 했지요?!》

《그래. 영철이가 어제 5점을 맞았다니 이 할머니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어떤 사과를 사다줄가?》

영철이는 기다렸다는듯 제꺽 대답했다.

《나 새빨간 사과를 사다줘요.》

《응, 그래.》

이런 일이 있은 후 과일남새상점으로 간 할머니는 판매원에게 이렇게 요구하였다.

《이사람 판매원, 저쪽에 있는 빨간 사과들로 좀 주게나.》

그러나 할머니의 말을 들었는지 먹었는지 판매원은 파란 사과들만 저울우에 올려놓고는 어서 받으라고 하였다.

《이사람, 저기 있는 빨간걸루 좀 바꾸어달라구.》

할머니가 사정하자 판매원은 시답지 않은듯 역증을 내였다.

《이 할머니가 참 별스럽게 노네. 다음손님…》

그리고는 다음사람의 전표를 받아쥔 다음 할머니에게 어서 사과를 받으라고 독촉하는듯한 눈길을 보내였다.

할머니가 구럭을 내밀자 판매원은 바쁘다는듯 사과를 그속에 우르르 쏟아넣었다. 할머니는 젊은 사람에게서 괄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몹시 허전하였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있지만 할머니는 빨간 사과를 달라고 할 손자의 모습이 떠올라 기분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몇번이나 바재이던 할머니는 빨간 사과를 기다릴 손자애를 위해서 할수없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상점으로 갔다.

그동안 상점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 가고 그 판매원이 어떤 중년의 녀성과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잠시후 매대밑에서 구럭을 꺼내여 그 녀성에게 주는것이였다.

구럭속에는 크고 빨간 사과가 탐스럽게 담겨있었다.

할머니는 판매원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중년녀성에게 다정한 웃음을 지으며 친절을 베풀고있는 판매원의 모습, 그것은 좀전에 자기를 대하던 그 쌀쌀하고 랭정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것이였다.

판매원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손님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판매원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인민들에게 골고루 상품을 공급하고 우리 당의 사랑을 인민들에게 전달해주는 봉사자이다. 그런데 봉사부문에서 일하는 자기들을 특수한 존재처럼 여기며 상품을 가지고 낯내기를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사람을 낯가림하는것은 낡은 사회에서 직위나 권세, 돈에 의하여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고 존중과 멸시의 차별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잔재로서 매우 그릇된것이다.

만일 봉사자들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여 더 잘 대해주고 친척이라 하여 좋은것을 골라주고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안면봉사를 한다면 당과 국가의 혜택을 고맙게 받아안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에 그늘을 던져주게 되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인 우리 나라에서 판매원들이 특별봉사를 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으로서 나이많은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일것이다.

이윽고 살뜰한 표정으로 중년녀성을 바래운 판매원의 눈길이 할머니에게 미치였다.

어두운 얼굴표정에 사과가 든 구럭을 들고 서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는 판매원의 얼굴에는 일순간 놀라움과 당황함이 확 피여났다. 자기가 랭대한 할머니를 알아보았던것이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판매원의 모습을 본 할머니는 실망을 금치 못하며 상점에서 나오고말았다.

그리고는 맥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기분이 없어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손자애가 방에 들어섰다.

《할머니, 사과 사왔나요?》

《응…》

할머니는 시들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야!ㅡ》

사과가 담긴 구럭을 보고 환성을 올리던 영철은 사과 한알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할머니, 그런데 왜 빨간 사과를 못사왔나요? 할머닌 약속을 잊었나요?》

《이 할머니가 잘못했다.》

귀여운 손자애를 바라보며 애써 웃음을 짓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서러움이 어려있었다.

잠시후 온 가족이 저녁상에 마주앉았으나 한두술 뜨다말고 숟가락을 놓는 할머니로 하여 아들과 며느리, 딸과 손자들도 근심에 싸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판매원의 그릇된 봉사태도는 이처럼 손님뿐아니라 그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이러한 기분은 하루종일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오래동안 가슴에 맺혀 내려가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니 수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는 판매원이 옳은 품성을 지니고 봉사활동을 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편 상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박로인은 매우 기분이 좋았다.

《아버님, 샀어요?》

시아버지의 가방을 받으면서 며느리가 인사차림으로 한마디 물었다.

《사지 못했다.》

로인의 대답은 씩씩하고 쾌활하였다.

《그런데?…》

며느리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도 즐거운 기분에 휩싸여있는 시아버지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혹시 다른 곳에서 물건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며느리는 은근히 걱정이 되여 자기의 심정을 내비치였다.

《그럼 어쩌나. 잔치날이 얼마 안남았는데…》

그러는 며느리를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며 박로인은 씨원씨원한 어조로 말하였다.

《응, 이제 인차 될게다.》

이윽하여 방안에 들어가 앉은 박로인은 가족들에게 상점에서 있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날 박로인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막내며느리의 첫날옷감을 마련하기 위해 상점으로 갔다.

박로인이 직접 막내며느리의 첫날옷감을 사기 위해 상점으로 간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얼마전 잔치집에 초청되여갔던 로인은 그집 새색시가 미색갈의 천으로 첫날옷을 해입은것이 은근하고 현숙해보여 자기 막내며느리의 첫날옷도 미색으로 하리라 마음먹고는 이날 자기가 직접 상점으로 갔던것이다.

박로인이 천매대에 다가가자 처녀판매원은 상냥한 미소를 띠우며 반겨맞아주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박로인은 대뜸 기분이 흥그러워졌다.

박로인이 막내며느리의 첫날옷감을 사러 왔다고 하자 판매원은 진렬대에 있는 천들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기 있는 천들이 첫날옷감으로 맞춤하니 어서 고르십시오.》

《응, 그러지.》

판매원의 말에 기꺼이 응한 로인은 진렬대에 있는 천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탓인지 색갈이 선명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판매원동무, 저 천들을 좀 가까이 볼수 없소?》

《어서 그러세요.》

판매원은 옷감들을 가져다가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마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로인이 이천 저천을 요구했으나 판매원은 조금도 나무라거나 시끄러워하지도 않고 시종 웃는 얼굴로 성의껏 봉사해주었다.

마침내 옷감고르기에 지친 로인이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진렬대를 바라보자 판매원은 상냥한 어조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어떤것을 요구하십니까?》

《그 뭐라든가? 그 천색갈이름이…》

로인의 머리에는 미색이라는 색갈이름이 인차 떠오르지 않았다.

안타까와하는 로인의 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던 판매원은 이렇게 튕겨주었다.

《할아버지, 제가 천색갈이름을 부르면 혹시 생각나지 않을가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응, 어서 그래주게.》

판매원은 로인을 위해 하루종일이라도 봉사하려는듯 천색갈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다.

《…미색.》

《옳네, 미색이네. 미색…》

로인은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그러자 이들을 지켜보고있던 주위의 손님들도 즐겁게 웃었다.

그제야 알았다는듯 웃음을 짓던 판매원은 미안해하며 말하였다.

《어쩌나, 그런데 그 미색갈의 천은 다 팔리고 없구만요.》

《그래?》

로인도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판매원은 밝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할아버지, 집주소와 이름을 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

○상 식○

웃음은 몸에 좋다

과학자들은 웃음이란 사람들이 생화학적자극을 받게 하는 과정으로서 체내의 샘을 자극하여 카테콜아민,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을 비롯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할뿐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세포의 기능을 높여주며 항체와 인터페론의 생성을 늘인다고 인정하고있다.

이밖에 웃음은 뇌하수체가 일종의 흥분제를 산생시키게 하므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며 신경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의 악순환을 방지하게 한다.

사람이 웃을 때에는 신경계통, 호흡기계통, 흉부, 복부, 내장, 횡격막, 근육 등 여러 부위가 단련되므로 보건체조를 한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웃음은 건강을 회복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보고 인차 알려드리겠어요.》

《뭘 그렇게까지…》

로인은 너무도 수고를 끼치는것 같아서 황급히 판매원을 만류하였으나 그는 꼭 해결해드리겠다고 다짐하였다.

판매원처녀의 아름다운 품성과 고상한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박로인의 말이 끝났으나 집식구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이윽고 아들이 말하였다.

《그러니 그 판매원의 고상한 례의도덕이 아버님의 마음을 그렇게 후덥게 해주었구만요.》

《응.》

박로인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며칠후 미색첫날옷감을 들고 이 집을 찾아온 판매원처녀를 온 집안식구가 떨쳐나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로인의 가족들은 당과류를 그의 앞에 내놓고 권하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청춘의 향기

나비는 꽃을 찾아 날으고 사람은 아름다운 품성에 마음이 쏠린다.

나비가 꽃을 찾아 날으는것은 꽃에서 향기를 풍기기때문이며 사람의 마음이 쏠리는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이 품성이며 거기에서 풍기는 향기때문인것이다.

마음의 향기, 그것은 고결한 량심이고 고상한 품성이다.

나라와 민족의 꽃인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이러한 향기가 있어야 한다.

향기가 없는 꽃, 향기가 없는 청춘은 결코 아름다울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생활의 이 진리를 평범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과학연구기관에서 연구사로 일하는 30고개를 바라보는 범산의 가슴은 지워지지 않는 한 처녀의 모습으로 하여 몹시 설레였다.

그가 자기도모르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사랑의 대상은 평범한 접대원처녀였다.

범산이가 한생을 같이할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음을 쓴것은 몇해전 어머니가 한 처녀의 사진을 가지고온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친척들과 친구, 한직장사람들이 적지 않은 처녀들을 소개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일에 빠져 이 문제를 소홀히 하였는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장가를 가려고 마음먹었는지 어쨌든 어느 하나도 성사되지 못하고 몇해가 지나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손들고 물러났으며 그에게 《눈이 꼭대기에 붙은 총각》, 《글뒤주》라는 딱지가 붙게 되였다.

이러한 범산의 마음속에 사랑의 파동이 일어나게 된것은 어느 한 식당에서 일하는 순경이라는 처녀접대원을 알게 된 때부터였다.

사실 범산은 접대원들에 대한 인상이 그리 밝지 못하였다.

언제인가 그는 출장을 갈 때 대학동창생으로부터 그 지방의 식당에서 접대원으로 일하는 자기 녀동생을 만나고오라는 부탁을 받게 되였다.

동창생은 자기 동생에게 자그마한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하였지만 그 부탁속에는 녀동생이 괜찮게 생겼으니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의향을 자기에게 알리라는 암시가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범산은 출장길에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였다.

아직 식사시간전이여서 식당문은 열지 않았고 주변은 조용하였다. 학창시절부터 식당출입을 별로 하지 않던 범산은 문도 열지 않은 식당앞에 혼자 서있기가 면구스러웠다.

오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지나갔다.

사실 문을 열지 않은 식당이나 상점앞에서 서성거리는것은 고상한 행동이 못되며 인격이 깎이는 일이였다.

범산이 안절부절을 못하며 서있는데 마침 머리를 보기좋게 단장하고 눈매도 고운 녀성이 향수내를 풍기며 문을 열고 나오는것이였다.

그 녀성은 얼핏 보기에도 서른전으로 보이였다.

《저, 실례이지만 한가지 물읍시다.》

범산은 반색을 하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왜 그래요?》

그 녀성은 몹시 바쁜듯 범산을 한번 바라보고는 내처 어디론가 빨리 가려는 자세였다.

《이 식당에서 생금이라는 처녀가 일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잘 생긴》 그 녀성은 얼굴을 획 돌리더니 식당안쪽에 대고 소리치는것이였다.

《생금동무! 누가 찾아왔어!》

안에서는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대답이 없는데 그 녀성은 인차 문을 닫아버리고는 어디론가 종종걸음을 쳤다.

(그 녀성 도덕품성은 령이로군.)

무안을 당한 범산은 뒤더수기를 긁적거렸다.

얼마동안이 지나서 한 처녀가 안에서 나왔다.

《저를 찾아왔어요?》

범산이에게 쌀쌀한 눈길을 던지며 몸매가 미끈한 처녀가 하는 말이였다.

아마 식당에 흔히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겼는지 오래 기다렸는가고 묻는 말도 없고 또 인차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말도 없었다.

《동무가 명국동무의 동생입니까?》

《예.》

처녀는 두눈을 반짝이며 실무적으로 대답하였다.

범산은 즐겁지 못한 인상을 느끼며 동창생이 보낸 편지를 그에게 주었다.

처녀는 범산이가 무슨 애로를 해결하려고 오빠의 소개신을 가지고온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뜯고는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얼마간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처녀의 얼굴은 점차 밝아지기 시작하였다.

아마 편지에 그 어떤 부탁이 아니라 찾아가는 청년이 괜찮은 사람이니 친절하게 대해주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던 모양이였다.

처녀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는 수선을 떨며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이끌면서도 범산이가 손에 들고있는 자그마한 꾸레미에 자주 눈길을 던지는것이였다.

처녀의 마음을 들여다본 범산은 곧 들고있던 꾸레미를 그에게 넘겨주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 그럼,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게 오셨다가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잠간 들어가 앉았다가 가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세…》

처녀는 당황하여 말끝도 채 맺지 못하였다.

(지금의 저 모습은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한가. 하지만 저 모습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아니고 때에 따라 변하는 능란한 처세술일진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수 있겠는가.)

범산은 걸어오면서 많은것을 생각하였다.

그때로부터 범산은 많은 손님들을 대상하는 식당의 접대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있던 그가 어떻게 되여 한 접대원처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남모르는 사랑의 심연속에서 속을 태우게 되였는가.

그가 알게 된 순경이라는 처녀는 그닥 뛰여나게 잘 생긴축은 못되며 보통키에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다니는 말없는 처녀였다. 특이한것이 있다면 언제나 눈가엔 웃음이 남실남실 넘치고 여러층의

사람들을 대하여도 언제나 부드럽고 진실하게 대하는것이였다.
범산은 늘 바쁜 속에서 일하면서도 언제나 상냥한 말씨로 손님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처녀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품성에 마음이 끌렸던것이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것은 사상의식을 지녔기때문이며 인간이 아름다운것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녔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시대 청년들은 사랑을 하여도 대상의 직업이나 인물 등을 보고 할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진정한 애정은 상대방의 품성을 사랑하는데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물이 어떤가를 묻기에 앞서 마음씨가 어떤가고 물어보군 하였다.
마음씨란 다름아닌 그 사람이 지닌 도덕품성이다.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는 인간의 고상한 품성은 영원한 매력을 가지고 뭇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는다.
과학자돌격대의 한 성원으로 한 도시에 간 범산은 때때로 가까운 곳에 있는 식당에 가군 하였다.
어느날 그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인상깊은 모습을 보게 되였다.
촌에서 온듯한 할머니가 식사차림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있는것이였다.
이때 접대원처녀가 다가와 할머니에게 무엇을 잡숫겠는가고 다정히 물으면서 여러가지 음식에 대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요구에 맞는 음식표를 떼 다음 할머니의 짐을 손짐보관실에 맡기고 돌아와서 빈자리에 앉도록 보살펴주었다.
접대원처녀는 할머니에게 식사를 먼저 봉사하기 위해 주변의 손님들에게 할머니가 몹시 피곤해하시니 식사를 먼저 드리자고 량해를 구하였다.
마치 친딸처럼 할머니를 극진히 위해주는 접대원의 모습은 주변 손님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범산은 이때에야 비로소 접대원처녀의 얼굴이며 행동거지를 눈

여겨 바라보게 되였다.

수수하면서도 평범한 모습이였으나 그 처녀는 어딘가 모르게 남보다 돋보였으며 하나하나의 행동이 무척 세련되고 침착해보였다.

그처럼 깊은 인상을 주는 처녀접대원이 바로 순경이였다.

식사를 먼저 받은 할머니는 《참, 고마운 일도 있지. 지금 젊은이들이란 참 기특도 하지.》 하면서 혼자소리로 연신 그 접대원처녀를 칭찬하였다.

순경은 여러 손님들을 봉사하는 바쁜 속에서도 할머니가 식사를 끝내자 물까지 떠다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정말 맛있게 먹었네. 이 식당 음식이 정말 맛이 있구만.》 하면서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할머니뿐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이 식당은 료리도 잘 만들지만 접대원들의 높은 봉사성이 음식맛을 더 돋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실 진심으로 손님을 위하는 살뜰한 접대는 음식맛을 돋구고 소화도 잘 시킨다. 그러나 아무리 진수성찬이라 하여도 불쾌한 감정

○상 식○

심리상태와 입맛

과학자들은 음식물의 소화과정에서 심리작용이 생리적기능보다 더욱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는 지어 생리기관의 생리적작용을 초월한다는것을 발견하였다.

례를 들면 사람이 기쁠 때면 입맛이 생겨 아무것을 먹어도 맛이 있다. 그럴 때에는 기쁜 심리가 소화계통의 생리기관에 작용하여 중추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맞춤한 흥분상태에 있게 하고 위장의 운동, 담낭의 수축, 소화기관의 각종 오무림살이 풀리여 소화액이 대량으로 분비되게 함으로써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빨라지게 한다.

반대로 비애에 잠기면 불쾌한 심리가 소화기관에 작용하여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면 중추신경이 억제당하고 교감신경의 지나친 흥분으로 하여 소화액분비가 줄어들게 하거나 지어 분비되지 않기도 한다.

속에서 먹으면 그 진맛을 알수 없으며 또 소화도 잘 안된다.

만일 접대원이 인상을 찌프려가지고 신경질적으로 음식그릇을 손님들앞에 덜컥덜컥 밀어놓거나 더우기 손님의 요구에 까박을 붙인다면 손님은 음식을 달게 먹을수 없을것이다.

범산은 이날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왜 이 식당을 칭찬하면서 즐겨찾군 하는지 그 리유를 알수 있었다.

그때부터 범산은 순경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였다.

그후에도 여러번 이 식당에 온 범산은 언제나 손님들을 반갑게 대하고 깍듯이 례의를 지키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사람의 품성을 바로알자면 자기를 대하는 태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보아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품성, 그것이 그의 진짜 품성인것이다.

범산이가 현장에서 기술혁신조와 함께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 있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일손을 다그치던 로동자들속에서 반가운 환성이 터져올랐다.

《야, 우리 순경이가 또 오누만.》

《맞구만, 우리 순경이구만.》

범산이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식당접대원 순경이가 무거운 짐을 량손에 들고 다가오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이 달려가 그의 짐을 받아주었다.

《자, 우리 순경이가 왔으니 조금 쉬였다 해야지.》

기술혁신조장인 나이많은 아바이가 이렇게 휴식을 선포하였다.

모두가 자리에 둘러앉자 순경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가지고온 김이 문문나는 차물을 로동자들에게 권하였다.

범산이도 한고뿌 받아들었다. 처음 맛보는 차물이였다.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차물이 속으로 흘러들자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훈훈해왔다.

범산은 곁에 앉은 로동자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차맛이 별맛입니다.》

《참, 연구사동무는 이 차맛을 처음 보겠구만. 우리는 이 차

를 보약차라고 한다오. 우리 순경이가 자체로 만든 차인데 이고장에 흔한 다시마와 솔잎으로 만들었다오.》

차에 대하여 자랑을 하면서 그는 공장에서 긴장한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순경이가 차물을 끓여가지고 나와 로동자들을 고무하면서 일손도 돕군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차물을 마시며 범산은 생각하였다.

저 처녀에게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있다. 대중을 위하여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고상하고 깨끗하며 또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긴장한 전투속에 열흘이 지나고 또 닷새가 흘렀다.

이 기간 순경은 여러차례나 차를 끓여가지고와서는 로동자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의 일손을 도왔다. 그때마다 그는 나이많은 사람이건 애젊은 청년이건 례의있게 대하면서 고무적인 말을 해주군하였다.

나날이 갈수록 범산의 마음속에는 점차 순경이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저녁에 와서 로동자들을 위해 봉사할 때마다 자꾸만 그에게로 눈길이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여러날이 지나자 순경이도 범산의 눈길을 감촉한것 같았다.

사랑의 감정은 대체로 눈에서 많이 그리고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순경은 범산의 눈길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서로 마주치게 되면 얼굴을 붉히면서 황황히 피하군 하였다.

범산은 순경이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는 과정에 그가 대학통신생으로서 공부도 잘하고 례의도덕에도 매우 밝은 처녀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범산의 가슴은 날이 갈수록 세차게 설레이였다.

순경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가시덤불길도 웃으며 헤치고 솟구치는 정열을 안고 부강조국을 위해 더 큰일을 해제낄수 있을것같았다.

범산은 점차 순경이가 자기 생활에서 떼여놓을수 없는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연구성과가 생산에 도입되여 환호성이 터져오른 그날 순경은 향기그윽한 들꽃묶음을 범산의 가슴에 안겨주며 정겨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범산동무, 축하해요.》

《고맙소, 순경동무.》

범산은 자기의 성과처럼 기뻐하는 순경의 눈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날밤 달빛이 수면우에 넘실거리는 강변으로는 두 청춘남녀가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속삭이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걷고있었다.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된 범산이와 순경이였다.

문으로 나들 때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문을 나들게 된다.

집문을 나서면 직장 혹은 학교나 동무의 집문을 나들게 되며 다른 기관의 사무실문도 나들수 있다.

문을 나드는데도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례의도덕이 있다.

문을 나드는데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례의도덕은 우선 순서를 지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먼저 문을 연 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며 그뒤에 다음사람이 들어가거나 나오는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를 앞서 빠져나가면 례의를 어긴것으로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문을 연 사람이 문손잡이를 쥐고 선 기회를 리용하여 먼저 거침없이 빠져나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방에서 나오려는 사람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하며 웃사람이나 일군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나들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바쁜 일이 있다고 하여, 자기가 문앞에 더 가까이에 있다고 하

여 웃사람이나 일군보다 먼저 방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것은 매우 버릇없는 행동으로 된다.

녀성들과 같이 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들을 먼저 앞세워야 하며 걸었던 문으로 들어갈 때에는 열쇠를 연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다음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열쇠를 연 사람이 그 방의 주인인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열쇠를 연 사람이 례의를 지켜야 한다.

간혹 남의 집이나 다른 직장, 다른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주인이 없어 비여있으면 문안으로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여 빈방에 들어가 걸상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것은 실례로 된다.

문을 나들 때에는 문손잡이를 잡고 열어야 하며 들어가서도 문손잡이를 잡고 조심히 닫아야 한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거나 쾅— 하고 닫는것은 주인에게 심히 불손한 행동으로 된다.

문을 어깨로 밀어 열거나 발끝으로 열고닫는 현상도 없어야 한다.

자기뒤에 사람이 있으면 열었던 문을 놓지 말고 그가 나드는데 편리하도록 넘겨주어야 한다.

○속 담○

겸손성

- 검소한 옷차림은 좋은 소개장이다.
- 겸손성은 거만성의 해독제이다.
- 겸손성은 미모보다 낫다.
- 벼이삭은 여물수록 고개숙인다.
- 자만하면 실패하고 겸손하면 성공한다.
- 참다운 소박성은 선량한것과 아름다운것을 결합시킨다.
- 참된 겸손성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다.

문을 나들 때에는 문턱을 밟고다니는 행동이 없어야 한다.

문턱은 방안과 밖을 구분하면서 가로놓여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방안을 드나들면서 문턱을 밟는것을 좋지 않은것으로 여기였다.

문턱을 밟는것은 집을 밟는것이나 같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 집에 오지 않을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유래가 어떻든 관계없이 문턱을 자꾸 밟아 닳아없어지면 보기도 싫고 고치기도 곤난하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방을 드나들 때 문턱을 밟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몸가짐과 걸음새

청년들은 몸가짐과 걸음새를 바로하여야 한다.

그것은 청년들의 고상한 도덕풍모가 몸가짐과 걸음새에서도 표현되기때문이다.

우선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몸가짐을 바로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동무들이나 이웃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고개를 젖히고 웃어대거나 몸을 흔들거리고 손과 발을 휘젓는것과 같은 천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는 딴생각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는 행동으로 된다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남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군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을 매우 모욕적인 일로 여긴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어떤 물체를 가리키거나 신문이나 도서의 글자를 짚기 위하여 손가락을 쓰는것은 별문제이지만 사람을 가리켜 손가락질하는것은 심히 몰상식한 례의없는 행동으로 된다.

어떤 청년들은 손짓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리있게 이야기할수 있는데 손짓을 해가며 말한다. 그리하여 듣는 사람에게 산만한 감을 주고있다. 지어 어떤 청년들은 웃사람과 일군들을 대상할 때에도 주저없이 손을 내흔들고있다.

이러한 버릇이 굳어지는 경우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실수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손짓, 몸짓은 꼭 필요한 대목에서 장소와 대상에 맞게 옳게 하여야 한다.

흔히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부를 때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고 손목을 흔들며 자기의 가까이로 오라고 한다.

이러한 손짓은 어디까지나 웃사람이 아래사람에게 할수 있는것이지 아래사람이 웃사람을 대상할 때에는 하지 말아야 할 손짓이다.

사무실이나 회의실, 극장, 영화관에서 걸상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펴고 단정한 자세로 앉아야 한다. 웃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몸을 걸상에 푹 잠그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있거나 까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것은 례의가 없는 행동으로 된다.

사람들과 말을 할 때 여기저기를 흘끔거리며 곁눈을 팔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꺼냈다 하는것, 뒤짐을 지고있는것도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몸가짐에서 점잖은것은 두손을 가볍게 아래로 드리우고 침착하고 겸손한 태도로 정중히 서있는것이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거나 직위가 높을 때에는 자신의 손을 앞으로 가볍게 마주잡고 서있는것으로 례의를 표시할수 있다.

청년들은 몸가짐을 례의범절에 맞게 해야 할뿐아니라 걸음새도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청년전위답게 기백있게, 씩씩하게 바로해야 한다.

아무리 잘 생기고 옷차림이 멋있다고 해도 걸음새를 바로하지 못하면 볼품이 없어지고 인품이 떨어지게 된다.

청년들의 걸음새는 힘있고 씩씩하며 경쾌하고 절도있게 하는것이다.

걸음을 걸을 때에는 머리를 바로 들고 앞을 보며 어깨와 가슴은 펴고 몸은 곧추 세워야 한다.

남자들은 곧추 편 다리를 앞으로 성큼성큼 절도있게 내디뎌야 한다.

남자가 가슴을 오그리고 땅에 눈길을 떨어뜨린채 털썩털썩 맥없이 걷거나 살금살금 걸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걸음새는 청년들의 성격에는 물론 시대의 분위기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남자들은 걸을 때 팔을 경쾌하게 흔드는것이 좋다.

팔을 휘젓거나 맥없이 건들거리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앞으로 흔들 때는 지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팔자걸음은 혁명하는 시대 청년들의 걸음새로 되지 못한다. 팔자걸음이란 발끝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걷는 걸음을 말한다.

남자들이 팔을 잘게 흔들거나 살랑살랑 흔들면 경망스러운감을 주게 된다.

녀성들은 아름답고 씩씩하고 우아한감을 자아내도록 걸어야 한다. 이러한 걸음새는 녀성들의 미를 돋구고 거리에 정서적흥취가 넘치게 한다.

녀성들은 가슴과 어깨를 소박하게 펴고 엉덩이에 약간 힘을 주는것과 함께 허리와 무릎은 곧추 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리를 옮길 때에는 무릎안쪽이 서로 스칠 정도로 엇바꾸면서 발을 곧바로 힘있게 내디뎌야 한다.

굽높은 신을 신었을 때에는 허리를 펴고 무릎을 뒤로 당기는듯 하면서 발목을 곧추 펴고 발자국을 비교적 좁게 떼면서 힘있게 내디뎌야 한다. 발을 땅에 딛는 순간에 무릎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온몸의 중심이 신굽밑중심에 모이게 하고 발목을 곧추 펴면서 률동적으로 걸어야 한다.

만약 녀성들이 굽높은 신을 신고 발목과 무릎을 펴지 않고 얼음판우에서 걷듯 자신심없이 걷거나 무릎을 흔들거리며 꺼부정해서 걸으면 신체발육과 건강에도 해롭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녀성들은 굽낮은 신을 신은 경우에도 발자국을 지내 크게 떼며 허리를 구부리고 털썩털썩 걸어서는 안된다. 이때에도 몸을 곧추 펴고 발을 단정하게, 힘있게 내디뎌야 한다.

녀성들은 다리의 놀림과 함께 팔놀림을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녀성들은 팔을 소박하면서도 단정하게, 어느 정도 짧게 흔드는것이 좋다.

녀성들은 10m정도의 앞 길바닥을 보는듯 하는 자세로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곁눈을 팔지 않으면서 걷는것이 좋다.

길을 가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쳐다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거리에서 청년들의 걸음새는 단정하고 씩씩하며 경쾌하면서도 될수록 빨리 걷는것이다.

물론 한가한 때에 누구와 함께 거리를 걸을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길 맨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야 하며 걸음새는 단정하고 힘이 있어야 한다.

해로운 담배

한때 사람들속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담배가 오늘은 세상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며 밀려나고있다.

그것은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대단히 나쁘기때문이다.

담배가 사람들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가는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한 담배피우기경기에서 건강한 한 청년이 연거퍼 60대를 피워 1등을 했으나 시상대에 나가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잘 알수 있다.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것은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몇달후에 벌써 건강이 급속히 좋아지는 사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담배는 피우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 주변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집에 들어와 방문을 꼭 닫고 줄담배를 피운다면 방안에 있는 사람들도 담배를 피운것과 같은 해

를 입게 된다.

이것은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담배를 대담하게 결심하고 끊어야 한다.

만일 정 끊지 못할 형편이라면 담배대수를 결정적으로 줄이며 피우는 경우에도 방안이나 사무실 등에서 피우지 말고 밖에 나가 피우거나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가족과 직장사람들, 동지들에게 례의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청년들은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웃사람이나 일군들앞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우고 맞불질하는것과 같은 례절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웃사람이 담배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라이터를 내놓을 대신 자기가 피우던 담배를 내주는것과 같은 례절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꽁초나 담배재를 아무데나 버리고 털며 재털이를 불결하게 거두는 등 담배를 피우는데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도 례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담배를 피우는것은 경제적으로도 리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년들은 자기가 얼마나 옳은 선

○상 식○

담배를 끊는 방법

무우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썬 다음 약천에 싸서 즙을 짜버리고 사탕가루를 적당히 섞는다. 이렇게 만든 무우채를 작은 접시로 하나씩 매일아침 빈속에 먹은 다음 담배를 피우면 담배맛이 없어지고 담배를 피우고싶은 생각도 없어지게 된다.

이 방법을 계속하면 점차 담배애착현상이 없어지면서 담배를 끊을수 있게 된다.

이 비결은 무우에 포함된 《무우산》에 의한것으로 보아진다.

택을 하였는가를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고 변심을 말아야 하며 담배를 피우는 청년들은 청춘의 용감성과 결단성을 가지고 담배를 단호히 끊어야 한다.

깨끗한 손

예로부터 나라와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는자를 역적이라 하였고 남의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한자를 도적이라 하였다.

도적질은 나라와 인간에 대한 가장 너절한 죄로 엄중히 취급되였다.

청렴하고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지난날 도적놈을 역적다음가는 못된 놈으로 여겼다.

그만큼 우리 인민은 깨끗하게 량심적으로 살았던것이다.

그러나 강도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후 우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관료기관을 설치하고 온갖 불량배들을 모아 제놈들의 앞잡이로 내세우고는 못된짓만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곳곳에 일본놈들의 비호를 받으며 도적질과 나쁜짓을 하는 불량배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오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조직적인 도적단이 무어져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있다.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도적단이 활개를 치고있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음으로양으로 그것을 감싸주고 허용하고있다.

지어 한다하는 정객들까지도 이러한 도적단에 망라되여 눈을 감아주고 보호해주며 도적놈들로부터 돈을 받아먹고있다.

반동관료배들이 이렇게 하는데는 도적놈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제 주머니를 불쿠면서도 도적단을 리용하여 저들의 적대세력을 비롯하여 진보적력량을 없애려는 음흉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다.

상층부의 관료배들이 이런 판이니 자본주의사회는 날이 갈수록 도적이 성행하고 도적이 날치는 활무대로 되고있다.

도적질, 이것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바탕을 둔 썩어빠진 자본주의독소로서 이에 물들기 시작하면 나라와 인민도 모르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와 당을 배반하는 길로 떨어지게 하는 매우 위험한 요소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고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것을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가장 너절한 행위로 보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고있다.

행복한 날에는 물론이고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우리 청년들은 한그릇의 풀죽도 서로 나누어먹을지언정 남의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고상한 풍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남들이 부주의로 잃어버린 귀중품이나 돈가방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것과 같은 아름다운 미풍을 수없이 꽃피워 세상사람들을 경탄시켰다.

인간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

설사 죽물로 끼니를 에우고 그것마저 떨어져 맹물로 배를 달래는 한이 있어도 추호도 손을 더럽혀서는 안된다.

깨끗한 손, 그것은 깨끗한 량심을 의미한다.

하찮은 작은 물건에 눈길을 돌리고 요쯤이야 하는 식으로 자기의 량심을 속이기 시작하면 나쁜 버릇이 점차 상습적인것으로 습관화될수 있으며 나중에는 동무들과 집단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추물로 변모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돈과 물건을 위해서라면 그 무슨짓도 서슴지 않는 민족반역자, 혁명의 배반자로 굴러떨어질수 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우리 내부에 퇴페적인 반동문화와 생활양식을 끌어들여 청년들을 사상문화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악랄하게 날뛰고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언제나 각성을 높이고 건전하게 생활해나갈뿐아니라 자신을 혁명적으로 부단히 수양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인간의 량심을 속이는 비도덕적행동의 사소한 요소라도 나타났을 때에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도적놈을 잡으면 손목을 자르거나 손가락을 자르며 죄가 중하면 죽이기까지 하고있다.

손목이나 목을 자르는데서는 경하고 중한것을 갈라 처벌한다고 한다.

판결에 따라 중한자는 세번에 자르고 경한자는 한번에 자른다고 한다.

도적에 대한 형벌은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총살하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벌금을 받으며 어떤 나라는 일생을 로동교화소에서 무보수로동을 시키고있다.

청년들은 미래의 주인,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주인들이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인민의 재부를 창조해나가는 자기의 손을 그 어떤 《오물》에도 더럽혀지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청년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에서 살게 될 인간의 높은 정신도덕적풍모를 누구보다먼저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수양해나가야 한다.

○속 담○

충 고

- 잘못 행동한 사람에겐 제때에 말해주라.
- 참다운 사람에게는 한마디면 충분하다.
- 충고는 약과 같으므로 쓰면 쓸수록 좋다.
- 칭찬보다 충고를 기꺼이 받으라.
-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리로우며 충고는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 리롭다.
- 현명한 조언은 성공의 절반.
- 빨리 도와주면 두번 돕는셈이다.
- 오른손은 왼손을, 왼손은 오른손을 닦아준다.

아름다운 청년들

성희는 부랴부랴 출장준비를 해가지고 역으로 나갔다.

그는 자기가 연구한 자료를 어느 한 연구기관에서 도입하였는데 그만 실패했다는 련락을 받았던것이다.

이제 마지막실험만 성공하면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가슴조이며 기다리고있었는데 뜻밖에도 실패하였다는 소식이 날아왔으니 눈앞이 캄캄하였다.

성희는 렬차를 타고가면서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겠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북방의 어느 한 역에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내린 성희는 다시 기차를 탈 때까지 6시간정도 여유가 있기때문에 역기다림칸에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다 문득 허기증이 느껴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증명서와 차표가 잡히였다.

손가방을 열어보니 간단한 화장품과 손수건, 기술도서 한권이 있을뿐 그처럼 바라는 현금은 없었다.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보니 너무도 바쁘게 돌아치던 나머지 그만 떠날 때 잊고 온것이였다. 그는 눈앞이 캄캄하였다.

성희가 이런 환경에 처해보기는 처음이였다.

아무리 머리를 싸쥐고 생각해보아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이고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크지 않은 체격에 수수한 차림을 한 30대의 청년이 급한 걸음으로 역기다림칸에 들어섰다. 그는 렬차시간표를 깐깐히 살펴보고는 다시 나들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였다.

그 순간 성희는 저도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어줍은 미소를 띠우며 낯모를 청년에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손님, 초면에 바쁜 길을 지체시켜 죄송합니다. 실은 손님의 방조를 좀 받을수 없을가 해서 그럽니다. 저는 ○○공장을 찾아가는 연구사입니다.

떠날 때 실수를 하여 그만 려비를 가지고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차는 꼭 타야겠는데… 저를 좀 도와줄수 없겠습니까. …》

성희는 자기가 어떻게 되여 처음 만나게 되는 청년에게 이런 얼굴뜨거운 부탁을 하였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아마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가닿아야 한다는 그 한가지 생각이 그에게 이런 용단을 내리게 한것 같았다.

낯도 모르는 처녀에게서 천만뜻밖의 부탁을 받은 그 청년은 처음 한순간은 당황해하더니 인차 자신을 수습하고는 성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비록 곱게 생긴축은 아니여도 리지로 빛나는 눈이며 바싹 마른 입술, 닭알형의 얼굴에 실린 피로와 절절한 마음.

잠시후 청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들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쓴 후 그것을 쭉 찢어서 현금과 함께 성희에게 내밀었다.

○속 담○

미 덕

- 미덕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 미덕은 걸어서 가지만 악덕은 말을 타고간다.
- 미덕은 마음의 건강이다.
- 미덕은 영광에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 미덕이 없으면 아무리 명문출신이라도 값이 없다.
- 자기희생은 미덕의 조건이다.
- 악덕은 미덕의 외투를 뒤집어쓰고있다.
- 얼굴이 붉어지는것은 미덕의 빛갈.

《좀더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남은건 이것밖에 없군요. 여기에 내 주소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청년은 성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할 사이도 없이 나들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저, 동무…》

성희는 청년을 따라 몇걸음 옮기다말고 굳어져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의 모습만 바라보았다.

(아, 얼마나 고마운 청년인가. 주소도 이름도 묻지 않고 자기 현금을 다 털어주다니…)

가슴그득히 차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성희는 그 청년이 준 종이와 현금에 눈길을 주었다.

거기에는 그 청년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있었고 현금도 목적지에 갔다가 연구소로 되돌아오기에는 충분한것이였다.

성희는 종이에 씌여있는 주소와 이름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가. 도와준 자기를 잊지 말라고 적은것일가, 아니면 후에라도 이 주소로 현금을 보내라는것일가.

성희는 여러모로 생각해보았으나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그 청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안고 목적지에 도착한 성희는 자기 연구소에 급히 려비를 보내줄것을 요구하였다.

며칠 안되여 연구소에서는 성희가 요구한것을 인편으로 보내왔다.

목적지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운 성희는 되돌아가기위해 기차에 올랐다.

기차가 어느 한 역에 멎어서자 성희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고마운 그 청년을 찾아가 인사를 하기 전에는 좀처럼 마음이 개운해질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역밖에 나온 성희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며 그 청년이 사는 마을로 향하였다.

먼길을 걸어 그 마을에 도착하니 벌써 어둠이 깃들어 마을은 조용하였다.

지나가는 마을사람에게 물으니 그 청년은 리청년동맹비서라고 하

였다.

이윽고 그 청년의 집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려던 성희는 주춤 굳어지고말았다.

이밤중에 내가 들어가면 그 청년과 안해에게 얼마나 실례되는 행동으로 될가.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하다보니 딱해할 청년의 심정을 생각지도 못했던것이다.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한 자신을 돌이켜보며 잠시 생각을 더듬던 성희는 다시 걸음을 옮겨 역으로 향하였다.

그후 연구소에 돌아온 그는 다음날로 상점에 들리였다.

그는 상점에서 청년의 사업에 긴요하리라고 생각되는 물건들과 그의 안해며 어린 자식들에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상품들을 사서 짐을 꾸리였다.

성희는 직접 찾아가 인사를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물건들을 넣은 소포를 그 청년에게 보내였다.

며칠후 그 청년에게서 회답편지가 왔는데 거기에는 소포를 반갑게 받았다는 인사말과 함께 자기가 이름과 주소를 대준것은 혹시 출장중에 다른 애로가 또 제기되면 자기를 찾아오라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청년이였다.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자그마한 사심도 없는 고상한것이였다.

그후에도 성희는 그 청년의 위로와 고무가 담긴 편지를 받으며 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여 마침내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남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심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아름다운 마음, 그것은 당의 품에서 자라난 선군시대의 청년전위들, 우리 청년들모두가 지니고있는 도덕이고 사상정신적특질인것이다.

8) 차림새와 례절

《옷차림을 비롯하여 몸단장을 단정히 하는 것은 사람의 품격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김정일

머리단장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단장은 그 사람의 문화정서상태를 보여준다.

아무리 잘 생긴 청년이라 해도 머리단장을 잘못하면 품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나이와 직업, 생김새, 몸차림새 등에 어울리게 머리단장을 잘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것은 우리 식이 아니며 그러한 머리단장은 자신의 인품은 물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와 아름다운 거리의 풍치를 떨구게 된다.

머리단장에서 기본은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간편하고 단정하게, 깨끗하게 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어떤 머리이든 관계없이 청년들의 머리는 언제나 이러한 요구에 맞게 단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선군시대 청년다운 단정하고 고상한 풍모를 한눈에 보여줄수 있다.

처녀들은 자신의 용모와 정서에 맞게 머리단장을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게 하여야 한다.

처녀들이 머리단장을 남자들처럼 짧게 하거나 뒤를 바투 짜르고 제비꼬리처럼 꽁지는것은 우리 식이 아니다.

처녀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머리단장을 단정히 함으로써 선군시대 처녀의 풍모가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머리를 자주 감아야 한다.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 비듬이 끼거나 나쁜 냄새가 나는 일이있어서는 안된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헌데가 생길수 있으며 나쁜 냄새를 풍겨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다.

또한 빗질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아침에 깨여나 구겨진 머리카락에 빗질 한번 하지 않고 집밖을 나서는것은 매우 비문화적인 행동이다.

청년들은 머리를 비누로 깨끗이 빨고 기름을 약간 바른 다음 빗질을 하여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것이 좋다.

○상 식○

피곤을 푸는데 좋은 목욕

어떤 사람들은 피곤할 때 목욕을 하면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있다.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대의학은 목욕이 피부를 깨끗이 할뿐아니라 피로를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사람은 긴장하게 로동할 때 전신의 근육이 긴장되고 피순환이 빨라지며 신진대사가 특별히 왕성해진다. 그리고 인체의 피지선과 땀샘의 분비물이 뚜렷이 증가되여 피부가 진득진득한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공기가운데의 먼지, 흙 그리고 신진대사과정에 생기는 피부세포와 피지가 한데 엉켜 인체에 해로운 땀띠가 형성된다.

땀띠는 부식될 때에 고린내를 풍기며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워나는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한다. 또한 땀띠에는 대량의 병균이 들어있다.

만일 피부가 터지면 이 병균들이 살속에 침입하여 모낭염, 종기, 부스럼 등 화농성피부염을 일으킨다.

화 장

처녀들은 머리단장과 함께 얼굴화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얼굴화장은 그 처녀의 미를 돋굴뿐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준다.

얼굴화장을 지나치게 하여 사람들에게 촌스러운감을 주게 하여도 안되지만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다녀도 안된다.

화장은 자기의 살색과 생김새에 맞게 소박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화장만이 처녀의 용모를 아름답게 해주고 살갗을 맑고 부드럽게 해주며 생활환경도 밝고 즐겁게 해줄수 있다.

화장은 민족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목욕하는것은 바로 이런 해로운 땀띠를 없애고 피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이다.

한번 목욕하면 피부에 있는 각종 병균 2 000만～10억개를 씻어버릴수 있는데 채 씻어지지 않은 병균도 깨끗한 피부에서는 인차 죽어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부단히 피부를 문지르는데 이것은 안마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피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주는외에 전신의 근육긴장을 풀어주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피로를 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목욕이 좋다고 하여 망탕 해서는 안된다.

목욕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하면 목욕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줄수 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배가 부를 때와 고플 때에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많이 먹고 목욕을 하면 온몸의 피부혈관이 뜨거운 물의 자극에 의해 늘어나면서 비교적 많은 피가 피부혈관으로 흐른다. 그렇게 되면 뇌와 복강에로의 피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이 나고 소화흡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처녀들은 화장을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맞게 소박하면서도 아름답게, 세련되게 하여야 한다.

가장 아름답게 하는 화장은 얼핏 보아 화장을 했다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환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게 보이도록 하는것이다.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래야 살갗의 땀구멍과 기름구멍이 잘 열리게 되며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이 살갗에 쉽게 흡수됨으로써 화장이 곱게 될수 있다.

화장은 계절에 맞게 하여야 한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계절에는 연분홍색, 진달래꽃색, 앵두색의 향분과 연지류를 써야 밝고 환한 봄기운에 어울리며 단풍드는 가을철에는 감색, 앵두색, 빨간색을 비롯한 따뜻한 색의 향분과 연지류가 어울리고 흰눈이 내리는 겨울철에는 좀 진한 색을 쓸수 있다.

여름철에는 기름기가 있는 크림보다 살결물을 쓰는것이 좋다. 그리고 크림분을 잘 바르고 그우에 가루분을 가볍게 바를수 있다.

그렇다고 배가 고플 때 목욕을 하면 저혈당이 생겨 허탈증으로 졸도할수 있다.

· 목욕물의 온도는 지내 높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목욕물의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 오래동안 뜨거운 물속에 몸을 잠그고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신의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심장과 뇌의 피흐름이 줄어들면서 산소부족현상이 초래된다.

뇌혈관경화증, 고혈압,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과 로인들은 뇌출혈과 협심증, 심근경색이 발작할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목욕의 회수를 바로 정해야 한다.

목욕회수는 사람과 계절에 따라 달라야 한다.

피지선분비가 왕성한 사람은 목욕회수를 적당히 늘일수 있지만 여윈 사람은 회수를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매일 한번, 봄과 가을에는 매주 한두번, 겨울에는 보름에 한번씩 하는것이 좋다.

목욕을 매번 20～30분간 하는것이 좋다.

너무 오래하면 피로가 더해지며 목욕을 너무 자주하면 음기가 상하고 수분이 소모될수 있다.

한마디로 여름철에는 연한 색갈의 화장품을 골라서 가볍게 화장하는것이 좋다고 볼수 있다.

눈섭그리기는 얼굴생김새에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눈섭을 조금만 달리하여도 얼굴모습이 달라지므로 잘 그려야 한다.

눈섭은 본래의 눈섭생김새를 살리는 방향에서 부족점들을 메우면서 그리는것이 좋다.

처녀의 눈섭을 무사의 눈섭처럼 치뜨게 그리면 부드럽고 우아한미에 손상을 준다.

눈섭끄리가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약간 올리고 우로 올라갔을 때에는 약간 내리그려 아름다움을 돋구어야 한다.

눈사이가 넓으면 눈섭머리를 가까이 그리고 눈사이가 좁으면 넓게 그릴수 있으며 짧은 눈섭은 좀 길게, 긴 눈섭은 좀 짧게 그릴수 있다.

눈섭숱이 많고 곱게 생겼을 때에는 구태여 그리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녀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필요에 따라 약간 화장을 할수 있다.

남자들의 화장은 살갗보호와 건강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므로 극히 단순하게 하여야 한다.

남자들이 화장을 할 때에는 세면을 깨끗이 하거나 목욕, 면도를 한 후에 여름철에는 살결물을, 겨울철에는 기름기가 많은 크림을 바르는것이 좋다.

옷차림

청년들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겉보기가 속보기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그 사람의 문화적수양정도는 옷차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단정하고 산뜻한 옷차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뿐아

니라 거리의 풍치도 더욱 돋구어주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도 높일수 있다.

청년들의 옷차림은 시대에 어울리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건전하고 고상하며 민족적정서가 있게 해야 한다.

옷차림에는 사람의 사상상태가 반영되며 그 사람의 미학관이 표현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언제나 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아무리 값진 천으로 지은 옷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품을 낮추는것은 물론 사람들의 기분도 상하게 한다.

수수한 옷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손질하여 단정하게 입으면 그 사람의 인품을 돋구어준다.

우리 나라 녀성들의 옷차림에서 기본은 민족옷인 조선치마저고리이며 남자들의 옷차림에서는 제낀깃양복차림이다.

물론 녀성들이 사회활동에 편리하게 여러가지 옷차림을 할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기본은 조선치마저고리이다.

아름답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를 단정히 차려입은 처녀들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조선녀성들의 참모습인것이다.

남자들의 제낀깃형태의 양복에는 와이샤쯔에 넥타이를 매야 단정해보인다.

제낀깃양복에 와이샤쯔를 입을 때에는 양복색과 와이샤쯔색갈을 맞추어야 한다. 와이샤쯔색갈은 흰색을 비롯하여 하늘색, 살색, 연한 밤색 등이 좋다.

제낀깃양복에 반터침뜨개옷 또는 높은깃뜨개옷을 받쳐입었을 때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

청년들은 특히 봄, 여름, 가을철옷차림을 잘하여야 한다.

봄, 여름, 가을철은 사람들의 옷차림에서 특색을 나타내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청년들은 계절에 맞게 옷차림을 맵시있고 단정하게 하여 거리의 풍치는 물론 자신의 고상한 문화정서적풍모를 바로 나타내야 한다.

봄, 여름, 가을철옷차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샤쯔류의 웃옷을 아래옷안에 넣는것이다.

녀자들은 짧은소매샤쯔는 물론 긴소매샤쯔도 기슭을 치마안에 넣어야 하며 남자들도 여러가지 와이샤쯔들을 바지안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샤쯔의 아래기슭을 길게 드리워 바람에 펄럭이며 다니면 볼품도 없어지고 단정한 맛도 없어 아무리 좋은 샤쯔를 입었다 해도 보람이 없게 된다.

샤쯔류의 웃옷들을 바지속에 넣으면 몸의 륜곽선이 잘 드러나서 몸매가 살아나며 더 젊어보이게 하고 키도 커보이게 한다.

특히 녀성들의 경우에는 샤쯔를 치마안에 넣으면 몸매의 곡선미를 살리고 키가 커보이게 하므로 날씬한감을 준다.

웃옷을 아래옷의 안에 넣어 차림할 때에는 지내 빳빳이 당겨 넣거나 웃옷이 너무 나와 후줄근히 처진감이 나지 않도록 알맞춤히 하여야 한다.

처녀들의 경우 이러한 옷차림에는 허리띠를 띠는것이 단정하고 보기에도 좋다.

청년들은 체육복이나 작업복을 입고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년들은 특히 괴상한 그림이나 외국글을 새긴 런닝샤쯔와 같은 옷을 입거나 수건을 비롯한 이러저러한 물건을 옷깃에 대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년들은 봄가을에 입는 덧옷차림새도 잘하여야 한다.

봄가을에 입는 덧옷은 찬기운을 막아줄뿐아니라 몸매를 날씬하게 하여준다.

봄가을에 입는 덧옷은 길이를 맞춤하게 하는것이 좋다.

청년들은 속옷치레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겉에 보이지 않는 속옷치레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속옷인데 하고 생각하는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속옷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치레하는것을 옷차림의 관례로 여겨왔다.

속옷치레에서 기본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는것이다. 살에 닿게 입는 속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위생적으로도 좋고 겉옷을 돋보이게 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

모자와 례의

모자는 벗고 인사를 해야 한다.

웃사람들앞에서는 물론 가까운 친지들사이에도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여야 한다.

원래 모자는 더위나 추위를 막기 위하여 생겨난것이다.

먼 옛날에는 종족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군 하였는데 싸움을 위하여 모자가 점차 투구로 변하게 되였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몰라 투구를 잘 벗지 않았으며 친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만 투구를 벗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모자를 벗는것이 신임과 친절을 표시하는 풍습으로 되였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에 따라 상대방을 만나 인사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자를 벗지 않는것은 불신의 표시로 간주되였고 모자를 벗는것은 고상한 례의도덕으로 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동무들을 만나거나 웃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모자를 벗고 친절히 인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기관, 기업소의 청사로 들어갈 때에도 모자를 벗어야 한다.

집안에 들어가 모자를 벗은 다음에는 걸개에 걸어야 한다.

사무실이나 집안에 들어가서도 모자를 쓰고있거나 들고있는것은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되며 심하게는 환경에 따라 가겠다는 표시 비슷한것으로 되기때문에 주인에게 매우 불쾌한 인상을 줄수 있다.

청년들은 공민으로서 혹은 혁명전사로서의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일련의 장소들에서 모자를 벗어야 한다.

국기를 게양할 때, 국가를 주악할 때에는 모자를 벗고 정중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혁명렬사들의 묘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혁명가들을 추모하여 세운 기념탑을 찾았을 때에도 경건한 마음을 안고 모자를 벗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장의행렬이 지나갈 때에도 모자를 벗고 걸음을 멈추어야 한다.

모자를 다시 쓸 때에도 례절을 지켜야 한다.

누구를 만나 인사를 하기 위하여 벗었던 모자를 인차 쓰거나 이야기도중에 쓰면 나는 바빠서 이야기할새가 없습니다 하는 무례한 태도로 된다.

물론 이야기를 오래동안 나누거나 겨울과 같이 추운 때에 두 사람이 다 리해할수 있는 경우라면 별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가정이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돌아설 때에는 모자를 가지고나와 주인과 헤여지면서 써야 한다.

이러한 례의는 혁명렬사들의 묘나 그들을 추모하여 세운 기념탑을 찾았을 때 그리고 국가장의행렬을 바래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장의행렬을 바래울 때에는 행렬이 사라진 다음에 모자를 써야 한다.

녀성인 경우에는 누구를 만났건 관계없이 모자를 벗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녀성들이 인간사회에서 미덕의 상징으로 되고있기때문이다.

녀성들의 모자는 투구에 기원을 둔것이 아니라 인품과 아름다움을 돋구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겨났으므로 누구에게나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러므로 녀성들이 모자를 벗지 않는다 하여 례의를 어기는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길가에서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도 구태여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청년들이 웃사람과 말을 건네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모자를 벗는것이 례의적이라고 할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들에 일보러 갔을 때에는 모자를 벗지 않아도 된다.

다시말하여 은행, 상점, 매표소, 수리소, 책방 등에서 구태여 모자를 벗어들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곳에는 원래 모자걸개조차 갖추어져있지 않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일련의 장소들에서는 모자를 벗지 않을수 있다.

례를 들어 량손에 짐을 들었을 때 웃사람이나 일군을 만나면 구태여 짐을 놓고 모자를 벗으며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모자를 쓴채로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여도 무방하다.

기계를 돌리거나 계기를 살피며 복잡한 일을 할 때에도 구태여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가 하면 위생실, 수술실 같은 장소에서는 모자를 벗지 않으며 허리굽혀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일부 나라 사람들은 모자를 벗지 않고 인사를 하는 풍습이 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모자를 썼을 때에 지켜야 할 례의도덕을 잘 알고 그에 맞게 처신을 하여야 한다.

작은 문제가 아니다

몸단장에는 중요한 차림새와 그렇지 않은 차림새가 따로 없다.

몸단장에서 신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을 돋보이게 하는데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깨끗한 신발차림은 머리와 옷단장을 더욱 돋구어주며 인품을 높인다.

비록 입은 옷은 소박해도 신발을 깨끗하게 신은 사람을 보게 되

면 속으로 칭찬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발은 옷차림과 몸매에 어울리는것을 신어야 하며 늘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 한다.

신발은 신을 때마다 닦아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닦아놓는것을 생활화하는것이 좋다.

신발에 때가 묻으면 제때에 빨아야 하며 정상적으로 소독하여 무좀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비닐신을 해빛에 말리워 반들반들한 윤기가 없어지게 하거나 색갈이 변하여 보기 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비닐신은 그늘에서 말리워야 한다.

가죽신발은 구두약을 얇게 골고루 바르고 솔질을 하여 윤기가 나게 해야 한다.

구두약을 많이 바르고 닦으면 오히려 먼지가 끼고 윤기가 나지 않는다.

청년들은 실내화를 신고 밖에 나다니지 말아야 하며 신발뒤축을 꺾어신고 거리를 다니지 말아야 한다.

청년들은 아무 장소에서나 함부로 신발을 벗거나 발을 반쯤 내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비문화적인 생활습성으로서 청년들의 인품을 낮춘다.

양말은 옷차림의 구성에서 비록 작은 요소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적인 옷차림조화를 이루는데서 홀시할수 없는 부분이다.

양말에서 기본은 색갈이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연한 색갈의 양말을, 겨울철에는 침침한 색갈의 양말을 신는것이 좋다.

처녀들의 긴양말색갈은 살색이 제일 좋다. 그것은 살색긴양말이 각이한 색갈의 신발과 옷에 다 어울리기때문이다. 그러나 피부색이 비교적 어두운 처녀들인 경우 자기의 피부색보다 약간 더 진한 살색양말을 선택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색갈있는 긴양말은 처녀들의 옷차림에서 여러가지 착각효과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실례로 키가 비교적 작고 몸이 좋은 처녀들인 경우 진한 색갈의

치마에 그와 같거나 비슷한 색갈의 긴양말을 신으면 키가 보다 커보이게 되며 신발까지 같은 색갈로 조화시키면 그러한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치마색갈과 대조가 심한 흰색갈의 긴양말을 신으면 흰색의 효과가 커져 다리가 더 실하고 투박해보이게 된다.

흰색긴양말은 어린 처녀애들에게는 잘 어울리지만 어른인 경우 시선이 집중되여 옷차림의 전반적인 조화를 쉽게 파괴할수 있을뿐아니라 진한색구두에 흰색긴양말을 신으면 어린이의 옷차림과 같은감을 주게 된다.

처녀들이 긴양말을 신는 경우에는 속옷우에 긴양말을 신어 우글쭈글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처녀들은 긴양말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주름살이 없이 다리에 달라붙게 신어야 한다. 그래야 다리가 탄력있고 균형이 잡혀보이며 문화성도 보장할수 있다.

남자들의 양말은 장식효과보다도 위생학적요구나 보온성을 비롯한 실용성을 보장하는것이 기본이지만 언제나 계절적특성과 신발의 색갈과 어울리게 신는것이 합리적이다.

청년들은 계절에 맞게 양말을 자주 깨끗하게 빨아신어야 한다.

양말을 제때에 빨아신지 않으면 위생적으로 나쁠뿐아니라 친척집이나 동무의 집에 갔을 때 심한 불쾌감을 줄수 있다.

손수건은 비록 작은 물건이지만 개체위생뿐아니라 옷차림의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아무리 옷차림이 깨끗하다고 하여도 손수건이 너절하면 사람의 품격이 깎이게 되며 문화성도 없어보이게 된다.

손수건의 색과 모양은 사람의 취미와 문화수준정도를 보여준다.

처녀들의 손수건은 좀 작으면서도 부드럽고 간단한것이 좋다.

손수건은 땀내가 나지 않게 언제나 깨끗이 빨아써야 한다.

청년들은 손톱도 자주 깎아야 하며 손을 언제나 깨끗이 하여야 한다.

손톱을 제때에 깎지 않아 길게 자란것은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보기에도 싫다.

우아한 옷차림에 산뜻한 모자를 쓰고 반짝반짝하는 구두를 신은 멋쟁이처녀라 해도 손톱이 길게 자라 그 짬에 때가 끼면 그 모든 차림새가 다 허사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손톱을 자주 깎아야 한다.

이와 함께 손을 자주 씻어 언제나 깨끗이 하여야 한다.

손은 언제나 자기의 입과 련결되여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련결되여있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면 병을 막을수 없고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한 후과를 미칠수도 있다.

거의 모든 병균은 손을 거쳐 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가 하면 모든 물건들은 손을 거쳐 옮겨지고 남에게 전달된다.

작업을 하였거나 전염병환자를 문안하였을 때, 위생실을 리용한 후나 밖에서 집에 들어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문화성을 보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례의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9) 결혼식, 상가집, 제사집에서의 례의도덕

《…잔치집이나 상가집에 가서도 인사하는 법을 알고 옳바로 처신할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

결혼식때의 례의도덕

결혼식은 한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뜻깊은 경사이다.

청년들은 누구나 결혼식을 하게 되며 또 친척집이나 한직장사람, 동무네 집의 결혼식에 초청되여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결혼식에서 지켜야 할 례의도덕규범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혼식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검소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결혼식을 크게 하는것은 지난날 착취계급이 저들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만들어낸것으로서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며 전진하는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결혼식을 크게 하면 가정적으로 부담이 크고 랑비가 많으며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결혼식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검소하게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결혼식의 주인공들인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검소하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부모들과 토의하여 락착을 지어야 한다.

결혼식의 상차림은 떡, 빵, 순대 등 낟알음식보다 과일, 남새, 물고기 등으로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결혼식날에 쓸 음식은 간단히 준비하고 친척들과 직장대표 여러명을 초청하여 국수를 들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랑, 신부의 한직장사람들이나 그들의 동무들, 부모, 형제의 직장 또는 학교의 동무들이 결혼식을 좋은 기회로 삼고 욱 밀려가 먹자판을 벌려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결혼식에는 초청받은 사람들만 가야 한다.

신랑, 신부측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가야 할 사람들의 규모를 살펴보고 인원이 많을 때에는 대폭 축소하여 최대한 적은 인원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것이며 례의를 지키는것으로 된다.

○**상 식**○

술을 마실 때

예로부터 술은 어른들앞에서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강에 해로운 술을 품들여 배울 필요는 없으나 마시게 되는 경우 례절있게 처신하라는 뜻이라고 본다.

《평시에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하는 말이 바로 그 진가를 표현해준다.

어느 한 예술영화에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뜻깊은 대사가 있다.

술을 많이 마시는것은 백해무익하다.

물론 생활에서는 명절날이나 잔치집에 초청되여갔을 때 등 이러저러한 계기에 술을 마실수 있는데 이때에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결혼식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분위기에 어울리게 화장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가야 한다.

그리고 초청받은 시간 10분정도를 앞두고 도착하여 신랑, 신부의 부모들도 찾아보고 실정도 알아보는것이 좋다.

이때 신랑, 신부의 부모들에게는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축하의 인사말을 하여야 한다.

《아드님과 한직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어머님, 기쁘시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초청받은 시간보다 지내 일찌기 가서 제일 바쁜 때에 주인들의 일손에 지장을 주거나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주인을 난처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더우기 초청받은 날에는 가지 않고 결혼식다음날에 찾아가는것과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결혼식의 기본례식은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에 대한 축하모임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되여 신랑과 신부가 축하모임장소로 나오면 참가자들

청년들은 웃어른들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 《아버님, 한잔 들겠습니다.》, 《형님, 마셔도 일없습니까?》라는 량해의 말을 건늬고 곱게 마셔야 한다. 이때 웃어른들앞이라고 하여 잔을 든 상태에서 등을 돌리고 마실것이 아니라 마주한 자세에서 점잖고 겸손하게 마시면 된다.

만약 적게 마셨는데도 자신이 취기가 느껴질 때에는 몸에 맞는 안주를 들면서 취기를 삭이거나 조용히 자리를 뜨는것이 례절에 맞는다.

술을 지내 마시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비틀거리며 다니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더우기 만취되여 주인집에 드러누워 페를 끼치는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술을 마신 후에는 냄새가 난다는것을 명심하고 공공장소들에 나다니지 말아야 한다.

술을 마시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다.

더우기 녀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술을 권하는것을 삼가하여야 한다.

은 그들을 박수로 축하해주는것이 좋다.

결혼식축하모임은 결혼식에 참가한 신랑이나 신부의 친척이나 친우들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집행자가 되여 오늘 ○○동무와 ○○동무가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것을 선포하는 식으로 할수 있다. 그러면 모임에 참가한 친척이나 친우들이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원하여 준비해가지고온 꽃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고 결혼식을 축하해줄수 있다. 결혼식을 축하하여 신랑과 신부에게 주는 꽃은 붉은색꽃을 비롯하여 화려하고 정열적이며 결백의 뜻을 나타내는 꽃으로 하는것이 좋다.

이러한 때의 인사말은 《축하합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등으로 간단히 할수 있으며 그밖의 참가자들은 박수로 축하해줄수 있다.

이러한 인사를 받은 신랑과 신부는 답례를 해야 한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축하와 인사들이 끝나면 신랑이나 신부의 부모들중 어느 한사람이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식들의 행복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모임에까지 참가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주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음식을 들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내주기 바란다고 한마디 하는것이 좋다.

축하모임의 주인인 신랑이나 신부의 부모들의 이러한 인사와 권하는 말도 있기 전에 먼저 음식을 드는것은 커다란 실례로 된다.

부모들의 인사와 권하는 말이 끝나면 모임집행자는 ○○동무와 ○○동무의 결혼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것을 제의하고 잔을 들수 있다.

이러한 축하인사들이 끝나면 차린 음식을 들면서 축하의 말과 노래, 시 등으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할수 있다.

축하모임에서의 말 한마디, 노래 한구절은 다 의의있고 뜻깊은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거나 축하모임과 인연이 없는 말로 분위기를 흐리는 몰상식하고 저속한 행동을 하는

것은 참가자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준다.

축하모임은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축하하려는 모임인것만큼 그러한 요구가 충족되면 곧 끝내는것이 좋다.

더욱 좋기는 부모들과 합의하여 시간을 정하는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밤늦도록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것은 대단한 실례로 된다.

집행자는 정한 시간이 되면 축하모임을 끝낸다는것을 알려야 한다.

축하모임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문밖에 나와 손님들을 바래워 주어야 한다.

손님들은 그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는것이 좋다.

《정말 기쁩니다.》, 《행복하기를 다시한번 축원합니다.》, 《두사람이 힘을 모아 이 행복을 마련해준 당의 은혜에 꼭 보답합시다.》

이러한 손님들의 인사에 신랑과 신부는 답례를 하여야 한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손님들은 신랑, 신부의 부모 또는 친척들에게도 인사를 하여야 한다.

상가집에서의 례의도덕

상가집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례의는 상주들 즉 가족들이 고인에게 바치는 지성이다.

상주들은 우선 령구를 앉힐 자리(웃자리 즉 방문으로부터 먼쪽의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례의를 차린 다음 고인의 제일 가까운 상주가 호상을 서야 한다.

상주는 맏아들, 맏손자, 둘째아들 순서로 하고 자식들이 없을 경우에는 친척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

상주의 옷은 소박한것으로 단정하게 입는것을 례의로 한다.

부모들중 누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주가 령구를 돌보지 않고 누가 와서 돌보겠거니 하는것과 같은 자식된 도리를 망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주가 호상을 설 대신 령구를 빈방에 두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는것과 같은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고인을 정성을 다하여 지키고 추모하는것은 자식된 도리이다.

상가집에서 지켜야 할 례의는 다음으로 조객들의 추모이다.

친척은 물론 동지들과 집단은 동지가 당한 슬픔을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한다.

청년들은 동지적관계에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례를 위한 일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례의는 힘이 되고 집단의 단합을 굳게 하며 혁명임무를 더 잘해나가도록 추동해준다.

상가집을 찾는 청년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소박한 차림을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상가집에 들어서면 마련한 부조금을 추모상아래에 놓은 다음 머리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추모가 끝난 다음 청년들은 상주에게 위로의 인사를 차려야 한다.

《얼마나 가슴아프겠습니까.》

《좋은 세월에 오래오래 사시겠다고 늘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상심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갑자기 놀라운 소식을 들으니 무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가까운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해당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청년들은 슬픔을 안고있는 상주에게 슬픔을 더하는 말을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우스개소리와 같은 말을 하여 추모의 분위기를 깨뜨려서는 더욱 안된다.

상주는 조객들에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어 고맙습니다.》 등의 말로 답례인사를 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조상을 끝내면 돌아서든가 환경에 따라 고인의 생전의 공적을 간단히 추억하고난 다음 인차 자리를 떠야 한다.

청년들이 상가집에 오래 눌러앉아 술을 마신다든가 음식상을 받는다든가 하는것은 상례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또한 추모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판을 벌려놓고 웃고 떠드는것은 심히 례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장례식을 하면서 상주와 그의 친척들은 불필요한 음식을 많이 차리거나 술을 구해들이는것과 같은 일을 극히 삼가하여야 하며 청년들은 상가집에서 주식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례때의 음식이란 상례를 보아주기 위하여 온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묘지가 멀거나 화장하는데 시간이 걸려 점심전에 돌아오지 못할 조건이라면 필요한 음식을 약간 준비하여 영결식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요기를 시킬수는 있다.

제사집에서의 례의도덕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고인이 돌아간 날과 고인의 생일날 그리고 추석날 등 여러 기회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

특히 고인이 돌아간 날을 잊지 못하여 3년까지는 제사를 매해 꼭꼭 하였다.

과거 봉건통치배들은 자기들의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음식을 요란하게 차리고 제사를 크게 하였으나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어 한 인민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음식을 많이 차리고 제사를 크게 하는것은 낡은 사회의 유물로서 허례허식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복잡한 제례형식이 없어지고 일반적

으로 고인이 돌아간 날을 추모하여 한돐, 두돐, 세돐 등을 맞으면서 묘지나 유골보관소를 찾아보고있다.

돌아간 날을 계기로 진행하는 제례는 오늘에 와서 흔히 제례라고 하지 않고 추모모임이라고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옛날처럼 제상을 차리고 향불을 피우며 술을 붓고 절을 하며 묘지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제례라고 하지 않는다.

추모모임의 준비는 고인의 사진과 그의 공로를 보여주는 훈장을 상우에 놓고 꽃들을 적당히 꽂든가 놓는 방법으로 상주가 미리 준비하는 방향에서 할수 있다.

모임에는 사전에 초청을 받았거나 참가하려는 의향을 미리 알린 친척이나 동지들이 참가할수 있다.

추모모임은 시간이 되여 손님들이 오면 가족들은 그들과 함께 추모상에 손님들이 가지고온 꽃들을 놓은 다음 잠시 머리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그다음 모여앉아 고인이 지난날 당과 조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하였는가를 추모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자신들이 더욱 분발하여 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러한 때 모임에 참가한 손님들은 주인에게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인사를 할수 있다.

《벌써 돌아가신지 한돐이 되였군요. 지금도 일밖에 모르며 바

○유모아○

《내가 취한줄 알고!》

술주정뱅이가 집을 겨우 찾아와 출입문을 열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응접실에 걸린 벽시계가 《땡, 땡, 땡》 세번을 쳤다.

《저놈이 내가 취한줄 알고 무려 세번씩이나 치는군! 한번만 쳐도 1시인줄 알고도 남겠는데…》

쁘게 사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큰 일을 해놓고 가시였습니다.》

《어느새 두해가 지나가버렸군요. 세월도 참 빠릅니다.》

추석에 산소를 찾아볼 때에는 먼저 묘지에 돋은 풀을 깨끗이 베고 묘지를 잘 손질하여야 한다. 그다음 여느때의 례식과 마찬가지로 묘지앞에 가지고간 꽃을 놓고 잠시 묵상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부모님과 동지들을 위한 추도방법이며 례의도덕이다.

추석에 유골보관소에 가는 경우에도 유골을 찾아 그앞에 꽃을 놓고 잠시 묵상하면 된다.

만약 산소가 먼 경우에는 음식을 가지고가서 아이들과 함께 묘지앞에서 식사도 하면서 고인에 대한 추억을 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것이 좋다.

산소를 찾아가서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는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으로 되며 시대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

조상의 산소를 찾는 목적은 묘지를 돌보며 고인을 추모하고 자식들이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투쟁의 길에 한몸바쳐 나설것을 바라던 고인의 생전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는데 있다.

10) 촌수와 부르는 말

가족, 친척과 촌수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 친척관계를 피줄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 촌수를 정하고있는데 제일 가까운 부모와 자식사이는 1촌, 형제사이는 2촌으로 계산되지만 이러한 1촌, 2촌은 촌수를 세지 않고 3촌부터 따지고있다.

2촌, 4촌, 6촌, 8촌 등은 형과 동생별로 되며 3촌, 5촌, 7촌, 9촌 등은 숙질간으로서 숙부(3촌숙, 5촌숙 등)와 조카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옛날부터 10촌이 넘으면 등촌이라고 하여 촌수를 세지 않았다.

가족, 친척사이에 부르는 말

가정에서 청년들은 촌수와 부르는 말에 따라 부모들과 웃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아래동생들을 사랑하고 교양함으로써 가정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위치를 지켜야 한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님》자를 붙여부르며 부모들도 나이가 많아지면 《님》자를 붙여 존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부모들과 동생들앞에서 안해와 남편을 서로 존경함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이룩하는데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갓 결혼한 부부사이이면 《저, 좀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나 좀 봅시다.》 등으로 조용히 부르는것이 좋으며 좀 지나서는 《여보세요.》, 《여보》로, 아이를 낳은 후에는 《철이 아버지》, 《철이 어머니》등으로 부를수 있다.

형제들사이에도 부르는 말을 례절있게 하여야 한다.

손우형들에 대해서는 《형님》, 《누님》, 《오빠》, 《오라버님》, 《오라버니》, 《언니》등으로 존대해야 하며 손아래동생들이 점점 커가면 《야》, 《얘》대신에 《동생》, 《누이》등으로 하거나 《명철아》대신 《명철이》라고 하는것이 좋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했거나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아이나 그들의 아이이름과 함께 촌수를 부르는 방향에서 존대하여 불러야 한다. 이러한 부름말은 어린이들에 대한 교양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록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더라도 촌수로 웃사람일 때에는 웃사람으로 존대해야 한다.

가령 나이가 우인 시아우에게는 《아우님》, 《순희 삼촌》이라고 부르는것이 좋으나 그의 아이이름을 기준으로 《철이 아버지》라고 에둘러부르는것은 어울리는 존대라고 볼수 없다.

이러한 때 시동생은 자기의 형수인것만큼 비록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라 하더라도 《형수》, 《형수님》 또는 《아주머님》, 《아주머니》 하고 높여서 불러야 한다. 이때 형수되는 녀성은 촌수로는 자기가 웃사람대접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어쨌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시동생을 대하는 일인만큼 되도록 높여서 대하고 부르는것이 고상한 도덕으로 된다.

시누이가 되는 사람은 오빠의 안해가 비록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라고 하여도 자기의 웃사람인 오빠의 안해인것만큼 웃사람 즉 《형님》으로 불러야 한다. 반대로 오빠의 안해되는 사람은 시누이가 촌수로는 아래사람이 되여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조건에서는 《형님》, 《누님》으로 불러야 한다.

특히 가정까지 이룬 시누이인 경우에는 더욱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이러한 때에는 《누님》 혹은 에두르는 부름법을 써서 례절에 맞게 대하여야 한다.

가령 자기 아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모》라고 부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이이름을 따서 《순희 어머니》 하는 식으로 부르는것은 존중하는 례의로 되지 않는다. 손아래시동생, 시누이들을 대할 때에도 례절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이 어리다 하여 자기의 친동생처럼 《명철아》 하는 식으로 부를것이 아니라 《명철이》 등으로 높여부르는것은 점잖은 풍모로 된다.

시누이에게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부르는 말도 례절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시누이의 남편을 존중하는것은 곧 시누이를 존중히 대하는것으로 된다.

손우시누이의 남편을 《아주버니》 또는 《아주버님》으로 부를수 있으며 손아래시누이의 남편에 대하여서는 지방에 따라 《아주버니》, 《아저씨》 그밖에 여러가지로 부를수 있다.

동서사이에도 응당 례절있게 대하고 불러야 한다.

남편의 형제들이 귀한 사람들이라면 그 안해들도 역시 귀한 것이다.

예술영화 《금강의 세 동서》에서처럼 손아래동서들을 《동서》 또는 《아우》로 친근하게 부르고 손아래동서들은 손우동서들을 《형님》, 《맏형님》 등으로 친근하면서도 높이는 말로 부른다면 집안에는 단란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넘쳐날수 있다.

이러한 례절은 자기 남편과 시가에 대한 존대의 표시로서 안해는 그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된다.

가족, 친척들을 부르는데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것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삼촌, 누구의 고모 등으로 부를 때에 손우관계를 잘 알고 적용하는것이다.

이러한 에두름법은 반드시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대상에게만 써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례를 들어 자기의 형수를 부를 때 《옥이 어머니》 하는 식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아주머니》 혹은 《둘째아주머님》 등으로 촌수를 따져 불러야 한다.

그러나 자기 동생벌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옥이 아버지》, 《옥이 어머니》라고 부를수 있다. 다시말해서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는것은 자기에게 동생벌은 되지만 나이가 들어 《야, 자》 하기는 곤난하므로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아무개 아버지 하는 식으로 부르는것은 촌수가 없고 부르는 조건과 환경이 불가피할 때에만 쓸수 있다.

실례로 비슷한 대상이 여럿이 있어서 그저 《아버님》, 《아주머니》라고 하여서는 상대가 알아듣지 못할 경우에 《철이 아버님》, 《철이 어머니》 등으로 부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늙은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를 앞에 놓고 그렇게 불러서는 안된다.

촌수는 아래이지만 나이가 우이므로 낮추어부르기는 어려울 때 간혹 쓸수 있다.

또한 조카벌이 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 경우에는 《조카님》이라고 부르는것이 좋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사이에는 촌수를 지켜 부르도록 함으로써 형과 동생사이의 례절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은 아무때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것이 아니라 《오빠더러 시간이 되였다고 하여라.》, 《누나보고 분단동무들이 왔다고 일러라.》 등으로 에두름법을 써야 한다.

례의도덕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여 사회에로 퍼져나간다.

그것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사회로 나가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고 결국 새는 바가지는 주위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례의도덕을 잘 알고 철

저히 지켜나갈뿐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온몸에 푹 배인 례절바르고 로숙한 인간, 선군시대의 참다운 인간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 ※ ※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날에 날마다 선군조선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세기적인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보다 문명해질 강성국가에서 살아갈 인간들의 풍모도 새롭게 변모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선군조선의 미래이며 앞날의 주인인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대고조진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떨칠뿐아니라 사상정신생활과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갖추는데서도 앞장서나가야 한다.

더우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이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퍼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청년들은 온 사회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며 혁명승리를 굳게 믿는 신념문제, 사상적문제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을 정신도덕적으로 부단히 수양하여 선군시대의 참된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